

새국어생활

새국어생활

2014년 제24권 제4호 · 겨울

국립국어원 2014-02-04
정간위 심의필 95-13-4-21
ISSN 1225-7168

새국어생활 Saegugeosaenghwal
제24권 제4호(2014년 겨울) Vol. 195

인쇄일·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펴낸이 민현식
편집위원 남길임 · 이광표 · 주세형 · 진정란 · 최경봉
기획·편집 이승재 · 김형배 · 박성민
제작 커뮤니케이션북스(주)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번지)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77

※ 정기 구독 신청 및 구독 소감, 건의 사항 등 문의

《새국어생활》 담당자 | (02) 2669-9719 | bakpsm@korea.kr

차례

[특집] 국어 교육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국어 교육,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3

이삼형

영유아기, 가정의 국어 교육 20

진선희

자발성·다양성·공익성에 기초한 독서 교육을 지향하며
- 독서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소년기의 국어 교육 방향 34

조영수

직장의 국어 교육 방향과 미래 51

이형래

온라인 소통과 국어 교육의 역할 75

옥현진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이해 87

권순희

지금 이 사람

겨레의 말을 이으면서 나아가는 통일의 걸음

— 조재수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상임이사를 만나다 107

권창섭

문학 속 우리말

〈동짓달〉과 우리말의 위엄 117

임규찬

그분을 그리며

내 기억 속 안병희 선생님 126

서정목

국어 산책

평생 교육의 꽃, 문해 교육의 현주소 140

최유경

세계의 언어 정책

스페인의 언어 다양성과 언어 정책 145

조혜진

국립국어원 소식 159

[부록] 〈한글 맞춤법〉 부분 개정안(문장 부호) 180

[특집]

국어 교육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국어 교육,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삼형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1. 문제 제기

사회가 변하면 교육도 그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달라지고, 사회 변화에 의해 새로운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요즘 융합, 통섭 등의 개념이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고, 우리나라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국어 교육도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 교육 정책의 강력한 지원으로 '에스티이에이엠(STEAM)'이라는 융합인재교육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에스티이엠(STEM)¹⁾ 교육에 예술(Arts) 부분이 통합된 교육 접근 방식이다. 그러니까 융합인재교육(STEAM)이 과학, 공학, 수학 중심의 융합 인재 교육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융합인재교육(STEAM)에는 국어 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마땅치 않다.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융합인재교육

1) 이는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이 결합된 말이다.

(STEAM)에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융합 인재 양성에 국어 교육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자는 것이다. 혹자는 예술(arts)이란 좁은 의미의 미술만이 아니라 인문 교양 분야(liberal arts), 언어 소통 분야(language arts)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차한 설명에도 위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돌이킬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노년 인구의 증가와 출생 인구의 감소라는 국내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유목민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인재의 국가 간 이동이 자연스럽게 된 시대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제결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본인에 대한 우리말 교육도 큰 문제이지만 그들의 자녀에 대한 우리말 교육은 더 큰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우리말 교육을 위해 한국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지 국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위의 두 가지 변화에 국어 교육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와 관련지어 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하려 한다.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 변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 교육 전체 문제에 적용된다고 본다.

2. 국어 교육과 사고

국어 교육을 가장 단순하게 ‘국어+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틀은 ‘국어’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게 한

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그러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국어 교육이라는 것이다. 일견 당연하게 보이는 이 관점이 국어 교육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먼저 ‘국어+교육’ 도식에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자. 교육은 본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위해 무엇을 가르치는 행위이다. 과학이나 사회와 같은 교과에서는 가르칠 내용인 무엇이 비교적 명백한데 국어 교육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일까? 이런 의문에서 답을 찾은 것이 배경 학문이다. 수학, 과학, 역사 등 다른 교과들을 보면 그 교과의 교육 내용은 그 교과의 배경이 되는 학문 영역에서 제공하는 지식의 체계이다. 그렇다면 국어 교육의 배경 학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가장 근접한 것이 대학의 국어국문학이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1980년대까지 사용된 국어 교과서에는 우리말이 걸어온 길, 우리 문학의 역사, 단편 소설의 특질 등 국어국문학과 관련된 글들이 국어 교과서 제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친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어 교육과 가장 가까운 배경 학문이 국어국문학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더라도 국어 교육에 국어국문학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의 국어국문학적 지식을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언어 교육이라는 국어 교육의 본질적 특성과 잘 부합되지 않는다. 잘못하면 국어 교육을 너무 좁은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어 교육의 외연에 대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국어 교육이라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어 교육만을 떠올린다. 그것은 그 시기에 공부한 ‘국어’ 과목의 영향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유아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말 교육은 국어 교육인

가, 아닌가? 유아 교육에서는 공식적으로 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유아 교육 과정에서는 그 영역을 신체·언어·정서·인지·사회성 발달 5개로 나누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국어 교육과 차별화하기 위해서인지 모르나 국어 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언어 발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대학은 어떠한가? 예전에는 교양 강좌에 ‘대학 국어’라는 과목이 있었다. 어느 시기엔가 이 과목은 사라지고 ‘말과 글’,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국어 교육인가, 아닌가?

한 사람의 성장을 종단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의 학업 능력은 학령기 이전 유아기의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아가 생애 교육적 측면에서 국어 교육은 고등학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려 깊고 창의적 언어 사용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협력적인 공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대학에 이르는 우리말 교육을 국어 교육이라는 일관된 틀로 묶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우리말 교육으로서 국어 교육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어+교육’에서 ‘국어’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어의 배경 학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여 교육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에서부터 언어로서의 ‘국어’ 본연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 즉 언어란 무엇일까? 언어를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이다. 현대 언어학을 탄생시킨 소쉬르(Saussure)는 언어를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하여 체계를 강조하였다. 그는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은 체계로서의 언어인 랑그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실제 언어 행위에 해당하는 파롤은 언어의 참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다며 등한시했다. 그러나 현재의 많은 언어학자 및

철학자들은 소쉬르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의 참모습은 사용하는 언어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주의를 주창한 바흐친(Bakhtin)은 언어는 오직 대화적 상호작용에서만 존재하며, 언어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은 대화 또는 언어 사용에 있다는 말이다.

언어 사용이란 다름 아닌 담화(텍스트)의 이해와 산출이다. 사용하는 언어는 담화(텍스트)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어 교육도 명확해진다. ‘국어+교육’의 ‘국어’가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한다면 국어 교육은 자연스럽게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되고 그 실상은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 능력의 신장이 된다.

최근에는 언어 능력이 문식성(literacy)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된다. 문식성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 ‘literate’에서 온 말이다. 그런데 문식성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의 폭을 넓혀왔다. 문자 시대에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국가의 문맹률은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 주는 척도이다. 미디어 매체 시대에 들어서서 문식성의 의미가 확장된다.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읽고, 보고, 쓰고, 듣고, 말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능력으로까지 그 의미의 폭이 확대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프로그램(PISA)’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식성도 종래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선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사고력), 여러 정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비판력),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응용력과 창의력), 그리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표현력)을 종합하여 문식성이라고 규정한다.

사고력, 비판력, 응용력, 창의력, 표현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문식성이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 능력임은 글쓰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글쓰기가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뜻과 그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뜻도 있다. 신문이나 잡지의 대중적 글이나 논문과 같은 학술적 글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 문제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그 문제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담론들이 바라보지 못한 관점이 있고 그 관점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혀 준다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글쓰기는 사고력, 응용력, 표현력을 종합한 행위가 된다.

이러한 언어 능력은 소위 융합 인재 교육에서 기르려는 인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실 융·복합은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올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설명하는 ‘만능열쇠’(오은경 2010:268)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 융·복합 교육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천을 위해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많은 연구와 담론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융·복합 교육이 추구하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니까 순차적, 기능적, 문자적, 분석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좌뇌형 지식 근로자’만을 양산하는 데 힘을 기울였던(Pink 2006) 현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에 걸맞은 종합적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를 갖추고 배려, 공감, 개방성, 협동심과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융합인재교육(STEAM)은 학생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 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과학 기술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문,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 명실상 부한 융·복합 인재 교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융·복합 인재 양성 교육이 목표로 하는 것과 문식성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정확히 일치한다. 아울러 국어 교육을 언어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교과로 보자는 국어 교육관(이삼형 외, 2007)과도 일치한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면서 사고의 도구이다. 따라서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고도의 언어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국어 교육의 목표이다.

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국어 교육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유아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말 교육, 대학, 나아가 사회에서의 우리말 교육에 대해 일관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유아 교육에서 말하는 언어 발달은 결국 언어 능력의 신장을 말하는 것이고, 대학 교육에서 ‘대학 국어’ 대신 등장한 ‘사고와 표현’ 등도 결국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 발달의 특징은 크게 10세를 전후로 양분되는데, 전반기에는 말하기와 읽기, 쓰기의 기초를 습득하고 후반기에는 독해와 작문 능력 그리고 추상 개념과 추상 어휘를 통한 고도의 사고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이러한 발달은 당연히 연속적 관계를 갖는다. 읽기 교육에는 준비도(readiness)라는 개념이 있다. 학교에 입학하여 문자를 익히면 누구나 쉽게 글을 읽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입학하기 이전의 문식성 경험이 읽기 능력이 길러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어 대화에서도 질적인 대화 경험이 읽기와 쓰기를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언어 능력의 신장’이라는 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은 간단하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

다. 오랜 기간에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 우리는 그 예로 어린이의 읽기 능력 발달 과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문자를 익히고 처음에는 낭독하다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 낭독이 오히려 불편해져서 묵독으로 넘어간다. 낭독에서 묵독으로 넘어가는 데에도 몇 년의 시간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이러한 기능도 습득을 위해서는 다년간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은 어떠하겠는가?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고차원적 언어 능력은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루어지는 국어 교육으로 길러지기 어렵다. 범교과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부단히 연마해야 하는 것이다.

3.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과 점점 찾기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국어 교육은 우리말을 모어로 하는 화자가 그 대상이며, 한국어 교육은 제 2언어로 우리말을 학습하는 화자가 그 대상이다. 그런데 이런 단순 구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점이 발견된다.

우선, 재외 동포 자녀들의 우리말 교육부터 생각해 보자. 이민 1세대 자녀들은 우리말을 모어로 습득한 상태이므로, 이들에게는 현지어의 습득과 함께 모어인 한국어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주요한 문제가 된다. 이민 2세대 자녀도 가정에서 한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처음 접하는 언어는 한국어가 된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

는 사회적 환경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어가 소수 언어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²⁾ 학교에 들어가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강화되어 한국어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감산적 이중 언어(subtractive bilingualism)³⁾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중 언어 교육론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가 되면 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말을 포기하고 영어만을 모어로 하는 것은 어떨까? 이중 언어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에 그들에게 민족 정체성과 언어문화 정체성, 나아가 사회적 정체성까지도 흔들리게 되어 이른바 정체성 위기라는 심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나카지마 가즈코 2012:30). 따라서 이들에게는 우리말을 계승어로 유지하여 이중 언어 사용자로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적 접근인가, 국어 교육적 접근인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은 어떨까?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는 두 개의 언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물론 이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말일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들이 어머니의 언어를 계속 발전시켜 이중 언어 사용자로 커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두 언어 중 소수 언어 지위에 있는 언어는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말 하나만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언어의 다양성이나 이중 언

2) 동포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구성원들이 이중 언어 사용자로 성장하게 된다.

3) 랑베르(Lambert)의 용어로 소수 언어를 모어로 하는 아동들이 모어를 상실하는 것을 ‘감산적 이중 언어’, 사회의 다수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아동이 모어 외에 다른 언어를 추가하는 것을 ‘가산적 이중 언어(additive bilingualism)’라고 한다.

어 사용자로 클 수 있는 인재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중 언어 사용자로 남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는 언어 교육 내의 문제가 아니라 밖의 문제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독해 작문 능력 및 추상적 개념과 관련된 어휘력과 같은 고도의 우리말 능력을 길러주어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어 교육인가, 한국어 교육인가?

그렇다면 결혼 이주자나 이주 노동자의 중도 입국 자녀들은 어떠한가? 이들은 이미 모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처음에는 당연히 한국어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이구치 야스니(2009)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교대 방식, 보충 이민 방식, 순환 이민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교대 방식이란 특정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이 끝나면 귀국하게 된다. 보충 이민 방식은 노동 인구의 감소 또는 인구 구성의 왜곡을 외국 노동자를 불러들여 보충하는 방법이다. 순환 이민 방식은 유럽연합(EU)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념의 하나로 필요에 따라(외국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방식이다.⁴⁾ 어린이들의 언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대 방식과 순환 이민 방식은 순수하게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체류 기간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충 이민 방식은 체류 기간이 장기적이고 나아가 정착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앞의 두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즉, 보충 이민 방식으로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 자녀들은 한국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4) 여기까지는 나가자마 가즈코(2012:335)에서 재인용하였음.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측면이나 국익 차원에서 모두 합당하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말 능력이 모여 수준에 가깝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적합한 우리말 교육이 한국어 교육적 접근인가 아니면 국어 교육적 접근인가?

이 글에서 한국어 교육적 접근과 국어 교육적 접근을 애써 구분하는 이유는 둘이 기르고자 하는 우리말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에서 가장 상위 등급인 6급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은 다음과 같다.⁵⁾

- 전문 분야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를 보면 한국어 교육의 최상급에 도달하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과 작문 능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추상 어휘와 추상 개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한국어 교육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국어 교육과 국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누리집에 있는 등급별 평가 기준임.

어 교육이 협력하여 그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여 이 능력을 바탕으로 각 교과와 학습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고자 하는 입장보다는 서로 협력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다. 둘이 협력할 부분은 대개 성장기에 있는 중도 입국 자녀들이다. 우리나라에 유학 온 학생이나 성인들은 이미 모어로 추상적 어휘나 개념들을 이미 습득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으므로 모어 능력이 한국어로 전이된다. 이런 경우 협력점을 모색할 필요가 거의 없고 한국어 교육적 접근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모어 능력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의 협력이 요구된다. 해외 동포 자녀들이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도 같은 입장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이다. 그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가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4. 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어+교육’에서 국어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가르칠 내용에서 학문적 지식 체계를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다. 두 관점에 따라 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전자의 국어 교육관에 입각하면 교육 내용은 지식(학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다. 아울러 방법도 지식을 전달하기 용이한 교사의

강의 중심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읽기 수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진다. 제재가 문학 작품이면 작품의 해석에 기본이 되는 이론, 작품의 구조와 표현, 주제 및 의미 등을 전달해 주는 것이 주가 되어 교사 중심 강의로 수업이 진행된다. 제재가 문학 작품이 아닌 설명적인 글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IQRF, 즉 ‘강의(instruction)-질문(question)-반응(response)-피드백(feed back)’의 구조를 갖게 된다. 여기서 강의와 질문은 서로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질문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역시 그 역할은 강의를 보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수업에서 학습자는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게 된다.

이런 수업에서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자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반응 부분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가 중요하다. 피어슨과 존슨(Pearson & Johnson 1978)은 독해의 질문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텍스트의 구체적 정보를 묻는 질문, 텍스트 암시적 정보를 묻는 질문, 텍스트를 넘어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관련된 질문이 그것이다. 이 중 명시적 정보에 관한 질문은 텍스트에 들어 있는 내용을 찾아내면 되고, 암시적 정보에 관한 질문은 텍스트의 정보들을 종합하여 생각을 발전시켜 찾아야 한다. 특히 텍스트를 뛰어넘는 질문은 자신의 배경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내야 한다. 물론 읽기 지도에서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 즉 암시적 정보를 묻는 질문이나 텍스트를 뛰어넘는 질문을 많이 하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종합하면서 질문에 답하게 되어 고도의 사고 능력이 길러지게 된다.

그렇다면 국어 수업에서 교사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할까? 우리 국어 수업은 아니지만 참고가 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의 독해 수업 1,800분을 관찰한 드루킨(Drukin 1978~1979)에 의하면 단어 이상의 의미 단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시간은 전체에서 단지 1%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수업에서 의미 구성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국어 수업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IQRF의 구조를 갖는 수업 담화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교사는 이미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반응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답과 견주어 정정하거나 보충한다. 이것이 피드백 과정이다. 따라서 IQRF의 구조를 갖는 수업 대화는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대화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종료된다. 이런 대화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말하려는 바를 주의 깊게 경청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학습자의 내면의 소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만다.

국어 교육을 언어 능력의 신장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언어 활동 그 자체가 교육 내용이 된다. 교육 내용과 교육 활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글을 읽고 대화하고 쓰는 활동이 모두 교육 내용이 된다. 이러한 언어 학습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작동된다. 먼저 언어 학습은 총체적(whole)이며 기능적(functional)이고 의미 있을(meaningful) 때 극대화된다. 여기서 말하는 총체적이라는 의미는 학습자가 언어 활동에 이용되는 텍스트는 완성된 것이며 순수한 텍스트라야 한다는 의미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통합된 활동과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능적이라는 말은 학습자와 관련되어(connected) 있는 활동이며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이 있는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 교육의 다른 원리로 학습의 도구로 읽기와 쓰기를 사용할 기회가 많을 때 읽기와 쓰기가 신장된다는 것이다. 교과 학습에서 읽기와 쓰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래야 읽기와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 시간이 확보되며, 이를 통해 학문 영역에서 사용되는 추상적 어휘와 개념들을 익혀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식성 학습은 사회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학습의 사회적 과정을 중시한 사람은 비고츠키(Vygotsky)이다. 그가 제안한 근접 발달 영역에서 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대화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교사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식성은 이러한 사회적 과정 속에서 길러지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국어 교육의 수업 대화는 ‘강의-질문-반응-피드백’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화를 통해서 교과 내용을 깊게 이해하게 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 담화가 필요하다. 수업 담화에서 교사는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자들의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 형태-협동 학습이나 상보적 교수 방법 등과 같은 교수 방식을 택해야 한다.

5. 나오며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 변화의 잔잔한 모습은 놓치더라도 변화의 큰 틀은 바로 보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의 바탕이 되는 문제 발견 능력과 의미 구성 능력으로서 국어 능력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문식성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앞으로 국어 교육의 과제는 이러한 국어 교육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것과 어떤 관련성을 갖느냐 하는 것을 규명해 나가는 일이다.

아울러 세계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확대될 것이다.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교류가 활성화되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1인 1언어라는 대응 구조가 1인 2언어 또는 3언어로 바뀔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포기하고 한국어 교육으로 통일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어 교육은 언어 능력을 키워 주는 교과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에 충실한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국어 교육학의 본령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나카지마 가즈코 편저(2012), 《이중언어와 다언어의 교육-캐나다미국일본의 연구와 실천》, 한글파크
- 나카지마 가즈코(2013), 다중 언어 육성 이론의 동향과 캐나다, 미국, 일본의 다언어다문화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23권 4호, 국립국어원.
- 옥현진(2014), 국제 문식성 평가 분석을 통한 문식성 교육 시사점 탐색, 《청람어문교육연구》 49집, 73~103, 청람어문교육학회.
- 원진숙(2014),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2014년 여름 우리말학회 전국 학술대회 및 국어 정책 포럼 발표 논문집. 65~74.
- 윌터 J. 옹(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 오은경(2010), 통섭 또는 이중 네트워크: 학제 간 연구를 위한 소통구조 분석, 《서강인문논총》 29, 265~301.
- 이삼형 외(2007), 《국어교육과 사고》, 역락출판사.
- 이형래(2005), 문식성 교육의 확장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118, 249~282, 한국국어교육학회.
- 정옥년(2010), 평생학습자로서 독자의 발달, 《독서연구》 23, 71~105, 한국독서학회.
- Brozo, W. G. & Simpson, M. L.(1995), Readers, Teachers, Learners - Expanding Literacy in Secondary Schools, Merrill Prentice Hall.
- Pink, D.(2006), 《새로운 미래가 온다》, 김명철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원저 2005년 출판).

[특집] 국어 교육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기, 가정의 국어 교육

진선희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1. 영유아기 국어 교육에 대한 오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령기 이전의 국어 교육으로 문자 언어에 집중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년 입학생 중 많은 아이들이 글자를 소리 내어 읽을 줄 안다. 초등학교 국어과 수업을 받기 이전에 글자를 읽을 수 있어서 공부를 잘할 준비를 모두 갖추었다는 뿌듯함을 안고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글자를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해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다른 국어 교육이 잘 되어 있다면 말이다. 글자 읽기나 쓰기는 영유아기에 반드시 길러야 할 국어 능력은 아니다. 그렇다면 영유아기에 가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국어 교육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영유아기 가정의 국어 교육

국어 교육을, 말(음성 언어)을 주로 다루는 듣기·말하기 교육과 글(문자 언어)을 주로 다루는 읽기와 쓰기 교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

지만 말과 글은 일상에서 흔히 분리하여 다루지 않는다. 특히 영유아기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음성 언어의 습득과 문자 언어의 습득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영아기에 가장 먼저 ‘듣기’ 능력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듣는 능력이 부족하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습득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또 음성 언어 발달의 장애는 문자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눈에 띄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문자 언어 읽기 과정에 대한 성인과 입문기 아동의 차이점이다. 성인은 문자 언어를 시각적으로 지각하면 곧바로 그 의미를 구성한다. 이에 반해 입문기 아동은 기호로 된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로 바꾸어 청각적 자극으로 바꾸면서 의미를 구성한다. 소리로 들어야 의미 구성이 되는 단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영유아기에 음성 언어로 된 어휘나 문장의 의미 구성 능력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입문기에 이르러 읽기와 쓰기 등 문자 언어의 의미 구성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영유아기 교육은 매우 통합적이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활동은 국어 교육과 관련이 있다. 영유아기에 습득하는 모든 지식이나 지각 능력이 모두 다 국어 능력 획득에 작용한다. 굳이 국어 교육을 분리하여 설명하자면, 영유아기에는 구두 언어를 중심으로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단순히 구두 언어 교육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의 구두 언어 발달은 문자 언어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지 능력과 상상력과도 직결된다.

듣기·말하기, 문학 교육, 읽기·쓰기를 각각 ‘음성 언어 중심 국어 교육’과, ‘문학적 상상력의 교육’ 그리고 ‘문자 언어 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 음성 언어 중심 국어 교육

2.1.1. 영아기

아기의 첫 언어는 울음이다. 영아가 울음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때 부모는 울음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 주어야 한다. 혼자 울도록 오래 내버려 두거나 무시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이해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도 울음이나 재채기, 트림 등의 소리를 낸다. 이때 부모가 옆에서 적절한 말이나 소리로 대응을 해주거나 안아 주는 등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본인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익히는 과정이면서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길이다.

이후 행복하거나 만족한 느낌이 들 때 주로 모음과 관련되는 목 울리기(cooing)를 하고, 생후 3~4개월이 되면 다양한 모음과 자음으로 웅알이(babbling)를 시작한다. 생후 6~9개월이 되면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반복되는 표준적 웅알이(canonical babbling)를 한다. 이 시기에도 부모나 가족이 아기의 웅알이를 들어주고 대꾸하며 반응을 보이는 등 이야기를 나누는 교감이 필요하다.

생후 12~18개월 사이에 대부분의 영아들은 ‘엄마’ 또는 ‘아빠’를 지칭하는 어휘를 말한다. 처음에는 자음에서 시작하여 모음으로 끝나고 같은 소리를 반복하기도 한다. 가족의 호칭이나 ‘멍멍’, ‘야옹’ 같은 친숙한 동물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만 2세 무렵까지 사용 어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영아가 음성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말소리를 내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여러 소리 간의 차이를 지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소리와 말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만,

말소리 간의 차이와 그 의미 차이를 지각하고 소리 내는 능력은 가족과 상호작용하거나 가족의 언어생활에서 영향을 받으며 습득한다.

만 2세경에는 두 개의 어휘를 연이어 문법적 관계를 가진 문장으로 발화한다. 이때부터 보다 복잡한 문장을 구사하게 된다. 다만 조사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등을 생략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의 아동 언어를 전보문(telegraphic speech)이라고도 한다.

아동이 말을 배우는 시기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가 말을 배울 때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일정한 '기대'를 형성하는데, 그 기대에 따라 말하기 과정이나 태도를 학습하면서 성장한다. 즉, 영유아가 말을 할 때 부모나 가족이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눈을 맞춰 웃어 주고, 안아 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준다면 그에 맞추어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반응, 일관성이 없는 반응을 보이면 말하기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아이는 불안감을 느끼고 말하기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 즉,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갖게 된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아이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실패와 좌절을 자주 경험하게 됨으로써 특정 행동에 의욕을 잃고 회피하거나 수동적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영유아기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말하기 불안 증세로 나타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평생 동안 다른 이들 앞에서 말하기를 꺼리거나 말을 할 때 더듬는 등 불안증을 보이기도 한다. 말하기 불안이란 '말하기 과정에서 조마조마하거나 불안함을 겪는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말한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고이거나, 안절부절못하거나, 말문이 막히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면 말을 할 때 머뭇거리거나 더듬게 되어 말하기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말하기 불안을 조금씩은 겪을 수 있지만, 말

하기 불안 증세가 심하면 의사소통 장애뿐만 아니라 학업 부진을 유발하게 되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학령 전 국어 교육에서 더 중요한 것이 음성 언어 교육이다. 특히 말을 처음 배우는 영아기에는 그들이 내는 소리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 반응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효과가 크다. 부모와 가족의 관심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대화 등 말하기 상황에서 상대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길러 자신 있게 말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 준다.

2.1.2. 유아기

유아기에 길러야 하는 국어 능력 가운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낱말이나 문장을 듣는 능력이다. 낱말이나 문장의 발음이나 의미를 구별하며 듣도록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또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 몸짓, 분위기를 잘 파악하여 내용과 의미가 무엇 인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잘 듣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부모와 가족은 유아의 말을 잘 들어 줄 필요가 있다. 유아의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들으며 가끔 확인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낱말이나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주의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유아가 말을 할 때에도 귀를 기울여 청취하는 태도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유아기 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말하는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낱말이나 문장으로 정확하게 말하되 듣

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하도록 한다.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대화의 시공간이나 상대의 연령 및 성별, 친소 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한다.

유아는 말하고 듣는 경험을 통해 말하고 듣는 능력을 획득한다. 유아와 가족 친지 간 다양한 대화 경험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유아기의 중요한 국어 교육 활동이다. 대가족이 모여 생활할 때는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과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에 유아의 대화 경험은 그만큼 더 풍부할 수 있었다. 옛날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 할머니가 있고, 생활의 장이 더 넓은 삼촌이나 고모가 있다면 더 다양한 대화에 참여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의 대화 장면을 볼 기회가 있다. 핵가족 시대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친지와 가족 행사에 자주 참여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사하고 대화하게 해야 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풍부한 대화가 필요하다. 다정한 대화에서 자녀의 발음이나 어휘에 대한 교정 지도가 가능하며, 자유롭지만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이때도 아이가 대화에서 무시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이후 말하기 불안 증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네가 뭘 안다고 나서니?”,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잠자코 있어.” 등의 부정적 반응이나 무반응, 부모의 기분에 따른 비일관된 반응이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아이의 평생 말하기 태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유아기 듣기·말하기 교육, 특히 말하기 불안 증상의 예방을 위하여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아이의 말을 공감하며 끝까지 들어 주는

일이다. 가족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아이도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아이가 말을 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으음, 그래서?”, “그래.” 등의 반응을 보여 아이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하며 격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좀 더 이야기해 볼래?”, “더 자세히 말해 볼래?” 질문을 하거나 아이가 생각을 다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그리고 아이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부모가 그 내용을 잘 이해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들은 내용을 다시 진술하거나, 해석하여 다시 진술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기 아동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장난감, 생필품 등 여러 가지 물건의 이름, 쉽게 볼 수 있는 생물과 무생물의 이름, 상품명이나 건물 및 다리의 이름 등을 정확한 발음으로 말해 주고 정확한 발음으로 이름을 부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정보 그림책이나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다양한 경험 가운데서 실제 사물을 보며 이름을 부르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

유아기에는 부모가 동화를 들려주거나 읽어 주는 활동이 듣기·말하기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동화에 나오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어휘를 듣고 발음을 구별하며 의미를 판별하는 기회를 갖게 해 준다. 또 다양한 상황에서 즐겁게 낱말과 문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자연스럽게 동화의 내용에 대해 부모에게 질문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또 유아에게 흥미 있고 정서적으로 알맞은 동화를 읽어 주거나 들려주는 것은 몰입하여 듣는 태도나 능력을 길러 주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다. 아이가 흥미를 가진 이야기나 동화를 선정하여 들려준다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부모가 동화를 읽어 주거나 들려줄 때 기계적으로 글자를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보다는 동화 속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나 강약, 어조를 조절하여 재미있게 들려주어야 한다. 유아용 동화의 대화나 설명·묘사 등에는 대체로 같은 문장이나 낱말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나 낱말이 나올 때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할지 예측하게 하거나 따라 말하게 하는 등 참여하거나 행동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한다. 예를 들면, 〈아기 돼지 세 마리〉에서 늑대는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나 좀 들여보내 줘.”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물론 아기 돼지들의 대답도 반복된다. 세 번째 나올 즈음에는 “늑대가 와서 뭐라고 말했을까?”라고 아이에게 말해 보게 하여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듣게 한다.

몰입하여 듣는 능력은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며 태도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능력은 어른에게도 결여되기 쉽다. 하물며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유아기에는 강제로 학습시킬 수 없는 능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동화를 발견하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다시 듣는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인데, 아이의 요구대로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읽어 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이러한 몰입하는 듣기 태도의 근간은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대부분 형성되며 학교교육보다는 가정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2.2. 문학적 상상력 교육

상상력은 국어 교과 내의 문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능력이고, 무엇보다도 언어가 상징 기호이기에 국어 능력의 전반을 이루는 중요

한 요소이기도 하다. 유소년기의 상상력 발달은 언어 발달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학계의 보고를 유심히 볼 일이다. 언어 발달이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됨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유아어 수준에서 언어 발달이 지연되면 상상력 발달 속도가 더디고, 놓아는 때로 상상력이 매우 빈곤하거나 퇴화한다(허승희 외 1999, 189)고 한다.

상상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의 장을 확대하는 것과 언어적·비언어적 상징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화나 동시, 듣거나 말하며 즐기기, 극놀이 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2.1. 듣거나 말하며 즐기기

동요나 동시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유아기 때의 중요한 국어 교육 내용이다. 동요나 동시는 언어 사용의 정수(精髓)를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이가 언어 발달의 초기에 동요나 동시를 이해하고 즐기면서 획득하게 되는 언어 능력은 평생 동안 사용하는 언어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우리말의 가락과 빛깔과 향취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동시나 동요에 쓰인 아름답고 좋은 언어를 아이들이 익히고 그 재미를 느끼며 평생 아름답고 바른 언어 사용자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아기 아이들에게 적합한 동요나 동시는 그리 길지 않고 단순한 것이 알맞다. 말놀이 수준의 동시·동요를 선택하되, 장면이 선명하고 같은 어휘나 문장이 반복되어 운율적인 호흡으로 언어를 구사한 동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동요는 시디(CD)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멜로디와 함께 즐겁게 반복적으로 들으며 따라 부르도록 한다. 동시는 부모와 함께 간단한 동시를 외우거나 말놀이를 하며 반복하여 읊조리도록 한다. 의성어나 의태어 등 동시에 담긴 내용을 몸으로 흉내 내어 보게 하거나

장면을 상상하여 그림으로 그려 보는 것도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동화나 동시를 반복해 듣기를 좋아한다. 이때 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줄거리를 확인하며 이야기 속 세계를 상상하며 알아 간다. 아이는 자신이 알아낸 이야기를 말로 표현할 때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의 전체와 부분을 결합하고 경험을 체계화하거나 확대하고 재구조화한다. 이러한 이야기 이해와 표현 경험은 이후 창조적 능력으로 이어진다.

가정에서 그림동화나 동시를 읽어 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읽어 주는 부모도 스스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읽어 주는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의 흥미를 오히려 반감할 수 있다. 가정에서 유아와 함께 그림동화를 읽을 때는 무릎 위에 앉히거나 몸을 맞대고 앉는 등 신체 접촉을 통한 정서적 일치감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다. 그림동화를 읽어 주기 전에 표지 그림이나 책 제목, 삽화가와 저자를 짧게 소개하면서 내용을 예측해 보게 하거나 등장인물을 상상해 보게 하여 함께 읽을 그림동화에 흥미를 갖게 한다. 읽는 이는 등장인물의 성격에 알맞은 적합한 목소리와 편안한 호흡으로 읽어 주되,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 주는 것이 좋다. 아이의 언어 수준과 상상력, 주의 집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긴 문장은 축약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문장은 생략할 수 있으며 어려운 낱말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고쳐 읽어 줄 수 있다. 읽는 이가 일방적으로 읽어 주기보다는 아이의 표정이나 몸짓 등 반응을 감지하며 읽어 주는 것이 좋다.

2.2.2. 놀이하기

가정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이를 하게 하는 것도 영유아기의 중요한 국어 교육 활동이다. 아이들의 놀이를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도와

주고 모델이 되어 주는 성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성인이 놀이를 먼저 시작해 주고, 놀이 활동을 격려해 주는 것은 아이가 행복하게 말을 배우고 상상력을 기르도록 안내하는 일이다. 영유아의 부모와 형제, 조부모, 삼촌, 사촌은 가정에서 아이들과 놀이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주변 성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상생활의 모든 시간이 말하고 상상하는 놀이의 시공간이 될 수 있다. 알고 있는 그림동화의 등장인물을 흉내 내거나, 만화 영화의 내용을 흉내 내거나, 시장·가게·목욕탕·병원 등의 시설에서 경험한 것과 상상한 것을 흉내 내며 맡은 역할에 알맞은 대사를 하거나 행동을 취하는 것 등이 모두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아이들이 종이 인형 놀이, 소꿉놀이, 가족놀이, 병원놀이, 학교놀이, 시장놀이 등을 할 때 성인이 함께 하거나 방법을 알려 준다면 아이들은 더욱 흥겹게 자신의 국어 능력을 키워 갈 것이다.

2.3. 문자 언어 교육

본격적인 문자 언어 교육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 이루어진다. 유아기까지의 음성 언어 발달은 학령기의 문자 언어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아기의 음성 언어 교육은 문자 언어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그 점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는 문자와 직접 관련된 읽기와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3.1. 읽기

유아기에 주로 보는 그림책은 여러 종류가 있다. 생물과 무생물, 상품이나 인공물 등의 그림과 그 이름이 적힌 그림카드형 정보 그림책,

그림만으로 혹은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림동화, 그리고 동시 그림책도 있다.

입문기 읽기 능력의 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그림 읽기 단계이다. 그림 읽기 단계는 먼저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은 그림 읽기, 즉 그림의 이름을 말하거나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림의 행동을 말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를 형성하는 그림 읽기로 나아간다. 이때는 그림을 읽으면서 대화체로 말하거나 독백 형식으로 말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문어식 읽기를 시도하는 단계이다. 이때는 문어식 읽기와 말하기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책의 내용과 비슷하게 말하거나 단어나 내용을 암기하여 읽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글자를 읽는 단계이다. 글자를 인식하면서 그것을 소리 내어 읽으며 의미를 형성한다. 글자나 단어를 중심으로 읽기를 시도하며 잘 알지 못하는 글자는 생략하거나 알고 있는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문장과 거의 유사하게 읽기도 한다.

유아기는 글자를 읽기 이전 단계로 글자를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읽기 관련 지식과 지각력이 발달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음성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지각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가 부모와 함께 그림책이나 그림동화를 읽으며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의 내용에 알맞은 ‘글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된다. 그리고 책이란 ‘읽는 것’이고 ‘재미있는 것’이고 ‘유용한 정보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유아기의 읽기 교육이다.

그리하여 유아기에는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는 것이 가치가 높다는 것을 유아가 알게 해야 한다. 책을 드는 방법, 책장을 넘기는 방법, 책의 편리함과 즐거움 등을 알도록 하는 것이 유아기의 읽기 교육이다. 이를

위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동화를 그림 중심으로 읽으며 책장을 넘기고, 그림 중심으로 대화하며, 때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된다.

그와 더불어 가정의 문식 환경¹⁾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족이 책이나 글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물건을 쓴 포장지의 글자를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사전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물건 사용 설명서를 읽으며 물건을 사용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들려주는 등 글자를 읽는 것이 삶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유용한 일이며 재미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또 그림책이나 그림동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책을 비치하고 정리하며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3.2. 쓰기

쓰기 능력 발달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굵적거리기 단계이다. 이때는 글자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나 세로선이나 가로선을 그린다. 두 번째는 한두 개의 자형이 우연히 나타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한두 개의 글자 형태를 쓰는 단계이다. 네 번째는 가끔 자모의 방향이 틀리지만 글자의 형태를 나타내는 단계, 다섯 번째는 단어 쓰기 단계, 여섯 번째는 문장 쓰기 단계이다.

유아기는 본격적인 문자 쓰기 이전 단계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육을 하지 않으면 쓰기 능력 발달의 두 번째 단계 정도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문자 쓰기 교육

1)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문식력(literacy)이라고 하며, 문식력과 관련되는 모든 환경을 문식 환경이라고 부른다. 즉, 문식력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모습, 물리적으로 책과 잡지 등을 비치하는 것 등이 유아의 문식 환경에 해당된다.

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글자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며 말과 글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가정에서는 글로 써서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가족끼리 메모지에 의견을 적어 소통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아 읽으며 서랍이나 정리함 등에 부모가 직접 이름을 써서 붙이는 모습, 개인의 책이나 가방 등 물건에 가족 개개인의 이름을 써 붙이는 모습 등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 유아 자신의 소지품에 본인의 이름을 부모가 대신 써 주고 따라 읽어 보도록 하는 등 쓰기를 인식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

또 글자를 쓸 수 있는 손과 손가락과 팔의 협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는 아니지만 글자 흉내를 내보는 것도 필요하다. 물건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은 모두 문자 쓰기를 위한 준비 단계의 교육이 된다.

문자를 쓸 수 있는 다양한 도구 활용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유아기의 문자 교육 내용이다. 연필, 색연필, 사인펜 등의 도구를 바르게 잡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자세를 가족이 보여 줌으로써 학령기에 문자 쓰기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참고문헌

- 비고츠키 저/팽영일 옮김(1999), 《아동의 상상력과 창조》, 창지사.
신현재 외(2009), 《아동문학의 이해》, 박이정.
신현재 외(2009), 《초등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박이정.
진선희(2013), 《그림책을 읽다》, 한우리문학.
허승희 외(1999), 《아동의 상상력 발달》, 학지사.

[특집] 국어 교육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자발성·다양성·공익성에 기초한 독서 교육을 지향하며

— 독서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소년기의 국어 교육 방향

조영수 창문여자중학교 교사

1. 요즘 독서 지도의 실태

1.1. 과거와 다른 독서 지도 환경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도서관에 찾아갔던 적이 있다. 문학을 지도하신 선생님께서 도서관을 담당하신 것으로 기억난다. 그 선생님께서 나를 도서관으로 안내해 주셨다. 도서관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확 밀려왔다. 교실 한 칸 크기도 되지 않은 공간에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매우 낡은 책들이었다.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곳이었다. 그래도 학교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 자체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어렵듯이 난다. 지금까지 내가 책과 인연을 맺고 있는 것도 책을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내 기질 때문일지 모르겠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시설이 아주 좋은 도서관이 있다. 우리 도서관에는 1만 5,000권이 넘는 책이 있다. 게다가 멀티미디어 환경

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도서를 검색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있다. 카페에서나 볼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도서관에 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담소를 나눌 수 있다.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게 책을 읽으라고 온돌 시설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편안하게 엮드려서 책을 읽을 수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 할 만큼 학교 도서관이 달라졌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독서를 지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갖춘 학교들이 이제는 꽤 많다.¹⁾ 그리고 독서 지도에 대한 교사 연수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독서 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도 논술과 면접이 강조되면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업에서도 독서 경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책 읽기를 강조하기도 한다. 자기 계발 관련 서적을 살펴보면 독서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독서 방법뿐만 아니라 책을 쓰는 방법까지 설명하는 책도 많아졌다. 그만큼 독서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1.2. 당위성만 강조하는 그릇된 독서 지도

서울시가 분석한 ‘2013년 독서 실태 및 공공 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의 연간 독서량은 11.96권으로, 지난 2008

1) 여전히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앞으로도 독서 소외 계층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정기적으로 대형 버스를 활용한 이동식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 시설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년보다 7.52권 줄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시민이 많다는 얘
기다. 그리고 공공 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도서관을 이용
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3.8%가 ‘비이용’으로 응답했다.²⁾ 점점 책
을 읽는 문화가 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비슷하다. 많은 책과 좋은 시설을 갖춘 도서관은 있는데,
학생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 나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지도하는데,
한 반에서 책을 열심히 읽는 학생을 손에 꼽을 정도다. 참으로 역설적
인 상황이다.

학교에서 독서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대학
입시라는 큰 걸림돌 때문에 학생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고 느낀다. 독서와 공부는 별개라는 인식이 여전히 퍼져 있어서
학생들은 책 읽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영상이나
음악 등 청소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매체가 우리 주변에 많은 것도
문제다. 책을 읽기보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 이
어폰을 찾는 것이 요즘 학생들이다. 게다가 정보 기술(IT) 강국답게 인
터넷이 잘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휴대전화만 있으면
혼자 놀 수 있다. 독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한다면 책 읽기가 싫어질 수밖에 없다.³⁾

학교 안팎으로 책을 읽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독

2) <서울 문화 시민, 책 덮었다…독서량 5년 새 7권 이상 감소>,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4
년 3월 19일 자, 앞의 자료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319000249>

3) 독서 장애 요인으로 학생은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24.9%)’, ‘학교나 학원 때
문에 시간이 없어서(21.7%)’,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이용으로 시간이 없어서(18.2%)’
등을 꼽았다.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
관광부, 요약문 4쪽.

서를 지도하기란 무척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책을 무조건 읽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가르침만 있으면 독서 지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술 시험과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책을 읽을 때가 있다. 읽기와 쓰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무작정 독후감을 쓰기도 한다. 스스로 독서에 재미를 붙이고, 책을 읽고 난 느낌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하는데,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독서 지도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지난 4월에 모 방송국에서 편성하려던 ‘어린이 독서왕’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어린이 독서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왕을 뽑을 의도로 편성한 프로그램이다. 우선 책 40권을 선정하여 예선과 본선 시험을 치른다. 그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독서 골든벨 대회에 참여해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즐겁게 책을 읽는 방법으로 창안된 독서 골든벨 방식을 독서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을 주로 묻는 간단한 퀴즈 문제로 시험을 치르면서 학교 간 경쟁을 부추킨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아마 학생들은 선정된 40권의 책만 집중해서 읽을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책을 선택하여 읽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책을 즐겁게 읽게 하려는 원래의 의도는 사라지고, 오히려 학생들이 책을 멀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선정 도서 40권은 이미 시중에서 팔렸는데, 표지에는 ‘어린이 독서왕’ 스티커를 붙였다고 한다. 각 책은 ‘독서 지도안과 출제 예상 문제’를 부록으로 붙여 기존에 나온 책과 다른 형태였다고 한다.⁴⁾ 기존의

4) <KBS ‘어린이 독서왕’ 반교육성 논란>,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13년 4월 9일 자, 앞의

형식과 조금 다르게 책을 새롭게 출간했다는 것은 선정 도서라는 명목 아래 책을 팔려는 출판사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독서가 상품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다.

2. 독서 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법

청소년기는 몸과 마음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책은 청소년에게 훌륭한 조연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삶의 방향까지 결정해 주기도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청소년 시기에 읽은 책 한 권이 자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의 독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독서 교육은 책을 꼭 읽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많이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시험과 경쟁을 위해 강제로 책을 읽을 때가 많았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과 상황,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똑같은 책을, 똑같은 방식으로 읽게 하기 마련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책을 상품처럼 팔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책 읽기를 지도해야 한다. 자발성, 다양성, 공익성이 바로 독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점이다.

자료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582050.html>

2.1. 자발성: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독서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학생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또는 사회 교육 기관을 통해서 책을 읽는 방법을 다양하게 익혀 왔음에도 학생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책보다 재미있는 것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독서 동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⁵⁾

게다가 청소년 시기에 독서 동기가 떨어지는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독서 동기 관련 요인 중 하나로 읽기 효능감(reading self-efficacy)이 있다. 읽기 효능감은 읽기와 관련된 학생의 자기 판단이며,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의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읽기 효능감은 학년이 낮을수록 높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학교생활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읽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독서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독서 동기를 감소시킨다.⁶⁾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독서 교육에서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스스로 책을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독서 교육의 시작이다. 그리고 일정한 동기를 부여하면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봤을 때도 동기 유발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5) 이경화 외(2007), 《교과 독서와 세상 읽기》, 박이정, 121쪽.

6) 이경화 외(2007), 《교과 독서와 세상 읽기》, 박이정, 123쪽.

2.1.1. 좋은 책을 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동기 유발 방법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만화책을 많이 읽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귀퉁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가득 쌓아 놓고 읽던 기억이 난다. 나는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만화책을 읽기 위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책을 만나면, 그때부터 독서 지도가 쉽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입맛에 잘 맞는 책이란 무엇일까? 세상에는 좋은 책이 많다. 즉 ‘양서(良書)’가 많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양서(良書)’만 권한다면 독서 지도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워 주는 고전 작품을 모아 학생에게 권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책은 훌륭한데, 학생들은 그 책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학생의 독서 수준, 정서, 문화 등을 고려하여 책을 추천해야 한다. 말하자면 ‘양서(良書)’이면서 ‘적서(適書)’인 책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하는 추천 도서 목록은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좋은 자료가 된다. 다만 이런 추천 도서 목록만 전적으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학생의 독서 수준, 정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청소년 추천 도서 선정 기준 및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2005), 《책따세와 함께 하는 독서교육-추천 도서 목록 만들고 활용하기》, 청어람미디어. 이 책에서는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 선정 기준을 충실성, 가독성, 진술성, 대표성, 확장성, 복합성으로 정하고 있다.

-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을 찾아볼 수 있는 곳
 -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http://www.readread.or.kr>)
 - 어린이도서연구회(<http://www.childbook.org>)
 - 아침독서운동(<http://www.morningreading.org>)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http://www.kpipa.or.kr>)

2.1.2. 간단한 활동과 함께 책 소개하기

나는 군 복무 시절에 짬짬이 책을 읽었다. 내가 읽은 책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을 공책에 베껴 썼다. 그때 적었던 내용이 공책 한 권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가끔씩 그때 읽었던 구절을 볼 때가 있다. 지금도 베껴 쓰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인용하기 좋은 구절, 깊은 감동을 준 부분이 나오면 컴퓨터로 정리할 때가 많다.

이렇게 책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유용한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책 내용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퀴즈를 만들 수 있다.

1. () 안에 알맞은 숫자는?

케빈 베이컨 게임: ()다리만 건너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이이다.

2. 다음 내용은 참일까, 거짓일까?

- 1) 진시황이 북방 흉노족을 막기 위해 건설했다는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인공건축물이다.
- 2)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뇌의 10%도 채 못 쓰고 죽는다.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뇌를 15%밖에 못 쓰고 죽었다.
- 3) 정상인의 심장 박동 간격은 환자보다 훨씬 더 불규칙적이다.

출처: 정재승(2011),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어크로스.

학생들과 함께 퀴즈를 풀다 보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책을 소개할 때 퀴즈처럼 간단한 활동을 함께한다면 책을 추천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 내가 가르치는 여중생들은 과학 분야에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이 방법을 활용하여 책을 추천했더니 책을 찾아볼 때가 많았다. 학생들이 잘 읽지 않는 분야의 책을 소개할 때도 유용한 방법이겠다.

2.1.3. 학생들이 모르는 책의 세계로 안내하기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책의 세계를 보여 주거나 책을 읽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뜻이다. 거창하게 말하면 학생들을 책의 세계로 인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미지의 책의 세계로 안내하는 데에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는 주로 수업 시간에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주 끄집어낸다. 학생들도 알 만한 필자가 쓴 도서 칼럼을 소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도서 실태를 보여 주는 통계자료를 제시할 때도 있다.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여 주면서 요즘 책의 경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출판사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도 가끔씩 한다. 책의 날 행사, 국제 도서전 등 책과 관련된 행사를 소개할 때도 있다.

또한 독서를 주제로 한 영상 자료를 보여 주면서 독서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주로 책 읽기가 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보여 주는 영상을 시청한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이듯이 교사의 말보다 직접 보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클 때가 있다. 특히 시청각 자료에 익숙한 학생에게 도서 관련 영상을 적절히 편집해 보여 주면 동기 유발에도 큰 효과가 있다.⁸⁾

-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만한 영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앞쪽 뇌의 비밀
 - SBS 특집 다큐멘터리 <이야기의 재발견>
 - KBS <책 읽는 대한민국, 읽기 혁명> 2부작
 - 제1편: 한 살 아기에게 책을 읽혀라, 제2편: 읽지 못하는 시대
 - KBS <과학카페> 리딩사이언스

2.2. 다양성: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해야 한다

내가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의 독후 활동은 독후감 쓰기만 있었다. 책을 읽고 나서 200자 원고지에 정해진 분량만큼 쓰는 것이 독후 활동의 전부였다. 내가 교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도 크게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학생들은 독후감을 열심히 썼다.

그러다가 독서 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각종 독서 지도 연수가 실시되면서 다양한 독서 지도 방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 책을 읽고 난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중 하나는 창의성이다.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바로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한다면 참신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독서 지도가 필요하다.

8) 책 관련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 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수업 시간 내내 영상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능과 오락 프로그램에 익숙한 학생들이 다큐멘터리 성격이 강한 독서 관련 영상을 잘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가 적절하게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틈틈이 생각할 문제를 던져 주거나 영상을 시청한 후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수업 방법이라 생각한다.

2.2.1. 책을 읽고 난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요즘 청소년들은 인쇄 매체보다 영상 매체를 선호한다. 청소년들의 이런 특성을 잘 살린다면 보다 효과적인 독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각자 책을 읽고 난 느낌을 5분 안팎으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책과 어울리는 사진 몇 장을 보여 줘도 되고, 책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도 된다. 책의 내용을 잘 표현하는 음악을 들려줘도 되고, 새롭게 책의 표지를 만들어 보여 줘도 된다. 책에서 본 내용을 직접 시연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연극으로 꾸며 볼 수도 있다.⁹⁾

이렇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한다면 학생들은 책의 내용을 보다 창의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수도 있다.

2.2.2. 국어 활동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통합적으로 지도하기

독서와 쓰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활동이 독서라면, 이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가면 곧 쓰기가 된다. 그래서 독서 활동과 쓰기 활동을 분리해서 교육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수업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토론 활동을 덧붙일 수 있다. 글을 읽는 과정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 과정과 같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는 상대

9) 독후 활동 발표를 위해서 교사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 학생들의 발표 사례를 풍부하게 보여 주는 것만으로 창의적인 발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와 통한다. 그래서 독서와 토론의 만남은 자연스럽다. 학생들은 토론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 권의 책을 꼼꼼하게 읽고,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이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쓰는 수업 모형을 구상할 수 있다. 이는 국어 활동의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수업 방법이다.

[표 1]은 소설로 읽기(독서), 말하기(토론), 쓰기 활동을 통합한 수업 모형의 예이다.

[표 1] 읽기(독서), 말하기(토론), 쓰기 활동을 통합한 수업 모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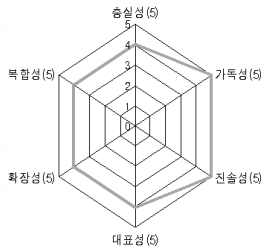
차시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1차시	책 권해 주기 메모하며 읽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 추천하기 • 메모하며 읽기의 필요성과 그 방법 (책을 읽을 시간 학생에게 제시) 	교사 강의
2차시	좋은 질문 만들기 독서 퀴즈 문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의 유형과 좋은 질문의 조건 • 독서 퀴즈 문제 만들기 • 친구의 퀴즈 문제에 의견(댓글) 달기 • 자신이 낸 문제 중 베스트 문제 뽑기 	교사 강의 학생 활동
3차시 4차시	참여식 토론 방법 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의 원리와 토론할 때 유의할 점 • 모서리 토론 방법 	학생 활동
5차시	소설의 내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의 내용 파악 •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 • 소설의 결말, 주제 파악 	학생 활동
6차시	PREP 글쓰기 기법 ¹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 • 한 문단 쓰기 • 독후감 쓰기의 기초 단계 	학생 활동
7차시	책 평가하기와 교사의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능력치¹²⁾로 평가하기 • 소설에 대한 교사의 해석 	교사 강의 학생 활동

2.3. 공익성: 독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란 말이 있다. 냉철한 지성으로 대상을 분석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남을 배려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를 갖기 원한다. 과거에는 독서가 교양을 쌓고 인격을 수양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책 읽기와 봉사 활동을 연계해 볼 수 있다. 요즘 재능 기부 형식의 봉사 활동이 많은데, 학교 교육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도록 한다. 컴퓨터 그래픽에 소질이 있는 학생에게 신간 정보를

-
- 10) 참여식 토론 방법이란 학급의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 방법을 말한다.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만한 다양한 토론 방법은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유동걸(2012), 《토론의 전사 1, 2》, 해냄에듀.
 - 11) 실용적 글쓰기 방법 중 하나다. ‘주장(중심 내용)-이유나 근거-구체적인 사례-주장(중심 내용) 재강조’로 글을 쓰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임재춘(2005), 《한국의 직장인은 글쓰기가 두렵다》, 북코리아.
 - 12) ‘책 능력차란 그림처럼 일정한 기준으로 책의 가치를 점수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좋은 책의 기준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http://www.readread.or.kr>)’에서는 책 능력치를 활용하여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을 누리집에 발표하고 있다.



알리는 예쁜 게시물을 만들도록 한다. 영상 편집에 재주가 있는 학생에게 독서 유시시(UCC, 손수제작물)를 제작하여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활동 모두 독서 캠페인 봉사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학교 바깥에서도 이런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부모가 잘 돌봐 주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읽어 주는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책을 읽고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보육원생처럼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연극을 공연할 수도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하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내가 활동하고 있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하 책/따/세)’¹³⁾은 몇 년 전부터 독서와 봉사 활동을 연계한 독서 자원봉사 활동을 여름방학마다 개최하고 있다. 2014년 여름에는 인권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한 후 학생들이 인권 유시시(UCC, 손수제작물)를 제작했다. 제작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⁴⁾ 학생들이 저작권을 기부했으므로 자유롭게 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책/따/세에서는 저작권 기부 사이트(<http://www.copygift.or.kr>)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난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저작물을 만든다. 이때 저작물은 그림, 사진, 글, 영상 등 컴퓨터 파일 형식만 유지하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이런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이다. 현재 1,000건이 넘는

13)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은 청소년 전용 도서관인 ‘푸른도서관’을 알차게 꾸려 보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독서 교육 문화 단체다. 책/따/세는 바람직한 청소년 독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1998년 이래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분이라면 책/따/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4) 유튜브 책따세 채널 중 제5회 청소년 독서자원봉사학교 제작 영상, 앞의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www.youtube.com/channel/UC6at0JgEOikcvHwKv0YUxKA>

기증물을 해당 누리집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⁵⁾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미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와 봉사활동과 연계하는 것은 공익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목적과 부합한다.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독서와 봉사를 연계하는 지도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올바른 독서 문화 형성에 교육 주체의 역할 중요

앞에서 나는 독서 교육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그 원칙은 바로 자발성, 다양성, 공익성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과 어긋나게 독서 지도를 한다면 독서가 입시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독서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책을 읽으면서 소중한 꿈을 키우는 학생의 모습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¹⁶⁾ 결과 2011년에 비해 학생의 연평균 독서율(지난 1년간 일반 도서를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이 12.2% 증

15)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ncic.re.kr/nation.kri.org4.inventoryList.do>

16)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www.me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308&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B%8F%85%EC%84%9C

가하여 96%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독서 지도를 고민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연간 독서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 조사에서 눈여겨볼 결과가 또 있다. 가정과 학교의 독서 환경 조성 정도가 독서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책 읽어 주기, 독서 권장 등 독서 관심 정도가 현재의 독서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독서 운동¹⁷⁾’이 독서 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아침 독서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독서량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는 이 조사 결과에서 교육 주체의 노력이 청소년의 독서량과 독서 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침 독서 운동’처럼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학생의 독서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 지도를 실천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독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교사다.

여기서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의 역할도 강조하고 싶다. 가정의 독서 환경이 학생의 독서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라는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학부모의 역할도 교사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독서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히 설 때 청소년들이 스스로 책을 읽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17) 아침 독서 운동은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아침 자습 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책을 읽자는 제안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www.morningreading.org/whatmrch/>

그렇다면 교사와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독서 지도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어렵다. 바로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청소년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과 함께 책을 읽는 것이다. 나아가 꾸준히 책 읽기를 지속하는 것이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독서 문화가 형성될 것이고, 새로운 독서 지도의 방향도 열릴 것이라 믿는다.

직장의 국어 교육 방향과 미래

이형래 서울동신초등학교 교사

1.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

사회는 변화를 전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변화는 인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구를 연마한다. 특히 직업이 있는 직장인에게 이 도구가 자신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힘으로 작용한다. 직장에서 국어는 이러한 도구 중 하나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일수록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급속한 사회 변화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개인과 집단이 변화하면 사회도 변화하는데, 사회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고 한편으로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도구가 있다. 이 도구는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이다. 그런데 직장인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은 직장인이 업무 수행에 동원하는 국어 사용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은 일을 하는 데 필수 자질이다.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국어 사용 능력은 생존 전략이다. 기업의 생산, 판매 전략이나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능력이 미약하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수술을 앞둔 의사나 증시 전망을 예측하는 분석

가나 의약품 설명서를 만드는 연구원에게도 국어 사용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국어 사용 능력은 직업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에게 국어 사용 능력은 변화를 극복하는 기본 자질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중핵적인 자질이기도 하다.

2. 학교 국어 교육의 유효 기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사람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이므로 전통적으로 학교 교육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국어과 교육 과정을 만들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교육하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의 사고력과 자기 표현력 함양을 위해 체계적인 글쓰기와 독서를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국어 교육을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직장 생활에서 국어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직장인에게 국어 사용 능력이 필수 자질로 요구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을 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은 직장에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

1) 조은기(2006)는 대기업 회사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직무 수행 능력과 국어 사용 능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제가 국어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읽기, 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국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게 ‘이노베이터의 조건’인데, 처음에 3분의 2를 읽었는데 앞의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읽으면서 조금씩 썼더니 반절쯤 되었는데 벌써 10장이 돼 버리고 말았죠.²⁾

공무원이 독후감 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독후 감상문 쓰기가 공무원의 직무 능력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후감 쓰는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문서나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다음 글은 공무원이 작성하여 주민센터 누리집에 게시한 글의 일부분이다.

(1)

-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강좌를 시범운영하오니 관심있으신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

- 여름철 냉방을 위하여 도로변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인근을 지나는 시민에게 후덥지근한 바람을 불어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9급 공무원이 권장 도서를 선택하여 읽고 독후감을 써야 하는 과제를 국어 사용 능력과 연계하여 언급한 내용이다. 공무원이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일은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아님에도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이유는 읽기와 쓰기가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3)

- 정비에 대한 관련 규정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 ☞ 도로면으로 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 ☞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실외기 전면에 커버설치 가능)
- 건설교통부 정비지침에 의거 2005. 5월 부터 정비를 앞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공무원은 국민이 읽게 될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글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 의미 해석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복잡한 문장으로 구성된 경우, 어법에 맞지 않게 구성된 경우,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게 구성된 경우, 부정확한 단어를 쓴 경우 등 다양한 오류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학교 교육에서 배운 국어 교육의 유효 기간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 든다.

3. 직장인이 하는 일과 국어 사용 능력

국어 사용 능력은 취업이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의 일 처리가 듣기, 말

하기, 읽기, 쓰기의 국어 사용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이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 사용 행위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핵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데에도 필수다. 다음 몇 가지 상황을 통해 일과 관련된 국어 사용 능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행정실 직원 ○○ 씨는 최근 교원 복지 관련 연수를 상위 기관에서 받고 와서 걱정이다. 교직원들에게 전해야 할 정보가 많은데 어떻게 연수를 진행해야 하나 고민이다. 결국 연수를 받을 때 나눠준 자료를 학교 이름만 넣고 그대로 다시 인쇄하여 나눠준 뒤 참고하라고 하였다. ○○ 씨는 자료를 요약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브리핑을(요약 보고를)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자동차 관련 기업 회사원 ○○ 씨는 타 부서에서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검토하는 중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새로운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보고서를 복사하여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가 결국 최신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구청 민원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 씨는 민원 편람을 빌려 줄 수 있는냐는 민원인의 질문에 민원 편람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묻는다. 그러고는 빌려 줄 수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는다. 다음 날, 민원인은 업무 처리 지침과 관련된 법률에는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복사도 가능하다며 다시 전화를 했다. 공무원 ○○ 씨는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니 서류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를 바꾸어 줄 테니 담당자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2001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정보통신 회사에 입사한 ○○ 씨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당황했다. 그는 “퇴근 뒤 무역 전반에 대한 학원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료 조사나 기획서 쓰는 법 등 회사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이 없어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5급 공무원인 사무관 ○○ 씨는 혁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보고서를 자주 참고하였다. 그런데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세 차례에 걸쳐 수정 지시를 받았다. 보고서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보고서의 서론 부분에 속하는(해당하는) 목적이나 방침 등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상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서 검토를 요청한다.

학교 행정실 직원은 교직원 연수를 위해 자신에게 글을 읽고 요약하는 읽기 능력과 요약한 내용을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국어 사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이 듣고 정리하는 기능이 미약하다면 자치위원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자동차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원이 보고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 구청 직원이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공무원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5급 공무원의 업무는 높은 수준의 국어 사

용 능력을 필요로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읽어야 하며 읽기를 통해서 선택한 정보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고서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해야 한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회사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실력 뒤에는 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도구가 자리 잡고 있다. 수준 높은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춘 유능한 업무 수행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시로 기록하고, 아이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찾아 읽고, 정리하며 아이디어를 수정해 가면서 업무에 적용한다. 직장인이 처리하는 업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행위와 같은 국어의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은 국어 사용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국어 사용 능력과 사회·국가의 발전

읽기와 글쓰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진 모든 성인에게 필요한 국어 사용 능력이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문서를 읽기와 쓰기를 통해 이해하고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개인의 국어 사용 능력은 개인이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 글은 반도체 생산 업무를 맡고 있는 직장인이 국어 사용 능력이 미약한 부서 내 업무 수행자의 특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이형래 2006:6).

읽기, 쓰기가 업무 중 70% 정도로 읽고 쓰는 시간이 많죠.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든, 서류를 보든.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해 하는 건데……. 오래 걸리는 사람은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찾을 때는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검색해도 못 찾아요. 내가 원하는 기술 자료를 찾고 싶다면, 10분이면 찾는데 읽기를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외국 사이트에서 찾다가 원하는 검색어가 안 나오면 검색어가 나오는 사이트로 옮겨서 그쪽을 찾아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다른 곳을 찾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해요. 처음에 검색한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 방법을 모르는 거죠. 똑같은 문서를 읽고도 내용 파악이 느려요. 읽기를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잡지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주는 보고서나 약품 설명서, 매뉴얼 같은 거, 기계 사용 매뉴얼이나 기술과 관련된 기능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읽기 기능이 떨어지면 듣기 기능도 떨어져요.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면 상사가 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들은 내용에 차이가 나요. 똑같이 들었는데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은 들은 내용을 잘 이해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회의 내용을 동료들에게 옮기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옮기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읽기는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내용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가도 크게 차이가 나요. 읽기를 못하는 사람과 차이가 많이 나요.

이 글을 통해서도 국어 사용 능력이 일반 회사원의 직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읽기 능력이 낮으면 직무 수행 능력이 낮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직업을 수행하는 성인들의 국어 사용 능력은 학생들의 국어 사용 기
능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학교 국어과 교육의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그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고 넓다. 학
교 국어과 교육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국어 사
용 기능 교육에 초점을 두고 활용된다. 교수 학습 과정에 제시되는 텍
스트의 상황은 실제라는 현상을 고려하고 있고 학생들의 미래 대비 능
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텍스트가 현
재 이 시점의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교육하고 학습한다
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곧바로 사회 구성원이 되어 그 역량을 쏟아 낼 수
는 없다. 즉, 학교 국어과 교육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는 이 사회의 미래
발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현시점에서 실질적인 사회 발전 동력으
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을 가진 성인들은 이와 다르다. 성인들의 국어 사용 능력은 실질
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국어 사용 능력을 갖추어 개인이 속해 있는 회
사나 사회 속에서 그 역량을 쏟아 낼 수 있다면 이는 곧바로 개인의 성
장과 발전, 회사와 사회, 국가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기업에서는 특정한 도서를 선정하여 사원들이 독서 동아리
를 만들어 독서 활동을 하게 하고, 독후 활동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회사
의 책임자가 참여하여 업무와 연결 짓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어 사용 능력 수준이 낮은 성인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도 없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없다. 기업이나 정부가 직업을 갖고 있
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능력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국어 사용
능력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업무의 효율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업을 가진 성인들의 국어 사용 능력은 사회, 기업, 국가의 발전에 즉
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인, 사회,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다. 그

러나 우리는 성인들의 국어 사용 능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학교 교육을 마친 성인이라면 누구나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민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의 수준은 그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과도 직결된다. 국민의 읽기, 쓰기 능력이 낮으면 국가 경쟁력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헐(Hull 1999:379~411)과 캐슬턴(Castleton 2002:556~566)은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는 국가 경제의 골칫거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하는 사람의 읽기와 쓰기 능력이 경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읽기와 쓰기의 기본적인 기능(機能)을 아래와 같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일하는 사람의 읽기와 쓰기 능력이 세계 경제 발전의 원천임을 언급한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엄청난 정보와 재정적 자본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환경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혁신을 이용하여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 시장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능력들은 인적 자원의 기능과 지식에 달려 있다. 국제성인문식성조사(IALS)³⁾는 읽기와 쓰기 능력이 국가의 혁신과 적응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 준다(OECD 1996:3).

3) IALS(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는 국가의 읽기, 쓰기 능력의 수준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진 국제 연구이다. 1994년 가을, 7개국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에서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면담과 테스트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30개국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논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의 실체를 탐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인의 국어 사용의 실제적인 상황과 장면, 맥락 등을 고려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며 직장인들의 국어 사용 능력의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을 하는 직장인들의 업무를 관찰하고, 분석해야 하며 다양한 직장인들의 국어 사용 맥락을 바탕으로 국어 사용 능력의 의의와 가치를 규명해야 한다.

국어 사용 능력 개념은 직업을 수행하는 개인은 물론 집단, 사회, 국가 등과 같은 공동체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개인은 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자신의 업무 능력을 점검할 수 있다. 업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국어 사용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게 된다.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개인에게는 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개념이 직무 수행 능력을 준비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5. 직장인의 주요 업무와 국어 사용 능력

그로그네트(Grognet 1995:11)는 초·중·고 학생들의 읽기, 쓰기에 관한 연구는 방대한 정도로 이루어졌지만 성인들의 국어 사용 능력 연구는 직업의 양식이나 형태에 대한 분석 연구에 한정해 부분적으로 있을 뿐 실질적인 연구는 없다고 지적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로 ‘말로 자신의 능력 소개하기’, ‘자신의 의사 표현하기’, ‘물음에 답하고 질문하기’, ‘광고 읽기와 취업 원서 읽고 작성하기’ 등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직장에 계속 남기 위해서는 ‘지시 사항 따르기’, ‘일의 과정이나 결과 보고하기’, ‘업무 협조 요청하기’, ‘정확하게 설명하기’, ‘설명서 읽기’ 등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직업을 잘 수행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참여하기’, ‘일의 지시 사항 전달하고 전달받기’, ‘협상하기’, ‘해석하기’,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알기’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국어 사용 능력보다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편적인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 업무 계획서 작성하기
- 결재 받기
- 업무 협조하기
- 문서 다루기
- 업무 보고하기
- 업무 협의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민원 처리하기
- 출장 업무 수행하기
- 보고서 작성하기

다음은 9급 공무원의 일일 업무를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기록 정리한 내용의 예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일을 하는 직장인에게 국어 사용 능력은 필수 자질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여기서 제시한 10가지 업무는 9급 공무원의 직무 전체를 반영한 것이다.

9시에 전자 문서와 개인 전자 우편을 확인합니다. 10시경에 전자 문서와 전자 우편으로 처리할 사항을 확인하고, 방문할 가정에 전화를 하여 방문 시간을 정합니다. 11시경에는 전자 문서로 구청 보고 사항 및 신규 신청자 재산조회 의뢰를 보건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조회·실시합니다. 오후 1시경에는 오전에 약속한 세대에 대한 가정 방문을 실시하고 애로 사항과 요구 사항을 파악합니다. 오후 2시경에는 방문 결과에 대한 상담 내용을 보건복지프로그램 통합 조사표 상담란에 입력합니다. 3시경에는 각종 민원 업무에 대한 답변 및 조사 내용을 처리하고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오후 4시경에는 새마을 부녀회 회의 자료를 만들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보건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 급여 및 각종 급여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고, 학비 지원 대상자를 학교별로 재차 조회 의뢰 공문을 발송합니다. 오후 5시경에는 전자 문서 수신을 확인하고 급한 사항을 바로 처리합니다. 오후 6시가 다 되면 월별 계획표를 보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기록합니다.⁵⁾

6. 직장인의 ‘업무 계획서 작성하기’와 국어 사용 능력의 관계

직장인이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다양한 정보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수반된다. 상

5)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의 일과를 서술한 내용이다.

[표 1] 업무와 업무 관련 국어 사용 행위 및 세부 업무

주요 업무	업무 관련 국어 사용 행위	주요 업무와 관련된 세부 업무
업무 계획서 작성하기	듣기, 말하기	업무 추진 방향 협의하기
		연간 업무 추진 설명 듣기
		연간 업무 추진 계획서 설명하기
		추진 계획서에 대한 부서 직원들의 반응 듣기
		추진 계획서에 대한 상급자의 지시 사항 듣기
		추진 계획서 작성을 위한 관련 부서원들의 의견 듣기
		추진 계획서 작성, 자료 수집 절차와 방법 문의하기
		추진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작성 내용에 대해 협의하기
		추진 계획서에 대한 타 부서 검토 의견 듣기
		추진 계획서의 수정 사항 듣고 메모하기
	읽기, 문법	지난 해 업무 계획서 검토하기
		연간 업무 추진 계획서 초안 검토하기
		연간 업무 추진 계획서 세부 내용 점검하기
		연간 업무 추진 계획서 요약하기
		연간 업무 추진 계획서 관련 정보 검색하기
		연간 업무 추진 계획서 관련 정보(상위 기관 업무 지침서) 활용하기
	쓰기, 문법	연간 업무 추진 계획서 초안 작성하기
		연간 업무 추진 계획서 구성하기
		연간 업무 추진 계획서 수정본 재작성하기

부 기관에서 수립한 업무 추진 계획은 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밑그림이 된다. 따라서 상부 기관에서 하부 기관으로 전달되는 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반응이나 상급자의 의견도 중요하

다. 이러한 의견은 업무 계획서 작성 전 단계에서는 물론 작성 중, 작성 후에도 필요하며 업무 계획서 작성에 반영된다.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서 회의나 상급자와의 회의, 상급 기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회의 과정에서 업무 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할 수도 있다. 회의 후에는 부서 책임자의 지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하며 업무와 관련된 의사를 교류하기도 한다.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업무 계획서의 핵심 내용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협조적인 체제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상급 기관의 업무 지시 사항은 모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상급 기관의 업무 지침 사항을 반영할 때,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해 업무 계획서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업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지난 해 업무 계획서를 참고해 새로 작성하게 된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업무 계획서 작성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담당 업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수립, 추진해 온 업무 계획서를 참고하는 것은 새로 작성하는 업무 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업무 계획서 작성하기는 주로 쓰기와 관련된 언어 행위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은 않다.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듣기와 말하기는 물론 읽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 예를 들면 업무 처리 방법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업무 계획서에 구성할 내용,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의사 교류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업무 계획서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 정

보를 검색한 뒤 중요 사항들을 파악해야 한다.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고차적인 사고 기능이 요구된다. 이는 업무 처리 과정 자체가 국어 사용 과정이며 동시에 사고 과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업무는 언어 행위, 사고 기능, 사고 과정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 계획서 작성을 위해 업무 기획하기를 한다. 업무 기획하기는 연간, 월간, 주간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획하기는 상급 기관에서 받은 업무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상급자와 관련 부서 담당자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업무를 기획하여 문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해야 하며 동료들과도 기획 회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기획자는 자신이 기획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업무의 중요성과 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결재자, 동료, 관련 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이러한 업무 기획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질문할 때,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업무 기획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관련 기관이나 관련된 업무, 상위 기관의 업무 지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연간·월간·주간 추진 업무에 대한 흐름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업무 계획서 작성하기 과정에는 초인지(meta-cognition)가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업무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업무 간의 관계나 업무의 흐름을 보다 상위 수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수집한 자료를 읽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기획안을 작성하고 업무 관련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업무 기획의 결정적인 단서를 얻기도 한다. 이러한 업무 수행은 고차적인 수준의 읽기, 듣기, 말하기 능력과 관련 있다.

업무 협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록하거나 정리하는 기능 역시 기획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생성되는 아이디어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녹취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준비한 업무 기획 아이디어와 다양한 문서, 동료나 전문가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 기획 초안을 작성한다. 업무 기획 안을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원인이나 해결 방안까지 고려하여 기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획서 작성의 단계는 쓰기 기능과 관련된다. 이처럼 업무 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획하기는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7.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과 몇 가지 의의

국어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는 국가, 기업 등의 인적 자원 개발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가 발전이 인적 자원 개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요소로 규정한 국어 사용 능력은 인적 자원 개발의 지표가 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이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어느 수준으로 요구되는지, 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국어 사용 능력 평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인적 자원 구성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인적 자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국어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는 학교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국어 사용 현상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일은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핵심 성취 기준도 반드시 직장인의 국어 사용 현상을 반영해야 한다.

직장인의 읽기와 쓰기 능력에 관한 개념은 두 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연결되어 있다. 첫째는 읽기와 쓰기 능력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 권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과 정부는 직장인들이 읽기와 쓰기 능력을 잘 갖추도록 최대한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읽기와 쓰기 능력이 개인과 사회, 기업, 국가에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 개인은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직장의 이익을 위해 국어 사용 능력을 계발해야 할 책무성을 지니게 된다.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개인에게는 국어 사용 능력이 직무 수행 능력을 준비하는 지침이나 안내의 구실도 한다. 직장인에게 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근거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잘 해야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직무 수행 과정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점, 읽기와 쓰기 능력은 업무 성과를 높이는 중요 요인이 된다는 점 등이다. 또 직장인의 주요 업무가 국어 사용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어 사용 능력이 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기초가 되며, 동시에 업무 자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회사는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직장인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국어 사용 능력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직장인의 국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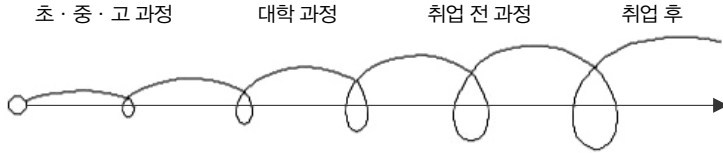
능력 신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이 회사에 필요한 몇 가지 근거를 보면, 기업의 이윤 창출은 직장인의 언어 사용 능력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직장인의 국어 사용이 업무 수행에서 의사 결정의 중핵적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장에서 업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지속적, 연속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별 업무 수행자는 자신의 국어 사용 능력 수준을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개인의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의 개념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직장인들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행정적인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직무 수행자들의 국어 사용 능력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데, 인적 자원의 핵심 능력이 바로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8. 직장에서 국어 교육의 방향과 미래

[그림 11은 한 개인의 국어 사용 능력 계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직장인은 국어 사용 능력 계발을 위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직장인은 공적인 상황에서의 국어 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 수행과 관련 있는 국어 사용 능력 계발을 위해서는 스스로 '반성적', '비판적', '창의적' 업무 태도로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그림 1] 국어 사용 능력의 요구 수준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한 개인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정부 차원에서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 계발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국어 사용 능력 계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직무 수행 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직장인을 위한 독서 토론 프로그램이나 모형을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기획 문서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 회사나 기업에서는 직무와 관련 있는 사원들의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위해 사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는 사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주도의 국어 능력 시험을 기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사내 독서, 토론, 작문 모임을 운영하여 업무와 관련 있는 토론 능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 있는 독서 감상문 작성하거나 상급자와 하급자 및 업무 관련자들 간의 대화의 시간 갖기를 통해 소통을 기반으로 한 원활한 업무 문화를 구축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여 직장인들의 독서 동기를 부

여하고, 독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아리별 독서 이력제⁶⁾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도 가능하다. 다양한 정보 기기를 통해 업무와 관련 있는 최신 고급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직무 수행 상황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기능’, ‘의사소통 기능’, ‘사고 기능’, ‘인간관계 기능’, ‘업무 지식 활용 기능’은 국어 사용 능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직무 수행으로 이어진다 (이형래 2008:147). 직장인들의 보편적인 업무 중 한 가지인 ‘협의하기’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이 고루 동원된다. 협의하기를 위해서는 협의 내용과 관련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말해야 하며, 읽고 써야 한다. 또한 협의하기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말하고 들어야 하며, 읽고 써야 한다. 직장인들에게는 직무 수행을 위해 국어 사용 능력이 필수다. 따라서 직장인을 위한 국어 교육은 ‘직무 국어 교육’이라는 개념 정립을 통해 다음의 ‘지식’, ‘기능’, ‘태도’를 그 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표 2]의 각 내용은 직무 수행 상황에서 국어 사용 능력과 관련 있는 지식, 기능, 태도이다. 직장인이 다루는 지식은 직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직장인은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 있는 지식이 왜 필요한지, 그러한 지식을 다루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지, 업무의 특성은 잘 파악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처

6) 각 부서나 동아리에서 읽은 도서를 개인의 독서 이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업무 지식 향상은 물론 직무 수행자로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표 2] 직무 국어 교육의 내용 체계표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지식	필요성, 목적, 개념, 특성, 방법, 과정, 태도, 문법			
기능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이해하기 평가하기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평가하기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이해하기 평가하기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평가하기
태도	자발성, 흥미와 관심, 동기			

리 과정을 인지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직장에서의 총체적 태도⁷⁾ 또한 직장인 국어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다. 국어 사용 능력과 관련 있는 직장인의 태도는 직장인의 직무 수행 능력의 척도가 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위의 표에서 ‘기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편적으로 직장인은 업무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정보와 내용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한다. 그리고 생성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조직하는 일을 하며, 그렇게 완성된 자료를 이해하면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들 업무는 반드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연동된다.

직무 국어 교육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직장인 개인의 몫이다. 국어 사용 능력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장인의 국어 사용이 곧 직무 수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더불어 회사나 기업을 운영하는 책임자

7) 모든 직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인지, 심리적, 행동적 태도.

는 그들의 최종 목적을 실현하는 데 직장인의 국어 사용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는 국어 사용 행위를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와 기업의 책임자가 직장의 직무 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과 직장인의 직무 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와 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국어 사용’이 곧 ‘직무’라는 관점과 ‘직무 국어 교육’이 곧 ‘직무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직장에서의 국어 교육의 전망은 밝다. 이런 관점을 인식한다면 첫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교육의 방향도 직무 상황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국어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성취 기준을 반드시 실질적인 직무 상황이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기업에서는 직장인이 직무 국어 교육의 실질적 수혜자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학교 국어 교육을 강화하면서도 직장 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 직장인들의 국어 사용 능력 계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셋째, 직장인은 자신의 직무 능력 계발과 국어 사용 능력 개발을 위해 직무 국어 교육, 직장 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직장인이 입사하고 퇴사할 때까지 국어 사용 능력은 늘 직장인과 함께한다. 늘 사용하는 국어이기에 직장인의 국어 사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직무는 국어 사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국어 사용 능력은 중요한 업무 수행 자질이다. 직장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왔지만 직무 국어 교육을 소홀히 여겨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제부터라도 직장인의 국어 교육이 직무 교육의 중추적 자리를 맡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형래(2006), 《공무원의 직업문식성 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형래(2007), 직장에서 요구되는 국어능력에 관한 조사 연구, 《국어교육》, 122, 85~115, 한국어교육학회.
- 이형래(2008), 현대 사회와 직업문식성,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136~155.
- 조은기(2006), 직장에서 요구되는 국어능력, 《미래사회에서의 전문활동과 국어능력》, 한국어교육학회, 51~55.
- Castleton, G.(2002), "Workplace Literacy as a Contested Site of Educational Activity", *Journal of Adolescent and Adult literacy*, 45(7, April), 556~566.
- Grognet, A. G.(1995), "Adult Education in the Workplace", Literacy, Work, and Education Reform, *Summary of a Symposium Marking the 35Th Anniversary of the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11.
- Hull, G. A.(1999), "What's in a Label?" *Written Communication*, 16(4, October), 379~411.
- OECD(1996),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3.

온라인 소통과 국어 교육의 역할

옥현진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1. 소통에 대한 세 가지 일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소통’이 환기하는 느낌은 그리 밝지 않다. 선정적인 자료와 폭력적인 댓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뒤에 ‘국어 교육’까지 붙었으니 아마도 독자들은 제목으로 미루어 ‘~은 나쁘다’ 하는 식의 비판 글이나 ‘~은 하지 말자’는 식의 제안을 떠올리기가 쉬울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 글을 구상하면서 필자는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의 소통에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온라인 매체와 결부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온라인 매체에 그 혐의를 씌우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떠오른 세 가지 일화로 글을 시작해보려고 한다.

첫째, 미국 유학 시절 필자는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박사 논문을 썼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한인 청소년 100여 명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중 지금까지도 한 누리소통망을 통해 가끔씩 소식을 접하는 여학생이 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 여학생은 이민 2세대로 미국

에서 출생했으며, 주말이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청소 일을 하는 부모님을 도와 시내 한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곤 했다. 지병을 앓고 있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아버지를 위해 그 여학생은 가능한 한 빨리 교사가 되어 가장 역할을 하고 싶어 했고, 그 꿈대로 현재 한 주립 대학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여느 이민 2세대와 달리 그 여학생은 아주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천은 주말 저녁에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는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다. 덕분에 그 여학생은 한류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권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둘째, 몇 년 전 국책 연구 기관에서 근무할 때 필자는 한 아랍 국가의 초청을 받아 교육 박람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거기에서 통역을 돕는 대학생 또래의 아랍 여성 몇 명을 만날 수 있었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나라에서 이들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우리 측의 요구 때문이었다. 주빈이었던 한국 방문단에 대한 교육 당국의 큰 배려였던 셈이다. 박람회가 개최되는 일주일 동안 필자는 그 여성들로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한류의 실체를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그 여성들, 그리고 그 또래 친구들은 특히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오늘 한국에서 드라마 한 회가 방영되면 24시간 이내에 아랍어 자막이 붙어 인터넷으로 제공된다고 했다. 이들이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은 여성들의 자유로운 사회 활동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동시에 불만의 응어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커지고 있음을 그들의 말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그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특

히 뛰어났던 한 여성은 이웃의 매우 가난한 나라 출신으로 기술자인 아버지를 따라 이민을 왔다고 했다. 차별받는 여성들 사이에서 또 다른 차별을 느껴야만 했던 그 여성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필자에게도 여러 차례 묻더니 결국 그 꿈을 이루어 현재 충청도의 한 국립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다.

셋째, 몇 달 전 필자는 누리소통망에서 한 지인이 링크해 놓은, 치약에 대한 글 한 편을 읽었다. 치약 맨 아랫부분 중간에 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선의 색깔이 곧 치약의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란 내용이었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검은색은 100% 화학 성분을, 빨간색은 화학 성분과 천연 성분의 혼합을, 그리고 녹색은 100% 천연 성분을 표시한다고까지 했다. 화장실에 있는 치약을 살펴보니 모조리 검은색이라 실망도 되고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글은 사실이 아니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지인이 한 신문사의 기사(《월간헬스조선》 2014년 7월 호)를 링크해 댓글로 달아 놓았는데, 기사의 한 부분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치약 뒷면에 있는 사각형 세로줄은 아이마크(Eye Mark)다. 용기를 인쇄할 때 기계가 치약 튜브의 중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시다. 센서가 아이마크를 잘 인식하게 하고자 아이마크에 다양한 색상을 넣는다. 즉, 치약 뒷면 세로줄 색상은 제조업자의 단순한 잉크 색깔 선택에 달린 것일 뿐, 성분과는 무관한 것이다.

뭔가 수상쩍다는 생각에 사실 여부를 검색해서 친절하게 관련 기사까지 댓글로 올려준 지인이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왜 그때 그 글을 그렇게 쉽게 믿어 버렸을까 부끄러워졌다.

2. 소통의 본질, 소통의 역사

소통은 인류가 온갖 역경을 견뎌 내고 지금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이룩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인류에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새로운 소통 방식, 그리고 그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이들에 대한 인류의 존경과 찬사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의 한 방송사(A&E Network)는 20세기가 저물어 가던 지난 1999년에 세계적인 학자, 언론가, 예술가를 대상으로 지난 1000년의 역사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물은 뒤 그 결과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적이 있다. 수많은 사상가, 정치가, 과학자, 예술가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사람은 구텐베르크였다. 영국의 존 판던(John Farndon)이라는 작가도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 50가지를 추출한 다음, 수천 명의 영국 네티즌들에게 그중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1위를 차지한 것은 인터넷이었고 2위는 문자였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 대학에서는 학부 1학년과 2학년 학생 4,900여 명에게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을 물어보는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그 대학 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설문에서 1위에 오른 사람은 세종 대왕이었다. 고인이 된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매콜리(James McCawley) 교수는 매년 10월 9일이면 휴강을 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한글날을 기념했다는 일화로 유명한데, 우리 대학생들의 설문 결과도 매콜리 교수의 찬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소통하고 싶어 하는가? 그 까닭을 위에서 소개한 일화와 한번 연결해 보자. 첫째 일화의 여학생이 인터넷이라는 소통 경로로 한국에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를 시청하는 일은 가족 구성원 간

에 공동의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둘째 일화의 여성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소통은 비록 현재로서는 미약하지만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비판적 대안을 탐색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으로 유학을 온 여성의 경우 인터넷으로 제공된 한국 문화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셋째 일화처럼 우리는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싶어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인류의 문명과 문화 발전에 조금씩 기여한다. 비록 가끔씩은 필자처럼 잠시나마 잘못된 학습의 부작용을 겪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 글이 온라인 소통에 대한 것인 만큼 온라인 소통과 관련이 있는 일화를 소개했지만, 사실 소통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첫째 일화는 신화의 구전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이어 가고자 했던 선조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둘째 일화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하는 민요를 불러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선조들의 모습, 그리고 셋째 일화는 목판에 글자를 아로새겨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현재 국어 교육에서는 소통의 목적을 크게 정서 표현, 설득, 정보 전달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의 세 예화 역시 순서대로 이 세 범주와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소통의 시대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통하는 방식이다. 인류는 소통하되 그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 즉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왜곡 없이 온전한 형태로,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문자의 도움을 기대하

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부르기 쉽고 외우기 쉬운 노래로 메시지를 만들어 동시대의 구성원들과 향유하거나 후대에 전하려고 했고, 문자가 발명된 뒤에는 무거운 점토판 위에 뾰족한 갈대로 글자를 새겨 넣음으로써 역사 시대를 열었다. 이후 종이와 인쇄술의 보급은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윽고 현재의 디지털 문명은 전 세계를 하나의 두뇌로 엮어내기에 이르렀다.

소통 방식의 지속적인 발전은 비매개(immediacy)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매개란 가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꿈꾸는 것처럼 한 인간의 두뇌 속에 저장된 지식이나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 작용이 어떠한 매체도 경유하지 않은 채 다른 인간의 두뇌 속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과정을 가상의 개념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인류의 소통은 몸짓이든 음성이든 문자이든, 그리고 책을 통해서든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든 매체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 매체들은 각기 고유의 물리적 속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메시지를 음성에 담으려면 화자와 청자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제3자의 입과 기억을 통해 그 메시지를 다른 시공간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초의 메시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전화나 녹음기는 음성화된 메시지가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옮겨졌을 때 왜곡되는 정도를 최소화해 주는 획기적 매체였다. 활판 인쇄술과 책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에게 일시에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가능케 해주었다.

그렇다면 온라인 시대의 소통 방식은 앞선 시대의 소통 방식을 극복하고 있는가? 여러 면에서, 그것도 획기적인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필자가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온라인 소통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복잡한 기술적 장치와 별도의 공간이 없어도 노트북에 한두 가지 프로그램만 설치되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료 학자들을 언제든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 마치 서로 마주하는 것처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때로는 온라인 공간에 하나의 문서 파일을 만들고 여러 명이 동시에 서로 다른 부분을 작성해 하나의 최종 파일을 완성하기도 한다. 유학 시절 만났던 박사 과정 동료들이 지금은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언제라도 누리소통망으로 안부를 묻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온라인 소통은 음성을 통한 소통에서 두드러졌던 시간과 공간의 제한, 그리고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을 대부분 극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소통은 문자 소통의 일방향성을 극복하고 댓글과 링크를 통해 점점 더 양방향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리고 보면 온라인 소통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곧 온라인 소통을 통해 우리가 극복하고자 했던, 기존의 소통에서 나타난 제약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작용임을 알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마치 한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이왕이면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발전시켜 온 소통의 방식들로 인해 더 자극적이고 더 직접적인 소통의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것이며 한번 발생한 부작용의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장점을 극대화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온라인 매체와 온라인 소통 방식을 대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통의 본질을 알고, 소통 방식의 특성을 파악하며,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기 위한 본격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국어

교육이 그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을 다음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3. 온라인 소통의 시대와 국어 교육의 역할

국어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소통 능력의 신장에 있다. 다시 말해 소통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알아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어 교육이 담당해야 할 일차적인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온라인 시대이든 먼 훗날 또 다른 소통의 시대이든 국어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다만 소통의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는 만큼 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어 교육의 최종 목적은 그러한 소통 교육을 통해 개별 학습자들이 당대의 소통 방식에 능숙해지고 그러한 능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꿈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둘째 일화에서 소개했던 아랍 여성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온라인 소통의 시대에 국어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온고지신’이라는 말이다. 즉, 인류의 소통 방식은 새로운 소통 방식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전의 소통 방식을 폐기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로운 것을 얹는 누적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온라인 소통이 삶의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나누는 대화나 책 읽기, 신문 읽기는 여전히 주요한 소통 방식으로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 교육의 역할이란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지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절한 교육의 내용으로, 그리고 적절한 교육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제대로 교육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온라인 매체의 속성과 온라인 소통 방식에 대한 지식적 이해이다. 즉, 본격적으로 매체를 활용한 소통 교육에 앞서 온라인 매체의 속성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아이에게 책을 올바르게 잡도록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도록 교육하는 것, 연필을 바르게 쥐고 글씨를 바르고 예쁘게 쓰도록 가르치는 것 또한 문자 소통을 위한 적응 교육의 일환이다. 하지만 온라인 시대의 매체 적응 교육은 앞선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문자 소통 시대에 엘리트 집단에 속했던 사회 구성원들이 온라인 매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도 매체 자체에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대량적으로 전개되며 그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도 심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그러한 문제 행동을 하게 될 때 야기될 부작용도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는 소통 과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정신 작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국어 교육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교육 내용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온라인 소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매체 적응 교육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인터넷의 텍스트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라는 점에서 인쇄된 텍스트와 차이를 보인다. 하이퍼텍스트란 용어는 1960년대에 컴퓨터 과학자였던 테드 넬슨(Ted Nelson)이 제안한 것으로, 텍스트와 텍

스트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서로 즉시 연결이 가능한 형태로 끊임없이 결합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인쇄 매체에서 읽기는 저자가 정해 놓은 순서에 따라 선형적인 형태로 전개되는 반면, 하이퍼텍스트에서 읽기는 독자의 관심과 판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전개되며 그만큼 독자들의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읽기가 중요시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자들은 어느 순간 인터넷에서 방향감을 상실할 수도 있고, 수많은 정보로부터 효과적인 취사선택을 못해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 텍스트에 대한 읽기 교육에서는 인터넷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인터넷 텍스트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읽기 방법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대두된다.

셋째 일화에서 필자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소통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능력도 온라인 소통 시대에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온라인 소통의 시대는 곧 1인 출판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인쇄 매체 시대에는 소통할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이 소수 엘리트 집단이었고, 인쇄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온라인 소통의 시대에는 그 모든 과정이 개인에게 맡겨지며 대개 생략된다. 온라인 매체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소통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더 다양한 목소리가 소통되는 장점도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졌다. 따라서 소통할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메시지를 수용하는 이들에게는 메시지를 비판적·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컴퓨터로 글을 쓰는 방식도 원고지나 종이에 연필로 글을 쓰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원고지 글쓰기에서는 손으로 글을 쓰는 활동 자체가

주는 물리적 고통과 쓰기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발달하게 된다.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내용 창안과 개요 작성에 보내는 것은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글쓰기에서는 타자를 치는 속도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속도를 따라가고, 이미 써 놓은 글에 대한 수정, 편집, 보관이 편리해짐에 따라 써 가면서 내용을 창안하고 조직하는 방식, 즉 모자이크 방식의 글쓰기 전략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글쓰기 교육에서는 컴퓨터와 글쓰기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글쓰기 전략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통한 글쓰기가 보편화하고 그렇게 작성된 글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출판되면서 생겨난 부작용 중 하나는 무분별한 인용이나 표절의 문제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역사가 이미 수백 년으로, 온라인 매체 탄생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표절의 문제 또한 그 혐의를 온전히 온라인 매체에 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 교육,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윤리 교육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4. 맺으며

이 글에서 필자는 개인적 체험과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온라인 소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 나은 온라인 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국어 교육이 더 나은 온라인 소통 문화 조성의 일차적 역

할을 맡고 있지만 바람직한 온라인 소통 문화가 학교 교육만으로 가능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어디서든 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디서나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과 직장, 대중매체, 상업적 포털 사이트 등 사회 전반이 같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온라인 소통 문화 형성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이해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용어의 문제

북한 이탈 주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북한 이탈 주민은 법률적인 용어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새터민이 있다. 새터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의미로 200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우리말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인 2011년 말에 새터민 대신 북한 이탈 주민을 공식 용어로 사용할 것을 공표하였다. 그 결과 요즘 국가 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줄여서 탈북민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 이탈 주민 자신들은 새터민이라는 용어보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편이라고 반응한다. 그러나 두 용어는 관점이 다르다고 본다. 새터민은 정착에 초점이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은 탈북에 초점이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한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자신들을 실향민으로 불러 달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북한 출신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남한 출신 주민과 짝을 이루어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북한 이탈 주민도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할 예산 확보가 되고,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일반인과 구분 짓는 용어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어의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2.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은 200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10월말 현재 2만 7천여 명¹⁾에 달하고 있다. 2011년을 정점으로 북한 내부 변화에 따른 북한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그 증가 속도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해에 1,500명 정도 꾸준히 남한에 입국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제3국에 체류하면서 남한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은 개인의 문제를

1)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14년 10월 말 입국자 기준) (단위: 명)

구분	'98 까지	'01 까지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10 (잠정)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235	8,182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896	19,071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131	27,253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79	70

통일부 통계자료, 「북한이탈주민정책」 참고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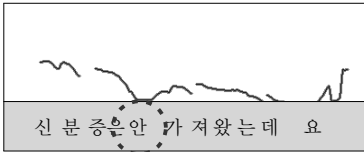
넘어 남한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까지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분단 70여 년을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 어려움 중 하나가 언어 차이이다.

현재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대다수는 함경북도 출신이다. 함경북도 말은 성조 방언이라고 해서 남한으로 말하자면 경상도 방언처럼 높낮이가 심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억양이 두드러지고 남한 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디만 해도 북한에서 온 게 바로 표시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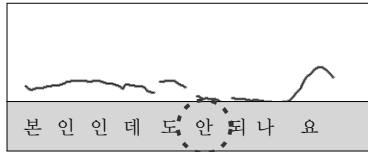
예를 들면, [그림 1]과 같이 남한에서는 ‘안’ 부정어가 들어간 표현을 말할 때 말토막의 첫음절은 보통 낮게 발음하므로 부정어 부분의 억양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북한 이탈 주민은 ‘안’ 부정어가 들어간 표현을 말할 때 부정어 부분의 억양을 높고 세게 발음한다 (권순희 외, 2012:243).

[그림 1] 표준어 구사자의 부정어 ‘안’의 억양

• 신분증은 안 가져왔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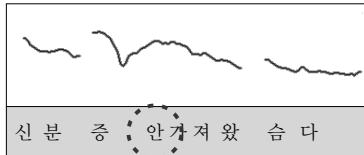


• 본인인데도 안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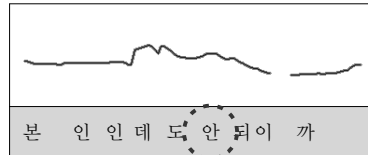


[그림 2] 북한 이탈 주민의 부정어 ‘안’의 억양

• 신분증 안 가져왔습니다.



• 본인인데도 안 됩니까?



음식이나 음료를 권하는 남한 사람의 권유에 거절을 하려고 “안 먹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경우 북한 이탈 주민이 부정어를 높게 발음하면 남한 사람들은 이를 공손하지 않은 표현으로 받아들여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발음 역시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언감자’를 ‘온감자’라고 발음한다. 북한의 ‘어’가 원순화되면 우리말의 ‘오’와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으’가 원순화되어 ‘우’처럼 들린다. ‘꿀’을 ‘꿀’이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억양과 발음을 표준어로 교정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어휘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수많은 외래어와 외국어, 한자어, 신조어는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생활에 많은 부담을 준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등을 통해 전문 어휘 및 학습 어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화용상의 차이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언어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는 다문화 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언어의 차이로 생각되지만 핵심으로 들어가면 사회 체제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 차이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은 대부분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남한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하며, 북한을 탈출했을 때 생각했던 목표와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실과의 괴리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한다.

3. 남북 언어 차이 사례

북한 이탈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방송 <반갑습네다>(CGNTV) 중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3개월 동안을 분석한 결과에 토대를 두어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3.1. 일상 어휘 차이

언어 차이 중에서 특히 어휘는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일차적으로 대화 자체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표면적인 것이다. 그 양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사례가 있다.

(예 1) 북한에서는 달력 보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이렇게 번지는 것은 더
욱더 어려웠어요.(반갑습네다, 37편 2012년 북한의 절기, 2012년 1월
13일)

(예 2) 달력 중 이렇게 특별히 번지는 것은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반갑습네
다, 30편 특별한 외로움, 2011년 11월 25일)

(예 3) 학습장을 번져가던 룡호의 입은 대변에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쓰려는
것과 똑같은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국어 소학교 3, 143쪽)

(예 1), (예 2), (예 3)에서 ‘번지다’는 ‘넘기다’의 뜻이다.

(예4) 공장들에서의 생산 체계의 정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반갑습네다, 39
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예5) 항일유격대가 남만원정준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던 어느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철주동생으로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몹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시였다.(국어 중학교 1, 87쪽)

(예 4), (예 5)에서 북한어의 ‘다그치다’는 ‘힘쓰고 있다’는 의미로 부정적 의미가 없다.

둘째, 사용하는 어휘는 다르지만 의미 이해가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 6) 2월 16일은 휴식일이지만 국가 행사에는 참여하여야 한다.(반갑습네다, 37편 2012년 북한의 절기, 2012년 1월 13일)

(예 7) 오락회 시간(반갑습네다, 13편 북한의 대중문화, 2011년 7월 22일)

(예 8) 북한에서 4월 4일은 식수절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는다.(반갑습네다, 37편 2012년 북한의 절기, 2012년 1월 13일)

(예 9) 농산기구로 쓰기 때문에(반갑습네다, 22편 남북한 음식의 차이, 2011년 9월 30일)

(예 6)의 휴식일은 휴일로, (예 7)의 오락회 시간은 오락 시간으로, (예 8)의 식수절은 식목일로, (예 9)의 농산 기구는 농기구로 뜻풀이 예 측이 가능하다.

셋째, 한자어의 조어나 사용 형태가 상이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 10) 저는 너무 너무 궁직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반갑습네다, 37편 2012년 북한의 절기, 2012년 1월 13일)

(예 11) 할 수 있다고 하는 궁정심을(반갑습네다, 37편 2012년 북한의 절기, 2012년 1월 13일)

(예 12) 저는 북한에서 보면은 항상 그 민족의 언어를 고유적인 것들을 보유하고 싶고 지켜 내고 싶은(반갑습네다, 12편 교육 무엇을 배우나, 2011년 7월 15일)

(예 10)의 ‘긍직스럽게 생각하고’라는 표현은 남한에서는 ‘긍지를 갖게 되고’로 표현된다. ‘긍정심’은 ‘긍정의 마음으로’, ‘고유적인’은 ‘고유한’으로 대응되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남한에서는 십이개월(12개월)이라고 숫자를 읽지만, 북한에서는 열두 개월로 읽는다. 일 킬로그램, 이 킬로그램, 십 킬로그램 등의 표현을 북한에서는 한 키로, 두 키로, 열 키로 등으로 표현한다. 또한 105를 말할 때 백공다섯이라고 표현한다.

(예 13) 한국에서는 육칠십 키로가 아니라 한 열 키로만 지고 가도 힘들더라
구요.(반갑습네다, 7편 탈북목회자협회 김태진 선교국장, 2011년 5월 27일)

(예 14) 지금 저는 스무 키로 지고 가라하면 아마 무겁다고 버릴 거예요.(반
갑습네다, 7편 탈북목회자협회 김태진 선교국장, 2011년 5월 27일)

(예 15) 백공다섯 살(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넷째, 한자어의 앞뒤 순서가 바뀐 사례가 있다.

(예 16) 래왕이 되기 때문에(반갑습네다, 22편 남북한 음식의 차이, 2011년 9월 30일)

(예 17) 대상했기 때문에 괜찮지만(반갑습네다, 30편 특별한 외로움, 2011년 11월 25일)

(예 18) 한글을 세종대왕이 제창하셨다는 것을 한에서는 배운 적이 없다.(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예 19) 호상비판

(예 16)~(예 19)와 같이 ‘래왕’은 ‘왕래’, ‘대상’은 ‘상대’, ‘제창’은 ‘창제’, ‘호상’은 ‘상호’와 대응을 이룬다.

다섯째,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북한에서만 특수하게 사용하는 어휘가 있다.

(예 20) 혹시 뭐 주패, 화투? 혹시 장기(반갑습네다, 13편 북한의 대중문화, 2011년 7월 22일)

(예 21) 고난의 행군 이후에 돈을 벌 수 있으면은요. 장마당에서 돼지고기도 사 먹고(반갑습네다, 22편 남북한 음식의 차이, 2011년 9월 30일)

(예 22) 북한에서는 어지간하면 엇서지 않으려고 합니다.(반갑습네다, 28편 생활 총화란 무엇일까? 2011년 11월 11일)

‘주패’는 ‘카드’를 의미하며, ‘장마당’은 ‘시장’을 의미한다. ‘엇서지 않으려고 한다’는 표현은 ‘맞서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섯째, 북한에는 없는 어휘로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처음 듣게 되었다는 어휘가 있다.

(예 23) 서양식 음식 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반갑습네다, 22편 남북한 음식의 차이, 2011년 9월 30일)

(예 24) 식당에서 몰랐다. 티슈, 글라스(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 (예 25) 범람했다. 이 말을 모르겠더라.(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 (예 26) 홍수 모르겠더라 북에서는 큰물이라고(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 (예 27) 하나원에서 교육생들에게 남한에서는 아이들 함부로 만지지 말고 특히 남성들은 ‘변태’로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변태’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 명태가 변해서 변태가 되는가 생각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17회 탈북미녀 특집 제1탄, 2012년 3월 24일)

(예 23)~(예 27)에서 제시하는 서양식, 티슈, 글라스, 범람, 홍수, 변태 등의 어휘는 남한에서 처음 알게 된 어휘라고 북한 이탈 주민은 증언하고 있다. 그밖에도 문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예 28) 된장 맛이가 콩으로 하는 거보다 엄청 맛이 없죠.(반갑습네다, 22편 남북한 음식의 차이, 2011년 9월 30일)
- (예 28-1) 우리 분대 전사 월급이가(반갑습네다, 31편 북한 군대 옛보기, 2011년 12월 22일)
- (예 28-2) 결혼 날짜를 정할 때는 여자 쪽이 권한이가 세거든요.(반갑습네다, 21편 북한의 연애와 결혼, 2011년 9월 23일)
- (예 29) 근데 저희 집에서 지금 가끔씩 저 동생이나 저나 이제 어머니를 제가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반갑습네다, 12편 교육 무엇을 배우나, 2011년 7월 15일)
- (예 30) 개인적인 어떤 것들은 그분들한테 털어 안 놓게 되고(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예 30-1) 뭔가 도와 안 주고(반갑습네다, 7편 탈북목회자협회 김태진 선교국장, 2011년 5월 27일)

(예 31) 알아 못 들겠습니다.

(예 31-1) 들어 못 가서 전화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 31-2) 알아 못 듣는 언어에 대해서 바로바로 물어봤을 때(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예 28)과 같이 주격 조사에서 ‘이’와 ‘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제와 저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 이탈 주민은 (예 29)처럼 ‘제 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저 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 30)과 (예 31)처럼 부정어 ‘안’과 ‘못’의 위치가 남한과는 달리 용언 뒤에 옴으로써 위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어휘나 문법의 차이는 어쩌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남북 언어 차이로 인해 남북한 사람이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접사 ‘질2’)의 경우 사전을 찾아보면 “직업이나 직책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어떤 직업 뒤에 ‘질’을 붙이면 그 직업을 비하하는

2)- 질11 「접사」

1. (도구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가위질, 망치질, 결레질 등
2.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결눈질, 손가락질, 주먹질, 등
3.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직업이나 직책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선생질, 목사질 등
4.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주로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계집질, 노름질, 서방질, 싸움질 등 (표준국어대사전)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한 일반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탈북 청소년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은 탈북 학생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진로 상담 도중 꿈이 뭐냐는 담임 선생님의 질문에 ‘선생질을 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는 학생의 말을 듣고 그동안 가졌던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사례로, 북한 이탈 주민이 사용하는 ‘밀다’와 남한 사람이 사용하는 ‘밀다’의 차이로 인해 감옥까지 갈 뻔한 북한 이탈 주민의 사연은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다. 북한 이탈 주민 A는 주차 문제로 인해 노인 B와 실랑이를 하게 됐다. 당시 B는 만취한 상태에서 A의 목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A가 B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B가 실수로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뇌진탕을 일으켰다. B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만취로 인해 술이 깰 때까지 수술을 못하고 있다가 이내 사망하고 말았다. A는 경찰서에서 “당신이 B를 밀었습니까?”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나중에 남한에서는 ‘밀다’와 ‘뿌리치다’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안 A는 재판 과정에서 B를 밀 것이 아니라 뿌리친 것이라고 다시 진술했었다. 함경도가 고향인 A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밀다’를 ‘뿌리치다’는 의미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밀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하였다(강보선, 2013:146 참고).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는 단순히 남한 정착의 어려움을 넘어 인간관계 갈등과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어휘 차이에 대한 연구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교재 개발에서도 단순한 어휘 차이 소개를 뛰어넘어 언어문화적 차이, 화용적 차이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2. 간접 화행, 직접 화행의 차이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휘의 차이로 인해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대화 방식의 차이로 인해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대화뿐만 아니라 도서나 드라마 등을 이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발화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목표 전달, 즉 메시지의 포인트가 메시지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발화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메시지 자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W대학교 석사과정인 북한 이탈 주민 L의 증언)

예를 들면 남한의 경우 회사에서 상사가 “덥지 않아요?”라고 발화를 했을 때 그 발화를 들은 일반 회사원의 경우 대부분 상사의 ‘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창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트는 행동을 하거나, ‘창문을 열까요?’ 혹은 ‘에어컨을 켜까요?’ 등의 발화를 한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는 ‘덥지 않아요?’라는 발화에 대한 답으로 본인 더울 경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별로 덥지 않습니다.”로 발화를 한다. 이는 메시지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발화 수반 행위나 발화 효과 행위를 해석의 범주로 넣느냐에 따라 청자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북한 이탈 주민과 대화를 나눠 본 남한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을 가리켜 직설적인 발화를 많이 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남한 사람은 말을 지나치게 돌려 말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응한다. 북한의 정서 자체가 선전 선동이 깊이 묻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화는 직설적일 수밖에 없다. 즉, 직접 화행이 발달하였다. 반면 남한의 경우 인구 이동이 잦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인 발화가 발달하였다. 즉, 간접 화행이 발달하였다. 예를 들어 남

한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언제 밥 한번 먹어요.’라는 식의 인사말을 자주 한다. 이는 식사 약속을 하겠다는 말이 기보다는 지나가는 친근감의 표시이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언제 밥 한번 먹어요.’라는 남한 사람의 말을 식사 약속과 같은 직접적인 말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계속 기다렸지만 상대방의 연락이 없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뿐만 아니라 직업을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후 ‘연락드릴게요.’라는 사장의 말을 듣고 ‘연락’을 기다리다 한 달 늦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남한의 간접 화행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화로 입국 초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반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대화가 너무 직설적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머리 모양을 바꾼 한 여대생이 북한 이탈 대학생인 A에게 ‘나 머리 어때?’라고 물었을 때 남한 사람은 ‘괜찮아’, 혹은 ‘예뻐’, ‘잘 어울린다’ 등의 긍정적인 발화를 많이 하는 반면, 북한 이탈 주민은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표현한다.³⁾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발화를 들은 남한 사람은 종종 오해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날 기회가 적은 남한 사람의 경우는 간혹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은 분명하고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⁴⁾하는 반면 남한은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나 공격적이

3) 또 다른 사례로, 북한 이탈 주민 H씨는 남한에 와서 대학교을 다닐 때 남한 친구가 치마를 오래간만에 입고 왔는데, “너 다리 굵다.”라고 말하여 남한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본인은 사실을 말한 것인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4) 남한 사람 중에도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술한 것이다.

라고 느낀다. 즉 남한 사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북한식 감정 표현 방식은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는 반면 북한 사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남한식 의사소통 방식은 불분명하고 가식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의 분명하고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상호 비판 문화가 강한 북한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의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요청 표현이나 거절 표현에서 간접 화행을 주로 사용하는 남한 사람들에게 거칠다고 인식 되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은 상호 칭찬보다는 비판에 익숙하다고 한다. 조용관(2004)에 따르면 북한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 때부터 자아비판이나 상호 비판 및 생활 총화 등을 통해 남을 칭찬, 격려하기보다는 비방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 조용관(2004)은 북한 이탈 주민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바로 상대방을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 이탈 주민끼리 상호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 결과 외모나 소지품, 사소한 일이나 도움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경향이 있는 남한 사람을 대하면 북한 이탈 주민은 부담스럽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한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은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용관(2004)은 북한 이탈 주민은 공개적인 상황에서 비난을 받으면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것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것도 북한 체제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은 특히 직장 생활 등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사람 사이에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3. 언어 어감도에 따른 차이

언어 어감도의 문제도 인간관계 단절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예 32)는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북한 이탈 주민인 A와 B의 대화 내용⁵⁾이다.

(예 32)

B: 제 머리 어때요?

A: 예구! 니 머리 새쓰개 같다. 왜 돈 주고 머리 그 모양으로 만들었니…….

B: 진짜요? 하긴 저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머리가 요즘 한국에서는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다른 상황에서 북한 이탈 주민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 남한 남성이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이 말을 함부로 한다면서 화를 냈던 부분이다.

(예 33) ○○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어떻게 남편인 날 보고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어?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남편한테 정신병자라니, 그렇게 말하고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웃고 있더라. 정말 황당했어. (북한 이탈 주민 여성과 결혼한 남편의 말 중에서).

(예 32)에서 ‘새쓰개’는 ‘정신병자’와 같은 말이다. (예 32)에서 ‘새쓰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같은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이다. 직설적인 발화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발화자들이고, 이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질 집단 내에서

5) 이화여대 석사과정 대학원생 이경화가 수업 시간에 발표한 사례이다.

‘새쓰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경우이다. ‘정신병자’라는 표현도 이 표현을 흔히 사용하는 함경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예 33)은 같은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이 ‘정신병자’를 남한 남편에게 사용함으로써 남편이 크게 노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동일한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이 (예 32)와 (예 33)을 같은 상황이라고 인지하는 반면, 남한 남편은 (예 33)에서처럼 ‘정신병자’라는 말에 대한 어감도 차이로 이 표현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곤란한 어휘로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남한 사람이 북한 이탈 주민의 발화에서 ‘정신병자’라는 어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감정은 상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북한 이탈 주민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 없다, 일 없습니다.’의 경우 남한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습니다.’와 같은 어휘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일 없다’를 언급할 경우 남한 사람은 그 발화에 대한 어감도가 부정에서 긍정에 가깝게 변화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할지 모르지만 부정적 어감은 희석되고 있다고 반응할 것이다.

‘소행’이라는 어휘 역시 어감도가 다르다. 북한에서는 ‘소행’을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둘 다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더 많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올바른 소행’, ‘착한 소행이다’, ‘소행상을 타다’ 등의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이게 누구 소행이지?”라고 하면 착한 일을 하고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 이탈 주민 여성과 남한의 남성이 혼인한 경우 남한의 남성이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말을 막 한다.’ 혹은 ‘말을 너무 심

하게 한다.’ 등의 반응을 많이 보인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 사이에서는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정작 그 발화가 ‘심한 말, 혹은 막말’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혁명과 주체사상을 강조하여 투쟁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남한은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다. 북한의 경우는 적군을 지칭할 때 ‘원수’, ‘놈’이라는 표현만 쓰는 것에 비해 남한은 ‘적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원수’, ‘놈’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 또한 남한에서는 생선이나 동물들의 두(頭)를 가리켜 ‘머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북한에서는 무조건 ‘대가리’로 표현한다. 그 뿐만 아니라 ‘모가지’, ‘대갈통’, ‘병신’, ‘늪으대기’ 등의 어휘를 북한에서는 자주 사용⁶⁾하지만, 남한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 이탈 주민의 발화에서 이러한 어휘들이 섞여 나오고 청자가 남한 사람이라면, 이 어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대화는 단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사람의 언어 어감도에 따른 문제는 어휘 차이에서 오는 문제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남한에서는 저속한 말로 취급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북한 이탈 주민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들은 남한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북한 이탈 주민은 그 결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기도 한다.

6) 북한에서는 일상 사회생활 과정에 주고받는 말에도 경멸, 증오적인 표현들을 골라 써서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들을 미워하고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노동 계급적 입장을 튼튼히 지키며 견결한 투쟁 정신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북한에서는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말에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는 경멸, 증오, 야유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골라 써야 한다고 하였다(강보선, 2014).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조선말례절법》에 소개되고 있다(김동수, 1983:193~200).

4. 국어 교육의 방향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언어 차이는 이들을 자신의 정체성까지 숨기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의 표준어와 일상 언어들에 익숙해 남한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이 점은 많은 연구자가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을 생각한다면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의 언어를 교육 받는 만큼은 아니지만 남한 사람도 북한의 언어에 접하고 이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동화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상호 언어문화 이해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북한 이탈 주민의 교육 지원은 탈북민의 언어 교정 차원 및 학습 지원 차원의 교재 개발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것도 당장 필요한 지원이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 치유, 평생 교육, 남북통일 대비 차원, 통일 이후 정책 차원에서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호 언어문화 이해 차원에서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어를 이해시키는 일과 북한 이탈 주민에게 남한어를 이해시키는 일 두 가지를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에게 표준어를 교육하는 것은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 말을 버려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회 생활을 할 때 표준어를 말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어 교육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남한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

다. 소수자의 원어 권리 차원에서 볼 때 북한어를 사용하는 북한 이탈 주민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즘 학계나 일상생활에서도 방언에 대한 위상이 달라졌다.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느끼고, 이로 인해 보다 친밀감을 갖는 기능이 있으며, 고유어가 방언에 살아 있어서 방언을 문화유산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북한어 역시 소중한 언어 자원으로 봐야 한다.

둘째, 북한 이탈 주민이 사용하는 북한어 표현을 남한 사람들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한 이탈 주민의 발음과 억양에 남한 사람이 익숙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수용하려는 태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발음과 억양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발음과 억양 뿐만 아니라 북한에만 특수하게 있는 언어 표현도 수용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는 화행 표현을 기술한 자료나 문화 차이를 기술한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그동안에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책자형 교재가 개발되었다. 동영상, 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일상생활 어휘뿐 아니라 전문 어휘, 직장 생활 어휘, 학교생활 어휘, 학습 어휘를 비롯하여 현행 교과서 보충 교재 및 통일 대비 교과서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보선(2013), 북한 이탈 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국어 교육학연구》 47, 국어교육학회.
- 강보선(2014), 남북 의사소통을 위한 높임법의 차이 비교, 《화법연구》 26, 한국 화법학회.
- 권순희 외(2012), 《새터민 구어학습용 교육 자료 개발》, 국립국어원.
- 권순희·양수경(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한국어교육 연구》 28, 국어교육학회.
- 김동수(1983), 《조선말례절법》,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김승룡 외(2009), 《국어 소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 신명선 외(2012),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국립국어원.
- 전장길 외(2004), 《국어 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 조용관(2004),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 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겨레의 말을 이으면서 나아가는 통일의 걸음 - 조재수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상임이사를 만나다



답변자: 조재수(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상임이사)

질문자: 권창섭(아주대학교 강사)

때: 2014. 10. 28.

곳: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회의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세상에서 언어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분단된 지 60여 년, 남과 북의 언어는 얼마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해 왔을까? 단뿔던 남과 북의 말길을 잇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바로 이 지점의 고민에서 출발한 남과 북의 협력 사업이다. 《겨레말큰사전》은 남과 북을 넘어 우리 겨레말의 어휘를 모아 그동안 남북 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통일 시대를 지향하는 사전, 남과 북이 함께 엮는 최초의 우리말 사전이 될 것이다.

남북 관계의 악화로 한동안 물꼬가 막혀 있던 이 사업의 흐름이 올해 여름 4년 7개월 만에 남북이 다시 만남으로써 트이게 되었다. 2019년에 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조재수 상임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권창섭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남북 관계의 악화로 중단되었던 《겨레말큰사전》 편찬 회의가 올해 여름 중국 선양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새국어생활》에서는 현재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대담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가 처음 구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겨레말큰사전》 소개와 편찬 계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조재수 분단 6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하여 2005년 2월 20일 금강산에서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일은 1989년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주석을 만나 ‘통일국어대사전’을 남북 공동으로 편찬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김 주석이 동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사정으로 그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2004년 1월 문익환 목사 10주기 추모 행사에 북에서 대표단이 왔을 때, 박용길 장로(문익환 목사의 부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내는 친서에서 그동안 지나쳐 온 ‘통일국어대사전’의 편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북측에서 사업 승인이 나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004년 4월 중국 연길에서 남측의 ‘사단법인 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통일 토론회를 가지면서 사전 편찬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이때 사전 이름을 《겨레말큰사전》이라 하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남측의 실무자로 소설가 정도상 씨가 참석했습니다.

2004년 12월 11에는 남측 편찬사업회가 구성됩니다. 남북 공동편찬

[사진 1]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2005년 2월)



사업회 상임위원장에 고은 시인, 남측 공동위원장에 홍윤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리고 편찬위원으로 9명이 위촉되었습니다. 북측 공동위원장은 문영호 조선언어학회 위원장이, 그리고 남측과 마찬가지로 편찬위원 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남측 위원 11명과 북측 위원 10명으로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회’가 발족된 것입니다.

남과 북의 편찬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남측은 주로 여러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이었는데 그 중 교수 요원이 아닌 사람으로 본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사전 편찬 전통을 생각하여 한글학회 출신으로 한 사람을 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글학회의 《큰사전》 보유·편찬에 20여 년 종사하여 1992년 《우리말 큰사전》을 마무리한 일이 있습니다.

북측 편찬위원들은 대부분 사회과학원 소속인 전문 연구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편찬위원 명단에는 사회과학원 소속이 아닌 조선언어학회 회장 및 회원 등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찬사업회를 남측의 ‘사단법인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주도하여 발족함으로써 양측의 국립 연구 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의 주도라는 점에서 그 신분을 사회과학원 소속으로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창섭 네. 그렇군요.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사업회’가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남측과 북측의 편찬사업회가 구성된 뒤, 본격적으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을 텐데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과정과 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조재수 2005년 7월에 남북 편찬위원들은 평양에서 ‘공동편찬요강’을 합의하여 발표했고, 8월 15일에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이 편찬 사업을 우리 겨레에게 널리 알리는 보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해 10월 11일에는 남측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2006년 1월, 사단법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출범하고, 2007년 4월에 특수법인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회의 사무처와 사전 편찬실을 꾸려 직원 약 30명을 선발하였지요. 북측은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에서 그만한 인원을 동원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올림말 30만 개를 선정하여 사전 원고 집필을 끝내기로 하고, 해마다 분기별로 네 차례 남북 공동 편찬 회의를 금강산, 개성, 베이징, 선양, 평양 등지에서 가졌습니다.

권창섭 본격적인 집필에 앞서 올림말을 선정하는 방법이나 표기 방법 등에 대한 논의들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조재수 네. 우선 기초 작업으로 사전 집필 요강 작성, 남북 사전들에 대한 비교 검토, 올림말 선정, 기존 사전에서 거두지 못한 겨레말 어휘 자료 모으기 등을 단행했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우리는 노트북을 비롯한 장비와 참고 자료를 싣고 가서 일주일 이상을, 1년이면 한 달을 남북 편찬위원들이 함께 일하다 돌아오는 셈이지요.

사전 편찬은 큰 건물을 짓는 일과도 같습니다. 면밀한 설계에 따라 한 현장에서 자재와 품을 들여 건물을 짓듯이, 사전 편찬도 일정한 원칙과 요강에 따라 한자리에서 한결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아직 공동의 일터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권창섭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을 텐데요.

조재수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 교류가 닫히면서 남북 편찬 회의도 2009년 12월 20차 회의와 네 차례의 집필회의를 가진 뒤로 멈춰야만 했습니다. 2013년까지 사전 원고 집필을 끝내기로 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래도 남측 편찬실은 원고 집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가 2014년 4월까지였던 이 사업회의 존속 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도록 결의해 주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7월 말에는 닫혔던 남북 공동 편찬회의(21차)를 중국 선양에서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4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다시, 남과 북의 모든 분야의 교류가 원만해지기를 바라며, 그중에도 문화와 학술 교류만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권창섭 오는 10월 30일부터 평양에서 제22차 공동 편찬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조재수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주로 논의할 주요 내용의 한 가지는 전체 올림말을 재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사진 2] 제22차 공동 편찬 회의 모습(2014년 11월)²⁾



기존 어휘 20만, 새 어휘 10만으로 30만 어휘를 목표로 하였으나 편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휘가 붙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측에서 재조정 한 7만여 개의 올림말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올림말의 수를 늘리면 집필에 드는 품과 기간이 늘어나게 마련이니, 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을 추가하되, 토박이말은 늘리고 많은 한자어와 전문 용어 등에서 줄여도 좋을 대상을 가려보는 것이 한 방법일 듯 싶습니다.

집필 회의의 주요 일거리는 각 측에서 집필한 원고 8,000개의 교환과 지난 회의에서 교환한 각 측의 집필 원고 8,000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함께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새 어휘조는 별도로 집필 원고를 교환하고 각 측이 검토해 온 원고를 논의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2) 이 대담은 제22차 공동편찬회의가 있기 전에 진행되었으나, 추후에 겨례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사진을 제공해 준 것이다.

권창섭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는 의의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편찬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도 궁금합니다.

조재수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2005. 7. 10. 평양)에서 밝힌 이 사전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겨레말을 조사, 발굴하여 새롭게 엮는 통일 지향적인 30만 어휘의 현대 국어사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릴 말의 자료 곧 전체 표제어는 “20세기부터 써 온 현대 국어 어휘로, 남북의 기존 사전에 실린 일반어와 전문 용어, 그리고 새로 조사해 발굴한 지역어·민속 어휘·산업 현장 어휘·문예 작품 어휘 등에서 선별한 어휘라 할 수 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분단 60여 년의 두 지역 언어를 챙기는 일이며, 또 두 지역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통일 시대의 새 언어 질서를 위한 제2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기반과, 서울 중심의 표준어와 평양 중심의 문화어를 넘어 통일 시대의 우리 언어 공간에 알맞은 폭넓은 공통어 마련을 위한 기반을 닦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어를 중국, 중앙아시아 등지의 국외 동포 사회의 모국어 어휘까지 포함시켜 우리 언어 공간을 나라 안에서 국외로 넓혔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은 국어사전 100년을 잇는 새로운 편찬으로 가장 많은 새 어휘를 발굴하고 인용례를 담은 사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지난 100년의 우리 근현대 문예 작품을 섭렵하여 3억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하고, 20여 만의 새 어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을 통해 남과 북에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기르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사전 편찬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한 전문 분야이지요. 사전 편찬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사람의 전문화’와 ‘편찬 업무의 전문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사전 편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존 사전의 내용을 깊고 더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내용은 바로잡고, 모자라는 내용은 더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전에서는 그 수량이 많다 하여 ‘-하다/-되다/-스럽다’, ‘-이/-히/-스레’ 등과 피동사·사동사 파생어들을 기본 표제어로 올리지 않거나 옹근 뜻풀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전에는 이를 해당 뜻풀이와 용례를 자세히 주기로 하였습니다.

권창섭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여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조재수 상임이사님과 대담을 마치겠습니다.³⁾

3)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사업회의 누리판의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http://www.gyoremal.or.kr>

눅다² [눅따] [눅어, 눅으니, 눅네[눔네]] ㉸

=싸다³①. ㉷ 값이 **눅다** / **눅게** 사다 | 소금은 국가의 전매품인데 조선에서 들어오는 소금은 한 말에 소불하 20전이나 **눅으니** 자연히 밀수가 있게 마련이다. 《김창걸: 어머니의 반생》/ 열 명 중 일곱 여덟 명은 으레 값 **눅고** 잘 고쳐 주는 국영이나 양화 수리 협동조합으로만 갔다. 《김승관: 그가 갈 길》/ 재식이 처는 마른 조갯살이며 파래 김, 복쟁이 포따위를 **눅은** 값에 수월하게 받았더라고 했다. 《이문구: 해벽》 반대 비싸다.

🔍 <물건의 값이 일정한 기준보다 낮다>를 뜻하는 말로서 흔히 북에서는 <눅다²>를, 남에서는 <싸다³①>를 쓴다.

소행¹ (所行) [소: 행] ㉸

이미 벌어지거나 저질러진 행위. | 그것을 처음 알았을 때는 가장의 승낙도 없이 움직이려는 아내의 **소행**에 우선 화부터 치밀었다. 《이동화: 강남땅》/ 그들은 그 아름다운 **소행마저도** 감쪽같이 감추고 있지 않았던가! 《김재규: 날개》/ 봉국이는 … 어련무던한 형을 꼬드겨 술판으로 끌고 다니는 달수의 **소행도** 은근히 괘씸하였다. 《김호웅: 어머니의 소원》 같은말 소위⁵(所爲)②.

🔍 남에서는 <소행>을 대체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지만 북에서는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쓴다.

일없다 [이: 럽따] [일없어[이: 럽써], 일없으니[이: 럽쓰니], 일없는[이: 럽느] ㉸

①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 | 월급도 **일없고** 다만 일만 가르쳐 주면 그만이니 어린이 하 나를 써달라고 졸라대었다.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이놈아, 너 같은 놈은 **일없다**. 가거라! 《최서해: 큰물 진 뒤》

② =괜찮다②. | 칼로 에이는 듯한 동통은 다리로 뻗었지만 좀 지나면 **일없으려니** 여겨 됐는데… 《천화: 딸의 뜨거운 마음》/ 아버지, 정말 제가 없어도 **일없겠어요?** 《방하일: 교수의 시간표》/ 약 한 첩이면 **일없을** 아이가 연이틀이나 설사를 하고 탈진 상태에 떨어진 것이었다. 《이문열: 영웅시대》 [일+없+-다]

🔍 상대의 염려에 답하거나 상대의 호의를 거절하는 등 대체로 남에서 <괜찮다>를 쓸 상황에서 북이나 중국에서는 <일없다>를 쓴다.

※ 이 원고는 《겨레말큰사전》 집필 원고의 사례로 최종 원고가 아니며, 남북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짓달>과 우리말의 위엄

임규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문학평론가

1

우리말을 생각하니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모국어, ‘독일어’를 두고 한 말이 떠오른다. “단 한마디라도 존재하는 모국어를 삭제하는 것은 한 명의 동족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범죄이다.” 훔볼트의 유명한 언명대로, 언어는 명백히 인간만이 소유하는 이성의 기관(Organ)으로, 인간의 모든 사유 세계를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적 행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 자체가 언어를 통해 실현되므로 ‘언어는 곧 인간’이다.

그런 언어와 관련하여 최고의 헌사는 아마도 시인이나 작가에게 가장 많이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해당 민족이나 국가가 가장 자랑하는 문학 작품이야말로 그 나라의 최고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언어의 맛과 깊이, 특성이야말로 한 나라 언어의 위엄과 개성을 드러내 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말을 대표할 ‘불후의 명작’으로 우리는 어떤 작품을 내세울 수 있을까. 흔히들 하나의 작품이 ‘불후의 명작’으로 추앙받기 위해서는 탁월한 미적 상상력과 언어적 형상화를 통해 정신적 위대함이

작품에 담겨 있어야 하며, 또 그러한 예술적 사유와 감동의 도수를 가능하고 흡입할 수 있는 폭넓은 독자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쯤이면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작품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찬사를 쏟아 놓은 바 있다. 가령 “진이는 여기서 시간을 공간화하고 다시 그 공간을 시간으로 환원시킨다. 구상과 추상이, 유한과 무한이 일원화되어 있다. 정서의 애뜻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수법이야말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54수 중에도 이에 따를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칭송한 피천득, 또는 “우리가 물려받은 몇 천 수 시조를 몽땅 내어놓고 바꾸자 해도 바꿀 수 없는 시조”라고 극찬했던 이병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나는 가람보다 한술 더 떠서 이 시는 세계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최원식의 찬사만으로도 이 작품의 경지를 충분히 짐작할 터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동짓달>에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위엄, 문학적 성취를 충분히 만족할 만큼 공유하는 것일까. 사실 문학, 특히 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외형적으로 먼저 비일상적인, 비산문적인 어떤 특이성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껍질을 벗기고 나서는 태연하게 일상적, 산문적으로 독해하는 이율배반성이다. 사람들은 먼저 시어 자체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수사학적 특성에 주목한다. 비유의 사용이나 언어적 특징, 짜임새들이 특정한 내용을 문학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시다움’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게 된다. 언어가 갖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계나 진실성의 탐사보다 언어로 표출하는 외형적 틀·형식에 우선권을 준다.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도 대체로 그러했다. ‘밤의 허리’, ‘춘풍 이불’ 등의 기발한 비유와, 시간을 공간으로, 관념을 물질로 치환하는 놀라운 상상력, ‘서리서리와 굽이굽이’ 등의 맛깔스러운 어휘를 활용한 대조 기

법 등을 하나같이 앞세운다. 그리고 나서 일정한 산문으로, 자기만의 일면적 이야기로 시를 풀이해 나간다. 가령 이런 식이다. 애인과 떨어져 있는 황진이에게 밤은 한없이 길다. 더구나 그 밤은 한 해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동짓달의 밤이다. 그러나 그 밤은 애인과 함께라면 너무나 빨리 새 버릴 밤이다. 이렇게 지겹도록 넘쳐 나는 밤의 시간이 막상 애인이 오고 나면 그때는 그 반대로 너무나 모자랄 것이다. 그녀는 그 밤을 저축해 놓고 싶다. 애인 곁에 있게 됐을 때 모자라게 될 밤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모자란 밤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녀는 밤을 한 토막 잘라 내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 놓기로 한다. 애인이 온 날 밤에 굵이 굵이 펴기 위해. 왜냐하면 그날 밤이 너무 짧을 것이 분명하므로.

시 역시 읽기 위해 존재한다. 읽는다는 것은 이해를 뜻하고, 또 이해한다는 것은 해석을 뜻한다. 제아무리 난해하고 의미를 거부하는 시라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되고, 이해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해와 해석이 산문과 다르다는 데 시적 특성이 있다. 예술에서 관념은 물질화되며, 물질 자체가 의미처럼 다루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그런 만큼 시는 산문적 의미보다는 시적 심상(images)이며, 시적 심상은 사유도 아니고 사물도 아닌 의식과 대상 사이의, 세계와 그것의 개념화 이전의 최초 표상 사이의 가장 원초적 그물망을 형성한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시는 단순히 무엇을 의미하거나 표현하거나 표상하기를 멈춘다.

문학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특정한 언어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시켜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 힘든 사물, 사건, 사실을 상상을 통해 사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와 인간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넓혀 주어서이다. 이 말은 곧 작품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 즉 살아 있는 예술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단편적 성분을 예술성이란 이름으로 꼬집어내어 적당히 처분해서

는 안 된다. 우리가 ‘문학 언어’라고 할 때는 단편적 조각으로서 언어가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조직된 하나의 유기체로서 전체 작품이다. 따라서 작품 내의 언어들은 해당 언어가 유기체로서 작품 전체에 어떤 활동을 하며, 대체할 수 없는 필연성의 고리로 언어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그리하여 어떤 세계를 창조하느냐에 있다.

2

동짓달(冬至스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얼은 님 오신 날 밤이여드란 구뿔구뿔 꺾리라

어휘 수준에서 보자면 <동짓달>에 아주 독특한 혹은 아주 새로운 말은 없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아주 기발하다고 하는 걸까? 니체의 말대로 진짜 독창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있으나 아직 알아차리지 못해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그것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 ‘동짓달’, ‘밤’, ‘허리’, ‘춘풍’, ‘이불’ 등 그 자체는 너무도 흔하다고 여겨지는 말들이다. 겨울밤이 가장 길고 봄바람이 따스하다는 것도 누구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런 뻔한 말과 생각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형상화로 창조했으니 그런 마음의 눈, 창조의 힘이 야말로 언어의 참 본질에 부합한다.

사실 언어적 차원에서 시를 이해하는 일은 작품 속 언어와 언어적 연계, 비유 등이 만들어 내는 중층적·다의적 의미와 이야기, 그런 집중과 확산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작품 세계의 넓이와 깊이를 다시금 개별

언어들이 끌어안음으로써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시적 운동, 언어의 활동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최종 정리된 형식의 분석에서는 ‘완결된 의미, 의미의 고정’으로서 언어가 아니라 ‘활동하는 존재, 존재의 활동’으로서 언어를 얼마만큼 잘 운용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동짓달’ 혹은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사실상 특별한 설명 없이도 특정한 정서를 일으킨다. 밤이 가장 길고 가장 추운 때, 혼자의 외로움이 계절과 때에 맞물려 상승한다. 그런데 돌연 ‘한 허리를 버혀내어’로 시는 비약한다. 가장 강력한 시적 사건이자 상상의 열림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 전체의 ‘목적어’로 시를 이끈다.

그렇게 보면 ‘동짓달’이란 말도 여러 겹이다. ‘동지’가 있는 음력 11월, 가장 밤이 길 때라는 일반적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당장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 대한 해석부터 단순치 않다. 특정한 ‘하루’가 아닌 ‘달’이라면 이 ‘밤’은 복수의 ‘밤’이다. 낮이 짧다는 사실 자체까지 지워 버린 ‘밤의 세계’로 ‘동짓달’은 당긴다. 그러한 밤이 지속되는데 돌연 ‘한 허리’를 베어 낸다. 그렇다면 화자는 동짓달 긴 밤을 통과한 연후에 그가 살아온 밤들의 ‘한 허리’를 베었다. ‘한 허리’는 동짓달 한가운데 밤의 밤. 비유의 자장(磁場)은 갈수록 가운데로, 가운데로 모아지고 응축된다. 동짓달 동짓날의 자시(子時). 그런데 이런 시간만의 흐름을 허용치 않는다. ‘시간’이 ‘허리’로 물질화, 육체화하면서 정신적인 것이 덩달아 일어선다. ‘기나긴 밤’이 ‘잠을 못 이루는 밤’, 아니 ‘어둠 속에서 환하게 깨어나는 밤’으로, 그리하여 외로움이 그리움으로 성숙하는, 육신과 마음이 하나 되는 뜨거운 합류가 거기 있다.

여기서 통상 ‘버혀내어(베어 내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 대신 ‘둘헤내어(둘로 끊어 내어 혹은 나누어)’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가령 최원식은 “일반적으로는 ‘둘헤내어’(둘로 끊어 내어) 대신 ‘버혀내어’인데,

후자의 살기(殺氣)는 사무침 속에서도 따뜻하기 그지없는 이 시의 전체적인 기품과 씩 어울리지 않아, 나는 전자를 옹호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맥락상 ‘한 허리’와 어울리는 것은 ‘버혀내여’이다. 또 황진이이 작품 전체가 보여 주는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고, 섬세하면서도 활달한 면모를 생각하면 ‘버혀내여’가 훨씬 강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한 길 사람 속의 심중(心中) 심연(深淵)을 날카로운 단애처럼 당당하게 보여 주겠다는 장부의 이미지가 서늘하다. 이육사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보다.”(〈절정〉)를 연상케 하는 말이다.

흔히 〈동짓달〉을 단면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것이 밤의 한 반쯤을 떼어 내어 이불 아래 넣었다는 말 그대로 산문적 풀이이다. 거기에는 ‘겨울 긴 밤’의 한 자락을 ‘짧은 봄 밤’에 이어 붙이겠다는 산술적 풀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한 허리’의 육체성, 그리고 거기에 깃든 정신성을 생생하게 포착하지 못한 표피적, 기계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동짓달 가장 긴 밤의 한가운데를 시인 자신의 깊은 마음으로 치환하는 놀라운 언어적 마술. 최원식의 말대로 “이 시조를 나직이 읊조리다 보면, 저절로 ‘과연!’이란 탄식이 터져 나오게 마련이다. 얼마나 골똥했기에, 시인은 동짓달의 그 차고 긴 밤의 허리를 볼 수 있었을까?”를 함께하는 일이다.

그럴 때 중장의 ‘춘풍 이불 아래’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시간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데 묶는 절묘한 감각적 심상의 세계가 눈부시다. 단순히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 ‘겨울冬’을 ‘봄[春]’으로 만든, 나아가 사물화된 ‘밤’을 생명의 동력인 ‘바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기 자신의 성숙이 여기 안받침하고 있다. 이불 아래 넣는 것이 나와 거리가 있는 또 다른 객관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생명의 시간과 그리움의 마음이라는 주체적 표상의 생성이야말로 작품의 진정

한 가치가 아닐까. 그리고 이 지점에서 ‘동짓달’은 더 큰 세계로 이끈다. <농가월령가>에서 노래한 ‘일양시생지(一陽始生地)’로서 동짓달이다. 『주역』에서 말한 복괘(復卦)로, 태양의 죽음과 부활로 상징화되는 전환점이다.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해 양의 기운이 싹트는 반전(反轉)이다. 온 누리에 짝 들어찬 음의 기운이 줄어들고 이제 사랑과 꿈의 불씨를 지피는 양의 기운을, 시인은 제 마음이 키워 온 사랑의 바람으로 일구는 우주적 시이기까지 하다.

<동짓달>이 비유와 대조, 연결의 수사법을 탁월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수사법이 아니라 질적인 운동의 자연스러운 전개와 만나는 내용의 형식화, 형식의 내용화이다. 가령 ‘동짓달 지나긴 밤’은 종장의 ‘얼은 님 오신 날 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 사이 중장의 ‘춘풍이 길을 연다. 그것으로 초장과 종장의 ‘밤’이 달라지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 실제로 초장은 중장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중장은 종장과 긴밀히 이어지는데, 다시 되돌아가면 초장과 종장 사이는 질적 비약과 고양으로 한껏 확장된다. 중장의 ‘서리서리’는 종장의 ‘구뵈구뵈’와 절묘하게 짝을 이뤄, 홀로 안으로, 안으로 압축하고 응축시킨 것을 드디어 사랑하는 님과 함께 팽창, 폭발시키려는 삶의 환희로 출렁인다. 좁은 방안, 한 길 사람 속에서 웅장한 자연, 큰 세상을 향한 대서사시다. ‘서리서리’는 고종석의 말대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사랑 부사어’이다. 언어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사전 속의 분할되고 단편화된 해석 모두를 함께 끌어안고 움직인다.

1.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헝클어지지 아니하도록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

비녀는 또다시 땡그랑 소리를 내어 떨어지고 머리 쪽은 서리서리
풀어진다. 출처: 박종화, <다정불심>

2. 뱀 따위가 몸을 따리처럼 둥그렇게 감고 있는 모양.

뱀이 몸을 서리서리 감고 있다.

3. 감정 따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양.

가슴속에 서리서리 얽힌 한

그 순간 그녀는 마음에 서리서리 슬픔이 뒤엉켰다.

목 타는 그리움과 슬픔과 분노가 서리서리 맺혀 있는 그 땅을 쉽

게 떠날 그가 아니었으나... 출처: 김성동, <풍적>

- 《표준대국어사전》(국립국어원)

오히려 온전한 내용의 합일까지 <둥짓달>은 이룩한다. ‘감정 따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정적 모양을, 원래의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형클어지지 아니하도록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빈틈없이 꽉 찬 마음의 모양으로 멋지게 바꾸어 놓는다. 이런 ‘서리서리’의 감흥을 온전히 안고 마지막 종장으로 갈 때 ‘구뵤구뵤’의 실감도 그만큼 커진다.

종장의 ‘얼은 님’의 표기 역시 한 번쯤 곱씹어 볼 말이다. 이 말은 ‘어른’, ‘어른’, ‘정든’ 등 여러 형태로 표기하는데, ‘얼우다’란 옛말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얼은 님’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은 잘 알려진 대로 <서동요>에도 있는 말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섹스하다’, ‘성교하다’, ‘씹하다’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결 아름답고 멋스럽다. 더구나 ‘어르다’, ‘어루만지다’, <춘향전>의 ‘업음질’ 등 유사 연관어를 떠올리면 더 정겹다. 물론 요즘 쓰는 ‘어른’의 어원에 해당하는 말이므로 이미 고어(古語)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른’으로 충족되지 않는, 한자 ‘정인(情人)’을 연상케 하는 순우리말로써 절묘하다. 입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진솔하게 나타낸 대표적 고려가요 <만전춘별사>를 보자.

얼음 위에 맺었자리 보아 입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었자리 보아 입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情) 준 오늘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얼음’, ‘얼우다’, ‘정 주다’, ‘얼다’ 등 말의 활용이 절묘하다. ‘얼다’는 말에는 ‘물이 얼다’는 뜻 이외에도 ‘남녀가 얼다’, 곧 ‘남녀가 사랑하다’는 뜻이 있다. 따라서 뒷부분에 나오는 ‘얼어 죽을망정’은 추워서 죽는다는 뜻도 되고, 사랑하다 죽는다는 뜻도 된다.

이 맥락에서 황진이 <동짓달>의 ‘얼은 남’도 ‘물이 얼다’의 뜻까지 살려 차디찬 바깥세상에서 고생하는 낭군을 은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작품이 끌어안고 있는 시간을 한겨울만으로 한정해도 좋다. ‘춥고 외로운 겨울’에 ‘뜨거운 사랑’으로 이겨 나가는 사랑의 시, 하나의 상상적 현실, 또는 선취(先取)된 현실로서 님과의 황홀한 합일로 읽을 수 있다. 말하자면 깊은 사랑을 육체와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과 육체 모두가 행복해지고 황홀해지는 이런 사랑의 시를 어디서 보겠는가. 이렇게 보면 황진이의 <동짓달>은 춥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깊어지면서 깊어진 만큼 생생하게 살아나는 삶의 방법, 사랑하고 사랑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인생의 시이기도 하다.

뛰어난 작품은 앞선 작품들을 끌어안고 넘어서며 더 우람한 산맥을 형성하는 법, <만전춘별사> 외에도 <동동>, <이상곡>, <육자배기> 등을 떠올리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동지 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라는 <밀양 아리랑>의 앞뒤 안 맞는 요구도 황진이의 <동짓달>을 연상하면 자연스레 가능한 세계이다. 사랑의 황홀경, 존재의 충만감을 위엄 있게 그려 낸 ‘불후의 명작’ <동짓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분을 그리며

내 기억 속 안병희 선생님

서정목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선생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 왔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공부에 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제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께 또 다른 성격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관악의 학과장이신 선생님을 조교로서, 그리고 초대 국립국어연구원장이신 선생님을 어문실태연구부장으로 모시면서 입은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는 사람 삶의 기본에 관한 엄격함, 대쪽 같은 올곧은 일 처리, 불같이 노하셨다가도 뒤끝 없이 깨끗하게 화를 삭이시는 인품, 후배나 제자들의 어려운 일을 이해하고 도와주시던 자애로움 등으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어떤 경외의 경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경지를 본받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온 것이 지난 40여 년의 제 공적 생활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만,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지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1991년 그동안 임의 단체로 있던 국어연구소를 국립국어연구원으로 국가 기관화하였습니다. 국어연구소장이셨던 안병희 선생님은 당시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선생님과 함께 이 국가 기관 출

범의 산파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때 막 수교가 이루어져 본 모습을 드러낸 구소련, 그리고 중국, 북한 등 동포들의 우리 말 사용 실태를 조감하면서 언어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임흥빈 선생님이 어문규범연구부장을 맡으시고, 저는 어문실태연구부장으로 일하였습니다.

1992년 여름 방학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국 동포의 우리말 사용과 한글 학교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를 위하여 출장을 다녀오시는 중이었습니다. 임 선생님과 저는 함께 김포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뵙는 순간 이상하게도 2주일 정도 사이에 갑자기 많이 변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요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가족과 댁으로 향하신 후에 임 선생님은 저를 보고 “아! 큰 일났다. 선생님이 편찮으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느낌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고 며칠 후 아무 일 없는 듯이 출근하셔서 집무하셨습니다.

그해 말 임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셨고, 저는 2년 더 일을 한 후 1994년 10월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빨리 학교에 복귀하셔야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후임 원장 선임과 잔여 업무 정리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임 선생님과 저는 마음속에 돌덩어리 같은 것이 짓누르고 있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각각 국어연구원 근무를 마감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병환을 저희들은 일찍 눈치채었지만,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마도 아셨겠지만, 선생님은 밖으로는 알리지 않으시고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제가 서강대학교에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서강대에 출강하고 계셨습니다. 관악의 여러 중책들이 무거워질 무렵부터 서강대 출강을 그치시고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던 과목들을 제가 맡아야 했습니

다. 선생님께서 정년을 맞이하시고 어느 학교 대학원 과목을 맡으셨다고 하시기에 저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중세 국어 문법 강의를 의뢰하였습니다. 각각 서너 명씩이었던 수강생을 서강의 강의실에 모아 가르치시던, 선생님의 강의를 볼 수 있었던 마지막 학기, 가끔 강의 끝날 시간에 배웅 가서 맡게 되었던 그 진한 약 냄새는 아직도 코에 남은 듯하고, 그 냄새에서 받았던 가슴 저림과 애끊는 듯한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 학기 후에 저희는 입원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문실태연구부는 국어 순화라는 이름의 각종 생활 언어 다듬기, 해외 동포 한국어 보급, 북한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기간 임흥빈(1대), 박양규(2대) 선생님이 맡으셨던 어문규범연구부는 어문 규범 재정비와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때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언어 예절, 해외 동포 한국어 사용 실태 연구,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준비 등의 일을 익힌 것이 그 후 제 연구 활동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갓 출범한 국어연구원에서 가장 역점을 기울인 일은 ‘화법(언어 예절) 표준화’였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이 협의하여 추진한 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의 표준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말 배우기부터 쓰는 말인 가족, 친·인척 간의 호칭어, 지칭어, 경조사 때의 인사말, 가정이나 사회, 각종 기관 내의 경어법 등에 대하여 기준이 될 만한 표준어형을 정하였습니다.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혹시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여론 주도층을 형성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가족끼리의 호칭, 지칭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남편을 ‘아빠’, ‘오빠’ 심지어

‘형’으로 부르고, 시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시누이의 남편’을 ‘고모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논어》의 정명론에 비추어 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로 세워야 백성이 손발을 둘 곳을 알 수 있다는 이 정명론을 ‘언어 예절 표준화’의 이론적 근거로 삼아 호칭, 지칭어가 혼란스러우면 말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논지를 펴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조선일보》 지면을 통하여 논의 주제를 제시하여 1주일 동안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회의 자료로 만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회의 결과를 정리해 신문에 실는 일이 2주일을 한 단위로 1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연령층도 폭넓게, 출신 지역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 비교적 올바르게 많이 쓰이는 말을 표준어형으로 정하였습니다. ‘처남의 맥’, ‘시누이 남편’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에 답을 주어야 했습니다. 위원회의 논의 끝에 ‘처남의 맥’은 형이나 아우의 부인을 부르듯이 ‘아주머니’로 부르고, ‘시누이 남편’은 남편의 형을 부르듯이 ‘아주버님’으로 부르기로 정하였습니다. 이 회의 자료와 신문 기사의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눈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1992년에 책으로 출판할 때에는 최종 교정을 직접 보셨습니다.

2011년에 표준 화법 제정 20년이 되어 다시 검토하고 손질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를 주관하면서 20년 동안의 사용 추이를 보니 거의 그때 정한 말들로 표준어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공한 언어정화 운동의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신 선생님의 시종일관한 실행력이 이룬 성과입니다. 20여 분에 가까운 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실 때의 선생님의 신중함과 사려 깊은 논의들은 가히 토의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연구원이 당면했던 문제 가운데 다른 하나는 국어 순화였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남아 있는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대치할 수 있는 정확한 우리말을 제시하여 각 분야에서 올바른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어연구원이 권위를 가지고 추진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의 비상 도로를 가리키는 ‘갓길’이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막 널리 사용되는 단계에 있던 영어의 ‘shoulder’에 대한 일본식 번역어를 우리 한자 발음대로 읽은 말을 제치고, ‘갓길’이 자리를 잡는데에는 선생님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어심의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 후에 정부 공식 용어로 전 부서가 통일되게 ‘갓길’을 사용하니 곧 ‘노건’, ‘길어깨’ 같은 말은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한때 ‘한가람’, ‘상록수’, ‘달빛’, ‘은빛’, ‘별빛’으로 지어진 것이 그때입니다. 일반적으로 ‘00동 00아파트’ 하여 회사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회사명 안 된다, 어려운 한자 안 된다, 외국어 안 된다.’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잘 진행되다가, 지금은 이 원칙은 지키지만 이상하게도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데시앙’ 등으로 하여, 국적 불명의 말들과 뜻도 짐작할 수 없는 이름이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갑상샘’은 ‘의학용어 순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갑상선’으로 쓰던 것입니다. 이 ‘선(腺)’ 자가 문제인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로 ‘뿔(肉)에 있는 샘(泉)’이라는 뜻이어서 ‘샘’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구원의 공식 입장도 ‘임파선(淋巴腺)’을 ‘림프샘’으로, ‘한선(汗腺)’을 ‘땀샘’으로 하는 등 다른 ‘00선’을 모두 ‘00샘’으로 바꾸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학계에서는 도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선(腺)’으로 하자는 의견도 만만찮게 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설 용어, 법률 용어, 미술 용어 등 각 분야의 어려운 한자

어와 일본어의 혼적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하나하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추진한 일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해외 동포 우리말 보급은 주로 공산권 동포들에게 표준어형을 알려주는 교육 활동입니다. 구소련, 중국의 동포들이 사용하는 말은 옛 함경도 또는 평안도 방언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현대 북한말이 덧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4세대들이 우리말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나 민간단체가 공산권 동포들을 돕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 교수님들과 국어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구소련과 중국의 곳곳에 가서 동포 교사를 대상으로 표준어, 우리 언어 규범, 문법, 우리말의 역사, 언어 예절 등을 가르치고, 또 현지의 선생님들을 우리나라로 많이 초청하여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임무를 띠고 중앙아시아에 다녀온 뒤, 그때 수집한 동포들의 이주 과정, 삶의 현실, 언어 사용 실태, 북한과의 관계, 종교적인 문제 등에 관하여 긴 보고서를 쓰고, 그 끝에 가칭 '문화봉사단'을 창설하여 이 지역에 우리말을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알릴 인문학 전공의 젊은이들을 정부 차원에서 병역 의무를 하는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문화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등과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코이카(KOICA)로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외교부와 국정원 등에서 이미 이런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국방부도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대상 지역도 확대하고 전공 분야도 넓혀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인류의 삶 향상에 봉사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데에 이 기구가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일도 그때 선생님의 교육부, 문화부, 국방부, 국회 등의 인맥이 아니었으면 더 늦게 추진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선생님께서 역점을 두셨던 일 중 하나는 통일에 대비하여 언어 정책상의 제반 문제를 미리 조율해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연변자치주의 어문 규범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하여 북한의 어문 규범을 미리 정리하여 통일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문생활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 가서 우리말 학자들을 만나 간접적으로 저쪽의 사정을 알고, 우리 어문 규범의 문제점을 손질하고 정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소련과 중국, 일본의 한국어 학자들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그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사전 편찬 및 한자와 관련된 학술회의 등을 열면서 국내 젊은 학자들과 친분을 쌓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말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끔씩 언론에 ‘문건(서류)’, ‘수표(서명)’, ‘얼음 보숭이’ 등이 오르면 문화부, 통일부 등에서 무슨 말인지 연구원으로 문의를 해 왔습니다. 즉각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선생님께도 고위층에서 자주 이런 문의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얼음 보숭이’에 대하여 선생님께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숭이’는 황해도 방언에서 ‘콩고뭍’입니다. 그들은 ‘크림’이 가루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어 보았으면 ‘얼음 보숭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말다듬기 하는 학자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노견’을 ‘길썬’으로 다듬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의 ‘shoulder’를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 뒤에 ‘얼음 보숭이’는 북한에서 새로 편찬한 국어사전에서 사라졌습니다. 북한어 규범이 우리와 다르고, 외래어가 러시아식 발음으로 되어 있어서 뿔스카(폴란드), 웅그리아(헝가리), 체스코(체코), 슬로벤스코(슬로바키아) 등이 특이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국어심의회 위원장을 맡아 다시 이 문제들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어원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통일한 덴마크 왕의 별명이 ‘푸른 이빨’이었다는 데서 온 겁니다. ‘주변 기기 통합 운용 기능’인데 좁은 데서만 통한다고 ‘쌈지 통신’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블루투스’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연구원에서 일하던 그때는 선생님께 보고 드리면 거의 정답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디에 의논해 볼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어연구원에서 제가 관여한 일은 모두 선생님의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방향 제시, 그리고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실행력에 의한 실천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배우는 은혜가, 군대 생활을 제외하고는 내내 선생으로서만 살아온 제게 주어질 기회가 달리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문서와 기안 서류는 조금의 빈틈만 있어도 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공금 지출은 합리적 근거 위에 최대한 절약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저희들은 공무의 엄격함, 국고 사용의 엄중함 등을 익혔던 것입니다.

1978년 1학기 동안 관악에서 학과장이신 선생님을 모실 때는 조금도 소홀할 수가 없는 긴장의 나날이었습니다. 학과 공금의 사용에는 한 푼의 착오도 없이 정확해야 했고, 학생 운동과 관련된 학생 지도에는 엄정하고 세심하게 말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학과 교수회의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열지 않으셨고, 부득이 열어야 하면 일주일 전에 소집하고 회의 자료는 미리 배포해야 했으며 회의는 짧게 끝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학과 운영이나 대학 운영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체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학기에는 선생님께서 규장각의 책임을 맡으셔서 학과장으로는 1학기만 모셨지만, 그때 선생님과 이어서 학과장을 맡으신 백영 정병옥 선생님께서 보여 주신 신중하고도 세밀한 학과장 직무 수행 모습은, 그 뒤에 제가 대학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일에 맞닥뜨렸을 때에 늘 선생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 특히 국문학과 선생님들은 항상 예민하게 긴장하여 글을 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글쓰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게 학과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 가르침의 밑바탕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과 운영 방식은 조교직을 거친 여러 선배들이 후에 각 대학으로 진출하여 교수직을 수행하고 학과를 운영하는 데에 거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1968년에 입학하였습니다. 그해에 교양과정부가 설치되어 저희들은 1년을 공릉동 옛 서울대학교 공대 캠퍼스에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국어과 과장 선생님을 맡고 계셨습니다.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을 뿐 그때는 1학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대학원에 입학하고서야 비로소 그 주옥같은 논문을 쓰신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1968년 선생님의 논문에서 유정 명사에는 ‘-의’를 쓰고, 무정 명사에는 ‘-스’를 쓰며, 존칭 명사에도 ‘-스’를 쓴다는 규칙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에 (1)처럼 동일 인물에게 ‘-스’를 쓰기도 하고 ‘-의’를 쓰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 ㄱ. 王이 耶輸의 ㅍ들 누규리라 ㅎ사(釋詳 六, 9b)

ㄱ'. 目連이 --- 耶輸스 알핀 서니(釋詳 六, 3a)

ㄴ. 太子祇陀의 東山(釋詳 六, 23b)

ㄴ'. 祇陀太子스 東山(釋詳 六, 26b)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스’을 쓴 경우는 화자나 문장에 있는 다른 인물이 그 사람보다 하위자이고, ‘-의’를 쓴 경우는 화자나 문장에 있는 다른 인물이 그 사람보다 상위자였습니다. 즉, 화자가 그 명사가 존칭 명사라고 생각하면 ‘-스’을 쓰고, 자신이나 비교되는 인물보다 낮아서 존칭 명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를 쓰는 것입니다.

(1)로부터 국어 경어법 사용의 기본 원리가 도출됩니다. [+존칭과 [-존칭] 자질의 결정은 화자가 한다. 그 자질이 체언에 고유한 자질이 아닙니다. 국어의 경어법은 화용론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거리를 재는 사람의 심리적 문제이지, 문법론의 원리로 세울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가 도출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이 아니었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61년에 ‘-습-’에 대하여 명징한 논문을 쓰셨습니다. ‘-습-’이 ‘주체가 객체보다 하위자일 때, 주체의 객체에 대한 동작이 겸양해야 함’을 나타내는 ‘(주체) 겸양의 형태소’라는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객체보다 하위자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화자가 객체보다 하위자여서, 객체를 존칭체언으로 파악해야 비로소 주체가 객체에 겸양하는 표현을 화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용하면, 그 객체가 청자와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 ‘-습-’은 바로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으로 기능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종결 어미 속의 ‘-습-’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에서 ‘-ㅁ-/-습-’이 있는 형과 없는 형, 그리고 ‘-다’가 ‘-데로’ ‘-까’가 ‘-꺼’로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설명 방법은 (3)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선생님의 논문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 ㄱ. 하-ㅁ(-니-, -디-)꺼, 해-니-, -디-)이꺼 • 하-ㅁ(-니-, -디-)까
참고: 햅(-느니-, -디-)잇가/고(중세)

ㄴ. 하-ㅁ(-니-, -디-)더, 해-니-, -디-)이더 • 하-ㅁ(-니-, -디-)다
참고: 햅(-느니-, -디-)이다(중세)

(3) 근대국어에서는 ‘-습-’의 주체 겸양 기능은 축소되고 화자 겸양의 기능이 우세해지며, 현대국어에서는 화자 겸양의 기능만 남았다. 방언에 따라 이 ‘-습-’의 화자겸양의 기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방언이 있어 ‘하니이꺼, 하니이더 형’이 존속하고 있다. 그런 방언은 ‘청자 존대[화자 겸양]의 ‘-이’를 강하게 유지한다. ‘-더’, ‘-꺼’는 이 청자 존대의 형태소 ‘-이’ 뒤에서 /ㅏ/가/ㅓ/로 변한 것이다. ‘-습-’의 화자 겸양 기능을 받아들인 방언은 청자 존대의 ‘-이’를 약하게 유지하고 있다. ‘-습-’의 화자 겸양 기능도 받아들이고 ‘-이’의 힘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방언이 ‘합니꺼, 합니더’ 형을 가진다.

중세 국어에서 ‘-고’, ‘-뇨’, ‘-료’ 등이 설명 의문문에 사용되고 ‘-가’, ‘-녀’, ‘-려’ 등이 판정 의문문에 사용된다는 선생님의 1965년 논문은 그 당시 국어학계의 가장 모범적인 논문으로 공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서 출발하여, 자료를 방언에서 가져오고, 단문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문에서 이 현상이 어떤 실현을 보이는지를, 생성 통사론의 WH-이동을 원용하여 정리한 저의 박사 학위 논문은 공부에서 제가 선생님께 입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정어 ‘아니’를 다룬 1959년의 논문은 계사와 부정문의 통사 구조를 보는 시각을 마련해 주었고,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장) 때는 접속 어미 ‘-디위/-디외/디웁’가 ‘-도예’로 적힌 예가 ‘삼강행실도’에 있다고 직접 원전을 보여 주셔서 접속 어미의 반말 어미화 과정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활용 어간에 관한 선생님의 석사 학위 논문(1959)은 훨씬 뒤에 문법 연구사를 쓰면서 자세히 읽었습니다. 26세 때 쓰신 것입니다. 이 논문은 미국의 기술 언어학을 이해하고 그 정신에 따라, 소위 불규칙 용언의 중세 국어 모습, 공시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전범을 보인 것으로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여도 과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향가를 가르치면서 <찬기파랑가>의 제4구 ‘沙是八陵 隱汀理也中[몰개 가른 몰가에]와 제5구 ‘耆郎矣兒史是史藪耶[기랑의 모습일 시 숲이여]가 순서가 바뀌어 적혀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상으로 ‘모래 가른 몰가에’는 잣나무 숲이 있을 수 없고, ‘모래 가른 몰가에’는 제6구의 ‘逸鳥川理 磧惡希[일오내 자갈밭에]와 같은 이미지를 가져서 ‘기랑(耆郎)’이 처했던 정치적 곤경을 의미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하면서, 언젠가 어디선가 선생님께서 《삼국유사》에 오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망매가>의 ‘吾隱去內如辭叱翻나는 가느 닷 말도’에서 ‘辭’와 ‘叱’이 순서가 바뀌어 적혔다는 것과 함께 <찬기파랑가>의 두구가 순서가 바뀌어 적혔다는 것을 지적하신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이현희 교수에게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찾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이 교수는 10여 분 후에 “국어사 자료로서의 ‘삼국유사’라는 논문 속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논문에는 “10구체 향가는 4구-4구-2구로 단락이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처격어로 끝난 제4구가 단락이 나누어지는 4구 위치에 와서는 안 되고, 문장이 종결되는 제5구가 4구 위치에 와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전하는 이 노래는 원래 노래로부터 제4구와 제5구가 전도되어 적힌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제 기억 속에는 선생님께로부터 강의 시간에 배우거나, 교실 밖의 한담에서 오갔던 정보들이 쌓여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느낀 가장 큰 아쉬움은, 이 논문들의 집필 동기나 아이디어의 획득, 논지 전개 과정상의 미진함이나 남은 문제에 대한 나아간 논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선생님의 강의 시간에 이 논문들에 관하여 언급하시는 것 자체를 들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거의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1982년쯤 ‘겸양법’에 대하여 재론하신 논문에 대하여 한 번쯤 말씀하신 것이 모두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은 당신께서 이룩하신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겸허하셨고, 당신의 학설로 강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논문들의 완성도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부분 강의 내용은 다른 분의 논문, 아직 연구되지 않은 주제, 그리고 문법학의 기본이라 할 형태 분석, 중세 국어 자료 이용에서 주의해야 할 까다로운 언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문법 현상에 대하여 맞부딪혀서 새로운 창안을 해야 하는 저희들의 처지에서 그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논문들 속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하여 세심하게 읽지 못한 데서 나온 아쉬움이라 할 것입니다.

1991년 여름쯤 국어연구원 일을 하실 때 어느 점심시간에 의문문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 논문에서 강조한 것은 ‘-(으)ㄴ다’가 의도법 의문문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충분히 논증이 되지 않았고 그 뒤에도 크게 논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WH-현상에만 골몰하여 2인칭 주어 문장에 사용되는 ‘-(으)ㄴ다’의 기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의도법 ‘-오/우’가 심악 이송녕 선생님의 오랜 사색의 주제였던 점과 1인칭 주어 호응설과의 논쟁을 생각

하면, 당연히 그것이 선생님의 주 관심사였을 것인데 그 어려운 주제는 여전히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머나먼 중세 국어의 질서인가 봅니다.

제가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어야 하나 하지 못한 것 하나는 양태 선어말 어미들입니다. 특히 '-터'와 '-느-', 그리고 '-(으)니'와 '-(으)리'에 대하여 어떤 방향의 해결책이 있을지 마지막 주제처럼 붙들고 있는데 이는 현몽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문법 체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1979년의 《고등학교 문법》(보진재) 교과서, 그리고 《중세국어 문법》, 어쩌면 더 오래전인 1967년의 《문법사》를 붙들고 이 글을 쓰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를 되짚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제목 '그분을 그리며'의 '그리워할 분'이 아니라, 원래는 지금이라도 가서 뵈 수 있는, 걸어서 10분 거리인 현석동에 계셨어야 하는 분이신데,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 황망하여 눈앞이 흐려짐을 어쩔 수 없어 하며 삼가 선생님의 명복을 비읍니다.

평생 교육의 꽃, 문해 교육의 현주소

최유경 안양시민대학 교장

지난 달, 우리 학교(안양시민대학) 초등 학력 인정 과정인 지혜반 학습자들과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일정 중 부산에 있는 유엔(UN) 공원을 방문하여 문화해설사에게 유엔(UN) 공원과 관련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다. 설명 후 학습자인 한 어머니께서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놓인 돌도 나무도 연못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모르고 볼 땐 그냥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말았는데, 안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군요.”

난 그때 적잖이 놀랐다. 그리고 다시 깨달았다. 이것이 문해 교육의 힘인 것을! 비문해 성인 학습자는 그들이 살아온 생애 경험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지혜로운 성인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서 100명 중 8명이 전혀 읽고 쓰지 못하고 16명은 읽기는 하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우리

나라처럼 고학력 사회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정말일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2008년 국립국어원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읽고 쓸 수 없거나 읽을 수 있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이 26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 학력 미취득자 192만 명, 중학 학력 미취득자 385만 명으로 20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15.7%인 577만 명이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까지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 문해 교육이란 이들과 같이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 한때 ‘문맹자 교육’이라고도 하고, 최근까지 한글 교육이라고 불리던 이 교육은 현재 ‘문해 교육’으로 통칭되고 있다. 과거에는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글을 읽지 못하는 장님’이라는 뜻으로 ‘까막눈’ 또는 ‘문맹’이라고 부정적으로 부르기도 했기에 ‘문맹자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문해 교육’을 좁은 의미에서 ‘문자 해독 교육’이란 의미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해’란 문자 해독이 아니라 문화 이해를 의미한다. 유네스코에서는 “그가 속해 사는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또는 직업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문해(literacy)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문화를 이해하는 능

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비문해자들을 위한 교육이 바로 문해 교육이다.

문해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비문해자의 대다수는 전쟁, 가난 탓에,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고 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중·고령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전되면서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 새로운 비문해자 집단으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해 교육은 평생 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위상을 명확히 하게 되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문해 교육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지역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마을 단위로 문해 교실을 열어 학습자들이 문해 교육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초등 학력과 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많은 문해 교육 기관이 재정 지원을 받아 전문 교사의 수급, 표준화된 교재 보급, 시설 개선 등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문해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어 올해로 3회째인 ‘성인 문해 학습자 시화 대회’를 보면 문해 교육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다. 시화 대회에 참가하는 학습자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들이 다양해졌다. 그리고 작품 수준이 우수해 문해 교육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당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번 시화 대회의 주제는 “문해, 위풍당당 삶을 노래하다”였다. 비문해 학습자들이 문해 교육을 통해 변화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게 된 경험을 한 편의 시로 진술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 글귀를 비문해 성인 학습자들보다 명확하게 온 마음으로 온몸으로 증언해 내는 사람들이 또 있

을까? 그들의 시에 나타난 계속 교육에 대한 기대와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문해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수 학습 전략의 개발, 문해 이후의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 이해 교육으로서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매우 시급하다.

초등 과정 졸업 후 중등 과정 진입이 교육 기관의 부족,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내용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생활 밀착형 내용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지만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수학 5과목 이수로 이루어지는 성인 중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이 학력 취득의 형식적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성인들에게 유의미한 교육이 되고 있는가? 또 중등 교육 과정으로 진입을 원하지 않는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이런 과제를 풀어내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학습자도 10인 10색이지만 문해 교육 기관의 교육 환경 역시 10인 10색이어서 지역 간의 불균형도 존재한다. 좋은 수업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한 교실 안에서 여러 단계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안락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둔감해지기도 한다. 학습자들이 교육 환경의 열악함을 참고 견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도 여전히 미흡하다.

문해 교육 현장은 성인 문해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보다 확실히 더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단위 국가사업이 20억 원 내외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아주 대단하고 감동적인 성과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내 나이 벌써 육십이 되었네.
나는 이제 나비가 되어 외출을 하려 하네.
노란 나비되어
나비아, 노란 나비아
힘차게 날아서
꽃밭에 앉을까
고추밭에 앉을까
배움의 밭에 앉았네.
예쁘게도 앉았네.
노란나비아!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렴
배움의 밭에서 노란 나비아.
(출처: 안양시민대학 야간반 학습자 시)

이제 글자를 넘어 세상을 향해 외출을 시작하여 자유롭게 마음껏 꿈을 꾸며 그 꿈을 펼치려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펼쳐야 할지 생각해 본다. 과거에 못 이룬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는 문해 교육이 아니라 현재를 더 잘 살기 위해, 더 자유롭기 위해 그리고 100세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교육으로서 문해 교육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자료집.
이천시(2008), 전국문해교육심포지엄 자료집- 문해교육의 전망과 과제.

스페인의 언어 다양성과 언어 정책

조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1. 스페인의 언어 다양성과 역사적 배경

스페인이 다민족, 다언어 국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스페인은 17개 자치주(comunidad autónoma)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지역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주는 민족적·역사적 이유를 들어 독립의 열망

[그림 1] 스페인의 언어 지도



[표 1] 총인구 대비 공동 공용어 사용 자치주의 인구 비율(INE 2014)

자치주	인구(단위: 명)	총인구 대비(%)
카탈루냐	7,411,869	16.0
발레아레스 제도	1,115,374	2.4
발렌시아	4,963,027	10.7
갈리시아	2,747,207	5.9
바스크	2,166,184	4.7
나바라	636,629	1.4
합계	19,040,290	41.1

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언어 사용 양상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 공용어는 스페인어(español)지만 6개의 자치주가 지역 토착어에 공동 공용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주나 지역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이중 언어 사용 현상이 발견되는 현실이 전혀 의아하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공동 공용어인 카탈루냐어, 갈리시아어, 바스크어는 각각 전체 국민의 약 9%, 4%, 1.5%의 모국어이다.¹⁾ 카탈루냐어는 카탈루냐(Cataluña), 발렌시아(Comunidad valenciana), 발레아레스 제도(Islas Baleares)에서 공동 공용어이고,²⁾ 갈리시아어는 갈리시아(Galicia)에서, 바스크어는 바스크(Pais Vasco)와 나바라(Navarra)에서 그러하다. 단, 발렌시아는 서부 카탈루냐어의 방언으로 간주되는 발렌시아어를 고유어로 인식하고 있다.

1) 카탈루냐는 2013년, 갈리시아는 2003년, 바스크는 2011년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갈리시아와 바스크 모국어 화자 비율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2) 이외에도 아라곤(Aragón) 동부와 무르시아(Murcia)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되며, 프랑스의 로세욘(Rosellón), 이탈리아의 알게르(Alguer)에서도 쓰인다. 알게르에서는 공동 공용어이다.

현재 공동 공용어 사용 자치주 주민은 전체 국민의 약 41%에 달한다. 카스티야어와 생성·발달의 역사가 상이한 카탈루냐어, 갈리시아어, 바스크어는 자치주의 정치적 위상 개선과 더불어 공동 공용어로 인정 받았고, 이는 스페인이라는 한 국가의 근본적 특성이 되었다.

공용어인 스페인어는 원래 카스티야(Castilla) 왕국의 말로 카스티야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카스티야 왕국이 15세기 국토 통일의 주체가 되면서 통일 스페인을 대표하는 공용어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카스티야가 아닌 지역에도 경계를 설정하기 까다로운 여러 지역 토착어 및 방언들이 존재했다.

카스티야어, 갈리시아어, 카탈루냐어는 기원전 3세기 스페인이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며 이식된 라틴어를 공통 근원으로 하여 생성된 로망스어 계통의 언어들이다. 전(前) 로마 시대의 원시 토착어, 켈트어, 게르만어, 아랍어 등의 영향을 받아 각기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였지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오랫동안 공존해 왔다.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친족어를 찾을 수 없는 고립어인 바스크어도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언어 다양성이 스페인의 가장 큰 언어·문화적 특징이 되었다. 그러나 15세기에 로망스어 최초의 문법서를 발간한 카스티야어와 달리 카탈루냐어와 갈리시아어, 바스크어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법을 정립하지 못했다. 특히 20세기 초 ‘하나의 스페인’을 국시(國是)로 내걸었던 독재자 프랑코에 의해 말살 위기에 몰렸던 바스크어는 1968년에 이르러서야 통일 문법을 마련하였을 정도이다.

프랑코 사망(1975) 이후 언어와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헌법의 보호 하에 스페인의 정치-언어 지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으나,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토착어가 동일시되면서 언어 자치권과 교육권을 놓고 중앙 정부와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2. 언어 다양성 장려 정책: 각 자치주의 언어 정책

2.1. 법적 장치와 권리 보장

1978년에 제정된 스페인 헌법은 공용어와 공동 공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 **3조 1항** 카스티야어는 국가의 공용어인 스페인어이다. 모든 스페인 국민은 그것을 습득할 의무와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 **3조 2항** 스페인의 다른 언어들 또한 각각의 자치주 법규에 합당하게 공용어가 된다.
- **3조 3항** 스페인의 풍요로운 여타 언어들에 특별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문화유산이다.

물론, 제2조에서는 ‘스페인 헌법은 국민 공통의 불가분한 조국인 스페인이라는 한 국가의 영속적인 단일성에 기초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한편, 6개의 자치주는 자치주 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언어 상용화법의 제정과 적용과 관련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각 자치주 법규의 명칭이다.³⁾

- 바스크: 바스크어 사용 상용화 기본법(1982년)
- 카탈루냐: 카탈루냐 언어 상용화법(1983년), 언어 정책법(1998년)
- 갈리시아: 갈리시아 언어 상용화법(1983년)
- 발렌시아: 발렌시아어의 사용과 교육에 관한 법 (1983년)

3) 각 자치주 언어 정책 관련 누리집 참고

- 발레아레스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의 언어 상용화법(1986년)
- 나바라: 나바라의 바스크어법(1986년), 공공 행정의 바스크어 사용법(2001년)

이렇듯 자치주 법규도 언어 및 방언의 유지·보호라는 측면에서 스페인 헌법과 일치하고 있다.

2.2. 언어 상용화법(Ley de Normalización Lingüística)

2005년부터 카탈루냐, 바스크, 갈리시아의 공공 기관은 공동 공용어인 지역 토착어를 공용어인 카스티야어와 병용하고 있다. 공동 공용어는 유럽연합(EU)의 요청이 있을 때 공용어와 함께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은 물론 자치주 주민들은 유럽연합(EU)에 공동 공용어로 문의가 가능하다. 이때 발생하는 통역이나 번역 비용은 국가가 충당한다. 고유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용 증대라는 오늘날의 성공적인 결과 이면에는 각 자치주의 적극적인 언어 정책과 중앙 정부와의 치열한 정치적 협상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오늘날 각 자치주 의회가 지역어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1982~1986년에 ‘언어 상용화법’을 마련한 결과 공용어와 공동 공용어로 작성된 문서들이 법률상으로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또한 각 ‘언어 상용화법’은 유사한 구조의 규정들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에는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이 언어들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과 지리적 범위를 명시하였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지역 행정, 교육, 대중 매체라는 세 영역에 적용된다.

모든 시민은 행정 기관에서 차별 없이 공용어나 공동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중 언어 사용 자치주 법규의 공통 항목이다. 모든 법규는 공용어와 공동 공용어로 공시되며, 각종 행사와 재판에서 두

언어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카탈루냐는 중앙 행정 기관과 대학의 행정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카탈루냐어를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바스크의 경우, 통역 서비스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이나 사법 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공용어인 카스티야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동 공용어를 쓸 수 있다.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언어 상용화법'은 의무 교육 기간 동안 모든 학생이 공용어와 공동 공용어 사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자의 이중 언어 사용 능력 구비는 필수 요건이다. 지역 고유어는 학습의 대상이며 도구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바스크에서는 언어 교육에 따른 학교 유형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그 선택은 전적으로 학부모의 권한이다.

한편, 각 공동 공용어의 학술적 권한은 각 자치주의 한림원과 주립 연구소에 있으며, 언어 정책의 수행은 보통 언어 정책 총국이 담당한다. 언어 정책이나 언어 상용화법, 기타 언어 관련 분쟁의 경우, 스페인 중앙 정부나 자치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맡길 수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각 공동 공용어 사용 자치주가 언어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은 모두 흡사하지만, 정책의 효과적인 활용과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각 자치주의 출발 상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대부분 주민이 토착어를 구사했던 카탈루냐, 갈리시아와 토착어 구사 인구가 주민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바스크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토착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았던 카탈루냐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갈리시아도 출발점이 다르다. 총 인구수와 이민자의 유입 정도도 언어 정책의 적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자치주 정부가 표방하는 정치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레로, 민족주의 성향

의 정부와 그렇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셋째, 각 자치주가 20~30년 동안 행한 정책의 변화 과정과 방법론적 차이가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들어 냈다. 예를 들어, 매우 적극적으로 자치주 언어 수호에 나선 카탈루냐와 바스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갈리시아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넷째, 갈리시아어와 카탈루냐어는 카스티야어와 같이 라틴어에서 파생한 친족어이므로 타지인의 습득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계통이 전혀 다른 바스크어는 습득이 어렵고 언어정책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2.3. 교육 정책

스페인에서 카스티야어가 아닌 언어가 전적으로 사용되는 자치주는 없다. [표 2]는 현재 공동 공용어 채택 자치주의 모국어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로,⁴⁾ 지역별로 스페인어와 공동 공용어의 사용 정도를 가늠하게 하며, 이는 교육 정책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용어인 카스티야어는 공동 공용어와 함께 학교 교육 초기부터 지금까지 학습 대상이다. 그러나 완벽한 지역어 화자 양성을 위해 공동 공용어 사용 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교육제도 내에서 다민족 국가인 스페인의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경우, 이런 언어 다양성이 결국 학생들의 공용어 구사 능력에 해로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역어가 모국어이자 일상어인 학생들은 카스티야어를 학교에서 습득하게 되므로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중 언어 사용자로 성장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4) 자치주 정부의 모국어 관련 통계 자료 참고: 카탈루냐(2008년), 발레아레스 제도(2003년), 갈리시아(2003년), 바스크(2001년), 나바라(2001년), 발렌시아(2007년).

[표 2] 자치주 인구 대비 모국어 비율

자치주	공동공용어	모국어			
		카스티야어	공동공용어	두 언어 모두	기타 언어
카탈루냐	카탈루냐어	55,0%	31,7%	3,8%	9,6%
발렌시아	발렌시아어	60,8%	28,8%	9,5%	0,8%
갈리시아	갈리시아어	30,1%	52,0%	16,3%	1,6%
바스크	바스크어	76,1%	18,8%	5,1%	—
발레아레스 제도	카탈루냐어	47,7%	42,6%	1,8%	7,9%
나바라	바스크어	89,0%	7,0%	2,0%	2,0%

궁극적으로 언어 교육은 ‘언어 상용화법’이 표방하는 바 외에도 외국어 습득과 문화 충돌 방지를 위한 언어 태도의 홍보 등 여러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주별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카탈루냐에서는 언어 상용화법 시행 초기부터 매 학년 한 과목에서 카탈루냐어로 수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자치주와 마찬가지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카스티야어 사용이 증가하며, 직업 교육에서는 지역어 사용 비율이 월등히 낮다. 그러나 이중 언어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카탈루냐어의 사용도 카스티야어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탈루냐의 대학에서는 지역어가 행정 업무와 학칙, 각종 규정에 사용되는 1차 언어이며, 단과 대학이나 과목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수 모두 카탈루냐어 구사 능력을 전제로 수업과 시험이 시행된다.

갈리시아의 ‘언어 상용화법’도 토착어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간의 소통과 관계 유지, 갈리시아어 확산을 위한 이해 능력 구비를 목표로

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미취학 아동에게도 지역어 학습이 시행되며, 갈리시아어와 카스티야어 수업에 동일한 시간이 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학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대학교에서는 이미 1970년대 학생 운동의 도구로 갈리시아어를 민족의 상징처럼 사용해 왔다. 이외에도 대학 내의 갈리시아어 상용화를 독려하기 위하여 ‘언어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들도 있다.

타 자치주에 비해 초기 상황이 불리했던 바스크에서는 교육이 언어 정책의 주력 분야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자치권 획득 이후 급증한 이중 언어 사용자 수는 전적으로 교육 제도의 바스크어화가 낳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전까지 민중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바스크어 전용 사립 교육 기관’을 제외하고는 바스크어 교육은 전무했다. 1982년 ‘바스크어 상용화 기본법’은 대학 교육 이전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바스크어와 카스티야어로 수업할 권리를 인정했고, 1983년 ‘이중 언어 관련 칙령’에 따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카스티야어와 바스크어 수업 비중의 학교 모델이 확정되었다.

언어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바스크어와 카스티야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언어 모델에 따라 학과와 강좌를 구분하고, 이중 언어 사용자인 교수의 수를 지정하고, 행정 직원들의 바스크어 습득을 독려하고, 바스크어 연구소를 세우고, 필수 과목의 65%를 바스크어로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대학교에서는 수업 대부분이 카스티야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012년 바스크 대학(Universidad del País Vasco)의 교원 45%와 직원 58%가 이중 언어 사용자라는 통계가 제시된 바 있어,⁵⁾ 대학 내에서의 상황이 점차 바스크어 전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회 언어학적 상황의 변화

먼저, 한 국가의 공용어가 아닌 유럽어 중 화자 수나 사회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이 카탈루냐어이다. 카탈루냐어는 독립국인 안도라(Andorra)의 공용어이자 스페인의 공동 공용어라는 법적 지위를 갖추었고 문법 체계 또한 완벽히 정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 대부분의 일상어이자 스페인 국민의 약 30%가 사용하는 비교적 다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다른 지역어에 비해 일찍 규범화를 실현한 카탈루냐어는 ‘현 사회에 적합한 용례에 의거한 언어의 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 방언들을 고려하여 카탈루냐어 사용 지역을 초월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공통 규칙을 발렌시아어에도 적용하려 하였으나, 이를 카탈루냐어의 방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 언어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인 해석과 맞물려 끊임없이 논쟁을 야기하여 오늘날까지도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977년 자치주 법규를 통해 카탈루냐어가 고유어임을 선언한 후, 1983년 자치주 의회는 카탈루냐어와 카스티야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언어 상용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자치주 주민의 언어 습득 의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카탈루냐어 습득 없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후 더 적극적인 언어 정책으로 자치주 의회와 공공 기관의 각종 회의, 기관들의 행정 업무,

5) 엘에코노미스타. 스페인의 경제 일간지 인터넷판 (2012년 6월 22일)

<http://ecodiario.eleconomista.es/espana/noticias/4063484/06/12/La-Universidad-del-Pais-Vasco-regulara-el-uso-del-euskara-fuera-de-clase.html#.Kku8v3Zm9jXHPjm>

공식 행사 등에서 항상 카탈루냐어가 사용된 결과, 각종 고지(告知)와 결과 보고 또한 카탈루냐어로 공시된다. 이러한 상황은 1998년 공포된 ‘개정 언어 상용화법’의 실행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공공기관에서 카탈루냐어만을 사용할 날이 머지않았음이 예견된다. 더욱이 카탈루냐는 2006년 자치주 법규 개정으로 국가(nation)의 지위를 인정 받았고, 2014년 11월 9일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리 독립 여부를 묻는 카탈루냐 국민 총 투표에서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낸 상황이다.

둘째로, 20세기까지도 완벽한 문자화를 이루지 못했던 바스크어는 고립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이베리아 반도의 원시 언어 중 하나를 보존할 수 있었던 반면 내부적으로 상이한 다수의 방언을 양산했을 뿐더러 주민의 20%만이 실질적인 초기 화자였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불리했다. 바스크어는 문학적 전통이 없고, 프랑크 독재에 대한 투쟁이나 정치적인 도구로서 존재했으므로 그 발전이나 정착 과정이 다른 언어와 매우 다르다. 또한 친족어가 없는 바스크어의 특수성은 타 지역 출신 사람들이 바스크어를 습득하려면 긴 시간과 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언어 정책의 기본 목표는 바스크어 교육으로 화자를 증가시키는 데 있었다.

오늘날 바스크 자치주는 언어 교육과 지역민 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바스크어 공통 규범에 현대의 언어 상황이 반영된 ‘공통 바스크어’를 1971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바스크어 전용 사립 교육 기관’이 등장하며 지역 고유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20~1930년대에 시작된 규범화는 1979년 자치주 법규의 승인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공통 바스크어’를 출발점으로 바스크어 통일 사전, 문법, 바스크어 언어 지도 편찬 작업 등이 병행되고 있다. 이후 입지를 굳

힌 바스크어는 대중 의식의 폭넓은 변화를 이끌어 냈는데, 여기에는 ‘바스크어 전용 사립 교육 기관’이 중추 역할을 담당했으며, 오늘날에는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자치주 인구의 약 19%가 완벽한 바스크어 화자이며,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교육 제도 내에서 바스크어를 습득하는 이중 언어 화자이다. 바스크어 자격 시험 통과자만이 공교육 기관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갈리시아는 토착어에 대한 의식이 카스티야어에 미치지 못하여 공공 기관에서는 여전히 카스티야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과 기타 생산업 위주로 사회가 형성된 카탈루냐와 큰 대조를 이룬다.

정자법과 어휘 규정, 한림원 사전은 각각 1982, 1997년에 빛을 보았으나, 공식적인 통일 문법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카스티야어에 가까운 기존의 표준형 대신 포르투갈어와 유사한 형태의 선택을 주장하는 ‘루시타니아’⁶⁾ 지지자들 때문이다. 이들은 포르투갈어와 흡사한 언어형 혹은 그 방언을 선택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다수의 언어가 되길 희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리시아어 방언들은 상이한 정도가 미미하므로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2003년 개정 문법이 제시된 상태다.

갈리시아어 화자들의 약 50%가 글쓰기를 포함하여 갈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자치주 주민 대부분이 적극적 또는 수동적 화자이다.

6) 이베리아 반도가 로마 제국의 일부였을 당시 갈리시아-포르투갈 지역을 아우르던 행정 구역의 명칭.

사회 통념상 카스티야어보다 하위의 언어로 간주되어 왔다 하더라도 최근 삼십여 년간의 갈리시아어 상용화 정책과 교육의 결과로 청년층의 갈리시아어 사용이 늘고 있으므로 그 미래는 어둡지 않다.

4. 다언어 국가로서 스페인의 전망과 과제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 미루어 보아 스페인의 공동 공용어인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는 자치주 정부의 적극적인 언어 정책과 언어를 문화유산으로 간주하는 변화된 의식 덕분에 지금과 같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4대 언어 중 하나인 스페인어는 강제성을 띠지 않아도 습득할 수밖에 없는 공용어의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스페인의 언어 상황은 공용어와 지역 고유어 간의 알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카탈루냐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여러 조건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족이나 역사, 정치 같은 집단적인 원인보다는 출산율의 저하, 쉽고 빨라진 지역 간 이동, 다양해진 대중매체 등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범세계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요소들이 주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고른 언어 습득이 가능해진 무상 교육, 이중 언어를 넘어 영어를 포함한 삼중 언어 사용을 요구하는 글로벌 시대의 도래,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람, 더욱 다양해진 외국인 관광객과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증가 등 장차 스페인 지역어들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은 수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관성도 매우 복잡해졌다. 따라서 위의 다양한 변

인을 고려한 다각적이고 광범한 방향으로 언어 정책의 결정과 실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참고문헌

갈리시아 자치주정부. www.xunta.es

바스크 자치주정부 언어 정책과 현황. www1.euskadi.net/euskara_lingua

스페인 국립 통계협회. www.ine.es

카탈루냐 자치주정부. www.gencat.net

카탈루냐 자치주정부 통계협회. www.idescat.net

Moreno Fernández, F.(2005), *Historia social de las lenguas de España*, Barcelona: Ariel.

Moreno y J. Moreno Fernández(2004), Percepción de las variedades lingüísticas de España por parte de hablantes de Madrid, *Lingüística Española Actual*, XXVI/I, 1-48.

Siguán, M.(1999), *Conocimiento y uso de las lenguas de España, Madrid: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

Urrutia Cárdenas, H. y T. Fernández Ullóa(2005), *La educación plurilingüe en España y América*, Madrid: Dykinson.

Zalbide, M.(1999), Normalización lingüística y escolaridad: Un informe desde la sala de máquinas, *RIEV*, San Sebastián.

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1.1. '텀블러' 대신 '통컵'

- 텀블러(tumbler)의 다듬은 말: '통컵'
- 가드닝(gardening)의 다듬은 말: '생활 원예'
- 에코백(eco-bag)의 다듬은 말: '친환경 가방'
- 플라마켓(flea market)의 다듬은 말: '벼룩시장'
- 햄스트링(hamstring)의 다듬은 말: '허벅지뒷근육/허벅지뒤힘줄'

'텀블러'는 '음료수를 마시는 데 쓰는, 굽이나 손잡이가 없고 밑이 편평한 컵'을 말한다. 그리고 '가드닝'은 '정서 안정(심신 이완), 관상, 공기정화, 조경, 취미 생활, 식재료 수확 등의 목적을 위해 베란다, 사무실, 정원 또는 채소밭 등에서 화초나 채소를 가꾸는 활동'을 가리킨다.

'에코백'은 생태를 뜻하는 '에콜로지(ecology)'와 가방의 '백(bag)'이 합쳐진 말로, '환경을 생각하는 가방'이라는 뜻인데, 천 소재로 된 가방을 말한다. '플리마켓'은 '안 쓰는 물건을 공원이나 길거리 등에 갖고 나와 매매나 교환을 하는 시장'을 말한다.

'햄스트링'은 '인체의 허벅지 뒤쪽(또는 넓적다리 뒤쪽) 부분의 근육과 힘줄'을 뜻하는 말이다.

1.2. '하우스 웨딩' 대신 '정원 결혼식'

- '하우스 웨딩(house wedding)'의 다듬은 말: '정원 결혼식'
- '트렌드 세터(trend setter)'의 다듬은 말: '유행 선도자'
- '디스펜서(dispenser)'의 다듬은 말: '(정량) 공급기'
- '디퓨저(diffuser)'의 다듬은 말: '방향기'
- '업사이클링(up-cycling)'의 다듬은 말: '새활용'

‘하우스 웨딩’은 ‘주로 정원이 있는 집, 레스토랑 등에서 소수의 선별된 하객만 초청하여 뜰잔치(가든파티)식으로 하는 결혼식’을 가리킨다. 또 ‘트렌드 세터’는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의식주와 관련한 각종 유행을 창조하고 대중화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일컫는다. ‘디스펜서’는 ‘냅킨, 종이컵, 물비누, 양치액 등 특정한 물건이나 물질을 사용할 때 버튼이나 손잡이를 한 번 누르면 일정한 양이 공급되도록 고안된 도구나 장치’이다. 또 ‘디퓨저’는 ‘방향제, 향수 등의 향기 입자를 잘 퍼지게 하는 도구나 장치’를 말하며,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2. 국립국어원 원내 토론회

2.1. 2014년 제12회 원내 토론회

- 주제: 디자이너 세종의 독창성: 한글의 숨은 코드
- 발표자: 이상억(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일시: 2014년 9월 29일(월) 16:00~17:30
- 장소: 국립국어원 3층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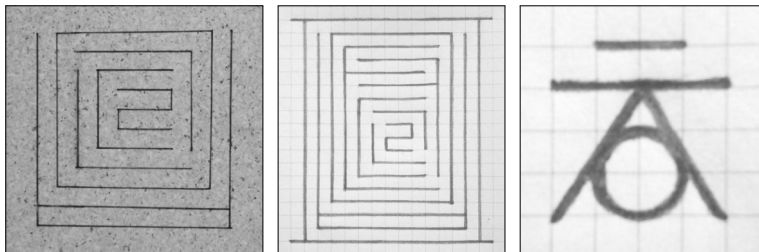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억 서울대 명예교수가 ‘디자이너 세종의 독창성: 한글의 숨은 코드’라는 주제로, 한글 자모에 담긴 숨은 의도와 조형성, 훈민정음의 자소적(字素的) 독창성, 훈민정음의 문자적 독창성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글 자모에는 획수 절약이라는 경제성의 원리가 숨어 있다. 1획의 ‘ㄱ’ 모양을 택함으로써 2획의 ‘Γ’ 모양에 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

다. ‘ㄴ’의 경우도 획수 절약상 반대의 모습인 ‘ㄹ’ 모양을 취하지 않았고, 3획인 ‘ㅍ’가 아닌 2획의 ‘ㅋ’을 선택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 또한 ‘ㄹ>ㅂ>ㅅ’으로 예상되는 가획 대신 변칙적 ‘ㅍ’을 택한 것은 ‘ㅅ’이 ‘ㄹ’이나 ‘ㅂ’과 모양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ㄴ’에서 가획으로 ‘ㄷ’을 취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나머지 유사한 ‘ㄱ, ㅁ, ㄴ’을 더 취하지 않은 것은 유사성을 줄여 최대한 구별이 쉽도록 하려는 배려라 할 수 있다.

한글 자모의 조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글 자모 ‘ㄱ’부터 ‘ㅂ’까지를 한 개의 네모 속에 가지런히 채워 넣어, 네모 규격 속에 자음의 조형성을 입증하였다. 다음은 ‘ㅋ, ㅌ, ㅍ’을 더 포함시켜 ‘ㄱ’부터 ‘ㅍ’까지를 더 큰 네모 속에 가지런히 채워 넣었다. 이러한 숨은 디자인의 정제성은 수직·수평선의 일사불란한 조합에서 이미 잉태된 것이다. 나머지 ‘ㅅ, ㅇ, ㅈ, ㅊ, ㅎ’도 아래의 한 형상에 집약해 넣을 수 있다. 이 수렴된 모습이 마치 열쇠 구멍처럼 무슨 비밀 코드를 숨긴 듯하다.

이어서 훈민정음의 자소적(字素的) 독창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훈민정음에는 (1) 가획 (2) 합자(네모 속에 한 음절을 씌) 두 가지 특징 외에, 다음과 같은 서예상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 또 위에서 아래로 쓴다. (4) 가획을 할 때와 음절 단위 내부를 합자해 써 나갈 때 같은 간격을 유지한다. (5) 음절 단위의 크기를 네모의 연쇄로 붙여 나갈 때 같은 크기를 유지한다. 획들을 평행으로 써 나갈 경우 여러 단계의 밀도가 있다. (6) 획수의 최소화를 고려하였다. (7) 서예적 유사성이 많을 경우 다른 자형을 도입하여 회피하도록 선택했다. (8) 자소의 최대 변별 원칙을 지키려면 ‘ㄱ’ 또는 ‘ㄷ’과 ‘ㄷ’ 또는 ‘ㄱ’ 중 하나가 선택되어야 했다. 모음자 창제 시 수직·수평선의 분포에 대한 계량적 고찰을 하면, 현재와 같은 선택이 모음자 출현 빈도에 비추어 현명한 선택이었다.

끝으로 훈민정음의 문자적 독창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세계 문자들 가운데 훈민정음의 자형과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 표기 체계의 몇 요소가 다른 표기 체계의 몇 요소와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고 놀랄 일은 아니다. 그들은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기본 획들이기 때문이다. 훈민정음과 다른 주요 표기 체계(미노아, 페니키아, 그리스, 히브리, 브라미, 로만, 키릴, 중국 및 일본) 간의 유사성을 살펴본 결과, 관찰된 유사성으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찾을 수 없었다. 인류 역사에서 발견되는 표기 체계상의 모든 증명된 ‘모방’에 반해, 제2의 창제가 세상에 유일하게 선행된 예가 없는 음성자질 표기 체계(featureal system)라는 단순한 이유로, 훈민정음의 선행 모델이 된 것을 굳이 찾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익 명예교수의 발표에 이어 한글 디자인의 특성과 활용 방안, 한글의 우수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앞으로 한글의 문자적 우수성 뿐 아니라 디자인과 같은 다양하고 독창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2.2. 2014년 제13회 원내 토론회

- 주제: 한자 문화의 안과 밖
- 발표자: 송병렬(영남대학교 교수)
- 일시: 2014년 11월 3일(월) 16:00~17:40
-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병렬 영남대학교 교수가 ‘한자 문화의 안과 밖’이라는 주제로, 문화의 어원과 의미,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형성, 우리나라 한자 문화의 특성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오늘날 문화(文化)의 의미는 근대에 서구로부터 동아시아에 들어왔다. ‘문화’라는 말은 서구의 ‘culture(영), Kultur(독), culture(프)’를 번역한 말로, 라틴어의 ‘cultura’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한 ‘문화’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 ‘문’의 본뜻은 ‘문신(紋身=文身)’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화문, 문장, 문학, 문덕, 천문, 인문’ 등으로 확장되었다. ‘화’의 본뜻은 ‘교화’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문’과 ‘화’가 동시에 출현한 것은 《역경》과 한나라 유향의 《설원》이다.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천문을 관찰하여 시변을 살피며,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를 변화시킨다.) 《역경》

聖人之治天下也 先文德而後武力 凡武之興 爲不服也 文化不改 然後加誅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문덕을 먼저하고 무력을 나중에 쓴다. 다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인문으로 교화했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그런 뒤에 칠 수 있다.) 《설원》

문화는 《설원》에 나타난 표현으로 보면 ‘덕으로 하는 정치에 의한 세상의 변화’라는 의미이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현대의 사전적인 개념과 일부 상통하는 바가 있다.

이어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자 문화권은 ‘한자(한문)’라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 문화권임을 강조한 것이다. 언어와 관련한 문화권으로 서양의 라틴 문화가 존재한다. 라틴 문화는 서구 문화의 원류로 히브리 문화 및 그리스 문화와 더불어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동아시아는 서구처럼 보편적 가치로 통일된 세계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문자로서는 한자 문화권이며, 이념에서는 유교의 문명권이다.

한자 문화의 안(내포)은 유교 사상과 관련이 깊다. 유교의 이상적 정치와 문화는 ‘예치(禮治)’로 정의된다. 여기서 ‘예’는 상대를 교화하여 화에 이르도록 하는 정치 행위를 의미한다. 유학은 ‘수기치인지학’이라 할 만큼 군자의 수기치인을 매우 강조하였고, 수기와 인을 행하는 출발점을 효제로 잡았다. 또한 유학은 정치철학의 학문이다. 특히 《논어》는 당시 군주세습제 사회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공자는 왕의 후손만이 통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군자의 덕을 닦는 사람만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중세 한국은 이러한 유학의 정치철학을 받아들였고, 그러한 이념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한자 문화의 밖(외연)은 다음과 같이 언어, 문학·역사·철학, 생활사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한글 창제 이전까지 이 두, 향찰을 비롯해 한자를 통해 문자 생활을 누려 왔다. 중세 동아시아의 학문은 분과적 학문 체계가 아닌 통합적 학문 체계로, 문학과 역사, 철학의 내용들을 하나의 틀 속에 아우르고 있다. 한자 문화는 우리 주

변에 있는 생활과 관련된 문화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한자 문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동아시아에서 한자 문화는 보편적이지만, 한국의 한자 문화는 특수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한자 문화는 형식은 보편적이거나 내용은 특수한 것이다.

송병렬 교수의 발표에 이어 우리나라 한자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동아시아 한자 문화의 비교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한·중·일의 한자 어휘 비교 연구 등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3.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3.1. 2014년도 제25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9. 26.)

[인명]

-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1942~. 일본 정치가. 농림수산상(2014. 9. ~), 5선 중의원 의원(2012. 12. ~, 1996. 10. ~2009. 7.). 자민당 소속.
-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互). 1946~. 일본 정치가. 부흥상 겸 후쿠시마 원전사고 재생총괄 담당상(2014. 9. ~), 5선 중의원 의원(2000. 6. ~), 자민당 소속. 방송인 출신. 다케시타(竹下登) 전 총리의 이복동생.
- 뢰벤, (셸) 스테판(Kjell) (Stefan Löfven). 1957~. 스웨덴 정치가. 총리(2014. 10. ~).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AP) 당수(2012. 1. ~). 금속 노동조합(IF Metall) 위원장(2006. 1. ~2012. 1.).
- 마쓰시마 미도리(松島みどり). 1956~. 일본 여성 정치가. 법무상

- (2014. 9. ~), 4선 중의원 의원(2012. 12. ~, 2000. 6. ~2009. 7.). 자민당 소속. 호적상의 성명은 '바바 미도리(馬場)'. 신문 기자 출신.
- 모치즈키 요시오(望月義夫). 1947~. 일본 정치가. 환경상 겸 내각부 특명담당상(원자력방재)(2014. 9. ~). 6선 중의원 의원(2011. 1. ~, 1996. 10. ~2009. 7.). 자민당 소속.
 - 발리온, 로데베이크(Lodewijk Baljon). 1956~. 네덜란드 건축가.
 - 쓰쓰미 쓰요시(堤剛). 1942~. 일본 첼로 연주자.
 - 아리무라 하루코(有村治子). 1970~. 일본 여성 정치가. 내각부특명담당상(소비자·식품안전, 규제개혁, 저출산 대책, 남녀공동참여) 겸 행정개혁·여성활약·국가공무원제도 담당상(2014. 9. ~). 3선 참의원 의원(2001. 7. ~). 자민당 소속.
 - 야마구치 슌이치(山口俊一). 1950~. 일본 정치가. 내각부특명담당상(오키나와·북방 대책, 과학기술·우주 정책) 겸 정보통신기술(IT) 정책·재도전(再チャレンジ)·쿨저팬(クールジャパン)전략 담당상(2014. 9. ~). 8선 중의원 의원(1990. 2. ~). 자민당 소속.
 - 야마다 에리코(山谷えり子). 본명 오가와 에리코(小川恵里子). 1950~. 일본 여성 정치가.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겸 내각부특명담당상(방재) 겸 납치문제·국토강인화·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상(2014. 9. ~). 총리 보좌관(교육재생 담당)(2006. 9. ~2007. 9.). 2선 참의원 의원(2004~), 중의원 의원(2000~2003). 2014년 현재 자민당 소속. 언론인 출신.
 - 에토 아키노리(江渡聡徳). 1955~. 일본 정치가. 방위상 겸 안보법제 담당상(2014. 9. ~). 5선 중의원 의원(2003. 11. ~, 1996. 10. ~2000. 6.). 자민당 소속.
 - 자이드 (빈) 라아드 (Zayd (bin) Raʿd/Zeid (bin) Ra'ad) 아랍 어명:

زيد بن رعد. 1964~. 요르단 외교관. 유엔(UN) 인권고등판무관(UNHCHR) (2014. 9. ~). 미국 주재 대사(2007~2010), 유엔 주재 대사(2000~2007), 부대사(1996~2000). 현 국왕 압둘라 2세(ʿAbdullāh II bin al Ḥusayn)의 재당숙(7촌).

- 케직, 칩스(Chips Keswick). 본명 존 치펜데일 린들리 케직(Sir John Chippendale Lindley Keswick). 1940~. 영국 경영인. 스코틀랜드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팀 아스널(Arsenal F.C.) 회장(2013. 6. ~).

3.2. 2014년 제26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10. 2.)

[인명]

- 무구루사 (블랑코), 가르비네(Garbiñe Muguruza (Blanco)). 1993~ 베네수엘라·에스파냐 테니스 선수. 카라카스(Caracas) 근교에서 에스파냐 바스크인 부친과 베네수엘라인 모친에게서 출생. 2014년 9월 현재 여자테니스협회(WTA) 세계 랭킹 단식 22위, 복식 15위.
- 사무카이, 브라우니(Brownie J. Samukai). ?~. 라이베리아 군사·경찰 행정가. 국방장관(2006. 1. ~).
- 슈나이더, 에티엔(Etienne Schneider). 1971~. 룩셈부르크 정치가. 부총리 겸 경제·국내안보·국방 장관(2013. 12. ~), 경제·대외무역 장관(2012. 2. ~2013. 12.).
- 슐링크, 베른하르트(Bernhard Schlink). 1944~. 독일 법조인·법학자·저술가. 대표 집필 소설 '더 리더(Der Vorleser)(The Reader)'(1995).
- 추미, 베르나르(Bernard Tschumi). 1944~. 프랑스·스위스 건축가. 로잔(Lau-sanne)에서 스위스인 부친과 프랑스인 모친에게서 출생. 미국 영주권자. 미국 컬럼비아(Columbia)대 건축·계획·보존대학원

(GSAPP) 학장(1988~2003). 스위스 건축가 장 추미(Jean Tschumi)의 아들.

- 추미, 장 (앙드레) (Jean (André) Tschumi). 1904~1962. 스위스 건축가. 제네바(Geneva)에서 스위스 독일어권 출신 부모에게서 출생.
- 카마이클, 앨리스터(Alistair Carmichael). 본명 알렉산더 모리슨 카마이클(Alexander Morrison Carmichael). 1965~. 영국 정치가. 스코틀랜드인.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2013. 10.~). 중도좌파 스코틀랜드 자유민주당(Scottish Liberal Democrats) 부대표(2012. 9.~). 3선 하원의원(2001. 6.~). 하원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원내대표(Chief Whip)(2010. 5.~2013. 10.).
- 파들리, 무흐신(Muḥsin al Faḍli/Muhsin al-Fadhli) 아랍 어명: محسن الفضلي. 1981~. 군인. 쿠웨이트 태생. 다국가 출신 시리아 이민자들로 구성된 이슬람 테러 집단 호라산(Khorasan)(페르시아 어명: خراسان)의 수장으로 추정되는 인물. 전 알카에다(al-Qaeda) 이란 지부장.

[지명]

- 타반보그드 산(Tavan Bogd 산). 몽골 어명: Тавагн бога. 몽골 서단에 위치한, 몽골 최고(最高)의 산.

3.3. 2014년 제27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10. 10.)

[인명]

- 글리슨, 도널(Domhnall Gleeson). 1983~. 아일랜드 배우. 단편영화 감독 · 각본가로도 활동.
- 라메시, 라마무르티(Ramamoorthy Ramesh). 타밀 어명:

ராமமூர்த்திகமலேஷ். 1960~. 인도·미국 재료학자 타밀나두(Tamil Nadu) 주 첸나이(Chennai) 태생.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UC Berkeley) 교수 (2004~).

- 룬구, 이리나(Irina Lungu). 1980~. 몰도바 성악가. 소프라노 가수.
- 마흐말바프, 모센(Mohsen Makhmalbaf). 페르시아 어명: محسن مخملباف. 1957~. 이란 영화 감독·각본가·제작자. 대표 연출작 ‘칸다하르 (Kandahar)(페르시아 어명: سفر قندهار)’ (2001).
- 아기옹, 필리프(마리오) (Philippe (Mario) Aghion). 1956~. 프랑스 경제학자. 하버드(Harvard)대 경제학 석좌교수.
- 아이컨그린, 배리(줄리언) (Barry (Julian) Eichengreen). 1952~. 미국 경제학자.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Berkeley) 경제·정치학과 교수.
- 에이브러햄슨, 레니(Lenny Abrahamson). 본명 레너드 에이브러햄슨(Leonard Abrahamson). 1966~. 아일랜드 영화감독. 대표 연출작 ‘주유소(Garage)’(2007).
- 오디에어노, 레이먼드(Raymond T. Odierno). 애칭 레이(Ray). 1954~. 미국 군인. 육군 대장(2008. 9.~). 육군 참모총장(2011. 9.~).

3.4. 제117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 (2014.10.15.)

[인명]

- 가튼스타인로스, 더비드(Daveed Gartenstein-Ross). 1976~. 미국 법조인·실업가. 오리건(Oregon)주 애슐랜드(Ashland)의 유대인 집안에서 출생. 워싱턴시 소재 국가안보·외교정책 두뇌집단(think tank) 민주국가수호재단(FDD) 산하 테러리스트 급진화 연구소장 (2010~). 테러 대응 문제 학자·분석가·고문으로 활동.

- 구텐러(古天樂/Gǔ Tiānlè). 영어명: 루이스 쿠(Louis Koo). 1970~. 중국 배우. 홍콩인. 광둥 어명은 ‘구틴록(Gu Tin-lok)’.
- 그리세이, 토머스 (폴) (Thomas P(oole) Griesa). 1930~. 미국 법조인. 뉴욕주남부연방지방법원(S.D.N.Y.) 법원장(1993~2000), 판사(1972~1993, 2000~).
- 쿤찰라 워라위쨌차이꾼(Kulchala Worawicitchaikul/Kunchala Voravichitchaikul). 타이 어명: กุลชลา วรวิชิตชัยกุล. 1984~. 타이 여성 배드민턴 선수.
- 리바오장(李保樟 Lǐ Bǎozhāng). 통용 표기: 리포청(Lee Po-Cheung). ?~. 중국 영화감독. 홍콩인.
- 모드, 그레이엄(Graeme Moad). 1952~. 오스트레일리아 화학자. 호주 연방과학원(CSIRO) 소속(1979~).
- 모신스키, 일라이자(Elijah Moshinsky). 1946~. 오스트레일리아 공연감독. 중국 상하이에서 러시아 유대인 부모에게서 출생, 5세에 가족이 멜버른(Melbourne)에 이주.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Royal Opera House),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Metropolitan Opera), 영국 국립극장(Royal National Theatre) 등에서 활동.
- 바추리, 잠바(Jamba Batsuuri). 몽골 어명: Жамбын Батсуурь. ?~. 몽골 정치가. 수흐바타르(Sükhbaatar)(Сүхбаатар) 주지사.
- 베일리콜, 케마르(Kemar Bailey-Cole). 1992~. 자메이카 육상 선수. 주종목은 단거리 달리기(100, 200미터), 400미터 계주.
- 세르트 (이 로페스), 주제프 류이스(Josep Lluís Sert (i López)). 1902~1983. 에스파냐 건축가. 카탈루냐 인. 바르셀로나(Barcelona) 태생.
- 셰어, 스티븐 (웨인) (Stephen W(ayne) Scherer). 애칭 스티브(Steve). 1964~. 캐나다 유전학자. 토론토대(UToronto) 부속 소아과병원(Hospital

for Sick Children) 연구소 응용유전체학 센터(TCAG) 소장(Scientific Director).

- 시귀르드손, 길비 (소르) (Gylfi (Þór) Sigurðsson). 1989~. 아이슬란드 축구 선수. 미드필더. 영국 웨일스 프로축구 팀 스완지시티(Swansea City A.F.C.) 소속(2014. 7. ~).
- 아이오아디, 리처드 (엘레프) (Richard (Ellef) Ayoade). 1977~. 영국 배우 · 감독 · 각본가 · 방송인. 잉글랜드인. 런던에서 나이지리아인 부모에게서 출생.
- 오케손, (페르) 임미 (Per) (Jimmie Åkesson). 1979~. 스웨덴 정치가. 극우파 스웨덴 민주당(SD) 당수(2005. 5. ~). 국회의원(2010. 10. ~).
- 이데르바트, 만라이바타르(Manlaibaatar Iderbat). 몽골 어명: Манла йбаатарын Идэрбат. ?~. 몽골 정치가. 수흐바타르(Sükhbaatar)(Сү хбаатар) 주 바룬우르트(Baruun-Urt)(Баруун-Урт) 시장.
- 추쿠, 오니에불이(Onyebuchi Chukwu). 1962~ 나이지리아 정치가 · 의학자 · 의사. 보건장관(2010. 4. ~).
- 커즈너, 이즈리얼 (메이어) (Israel (Meir) Kirzner). 1930~. 미국 경제학자. 영국 런던의 유대계 집안에서 출생. 뉴욕대(NYU) 경제학 명예교수.
- 클라레트, 류이스(Lluís Claret). 1951~. 안도라 첼로 연주자.
- 하얀하르바, 담딘(Damdin Hayanhyarvaa). 몽골 어명: Дамдингийн Хаянхярваа. ?~. 몽골 정치가. 국회의원.
- 맥다웰, 그레이엄(Graeme McDowell). 별칭 지맥(G-Mac). 1979~. 영국 골프 선수. 북아일랜드인. 2014년 10월 현재 세계 골프 랭킹(Official World Golf Ranking) 18위.

[2014 노벨상 수상자]

- 나카무라 슈지(申村修二). 영어명: Shuji Nakamura. 1954~. 미국 공학자. 2014년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 2000년 국적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변경.
- 머너, 윌리엄(William E. Moerner). 2014년도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 미국.
- 모디아노, 파트리크(Patrick Modiano). 2014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 프랑스.
- 모세르, 마이브리트(May-Britt Moser). 201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 노르웨이. 에드바르 모세르(Edvard I. Moser)의 부인.
- 모세르, 에드바르(Edvard I. Moser). 201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 노르웨이. 마이브리트 모세르(May-Britt Moser)의 남편.
- 베허그, 에릭(Eric Betzig). 2014년도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 미국.
- 사티아르티, 카일라시(Kailash Satyarthi). 힌디 어명: कैलाश सत्यार्थ. 2014년도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 인도.
- 아마노 히로시(天野浩). 2014년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 일본.
- 아카사키 이사무(赤崎勇). 2014년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 일본.
- 오키프, 존(John O'Keefe). 201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 미국·영국.
- 유사프자이, 말랄라(Malala Yousafzay). 파슈토 어명: ملاه یوسفزی. 1997~. 파키스탄 여성 여성인권운동가. 2014년도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 2012년 10월부터 영국에 거주.
- 티롤, 장(Jean Tirole). 2014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 프랑스.
- 헬, 슈테판(Stefan W. Hell). 1962~. 독일 물리학자. 2014년도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 루마니아 태생, 1978년 가족이 서독에 이주.

- 다우토올루, 아흐메트(Davutoğlu, Ahmet). 터키 외교관 정치학자 (1959~). 외무장관(2009. 5.~).
- 맥다웰(MacDowell). 미국의 작곡가, 피아니스트(1860~1908).
- 분냥 보라치트 Bounnhang Vorachit 라오스의 정치가(1937~). 총리 (2001~2007).
- 워라위 마꾸디 Worawi Makudi 타이 어명: วรวิ มัคคุดี 타이 인. FIFA (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회 위원.
- 통룬, 시술리트(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 장관(?~). 전 부총리 겸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2006년 6월 현직.

[지명]

- 수루츠(Suruç). 터키 남동부 샨르우르파(Şanlıurfa) 주 남서부의 지명.
- 샨르우르파(Şanlıurfa). ① 터키의 주. ② 샨르우르파 주의 주도.
- 시느스(Sines). 포르투갈 서남부 세투발(Sétubal) 주의 도시.
- 자구아리비(Jaguaribe). 브라질의 지명.
- 카세리스(Cáceres). 브라질 마투그로수(Mato Grosso) 주 남쪽에 있는 도시.
- 하니시 섬(Haniş/Hanish) 섬 아랍어명: حنيش. 에리트레아 점유 홍해의 섬. 1998년 예멘에 반환되었다.

[일반 용어]

- 구아룰류스 국제공항(Guarulhos). 국제공항 브라질. 상파울루.

3.5. 2014년 제28차 실무소위원회 심의확정안(2014. 10. 24.)

[인명]

- 네베스(다쿠냐), 아에시우(Aécio Neves (da Cunha)). 1960~. 브라질 정치가. 상원의원(2011. 2. ~). 중도파 사회민주당(PSDB) 당수(2013. 5. ~).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주지사(2003. 1. ~2010. 3.). 4선 하원의원(1987. 2. ~2002. 12.), 하원의장(2001. 2. ~2002. 12.). 2014년 10월 대통령선거·총선·지방선거 사회민주당 대통령 후보.
- 드브레, 장루이(Jean-Louis Debré). 1944~. 프랑스 정치가.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위원장(2007. 3. ~). 하원의장(2002. 6. ~2007. 3.).
- 마에스트리, 루카(Luca Maestri). 1963~. 이탈리아 경영인. 애플(Apple Inc.)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전무(SVP)(2014. 5. ~), 상무(VP)(재무 담당)(2013. 2. ~2014. 5.). 제록스(Xerox Corp.)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전무(EVP)(2011. 2. ~2013. 2.).
- 베기치, 마크(피터) (Mark (Peter) Begich). 1962~. 미국 정치가. 상원의원(민주·알래스카)(2009. 1. ~). 앵커리지(Anchorage) 시장(2003. 7. ~2009. 1.). 친조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출신 크로아티아인 이민자.
- 부퀴키오, 잔니(Gianni Buquicchio). 1944~. 이탈리아 법조인. 유럽평의회(CoE) 자문기구로서, 통상 베네치아 위원회(Venice Commission)로 불리는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위원장(2009. 12. ~), 사무국장(1990? ~2009).
- 아마르사나, 주그네(Jugnee Amarsanaa). 몽골 어명: ЖҮГНЭЭГИЙН Амарсанаа. 1953~. 몽골 법조인·법학자. 헌법재판소장(2012~).

- 인호프, 짐(Jim Inhofe). 본명 제임스 마운틴 인호프(James Mountain Inhofe). 1934~. 미국 정치가·경영인 4선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1994. 11. ~). 4선 하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1987. 1. ~1994. 11.). 털사(Tulsa) 시장(1978~1984).
- 찰하노을루, 하칸(Hakan Çalhanoğlu). 1994~. 터키 축구 선수. 독일 태생. 공격형 미드필더. 독일 프로축구 팀 레버쿠젠(Bayer 04 Leverkusen) 소속(2014. 7. ~).
- 팜빈민(Phạm Bình Minh). 1959~. 베트남 정치가·외교관. 부총리 겸 외무장관(2013. 11. ~), 외무장관(2011. 8. ~2013. 11.), 외무 부장관(2007. 9. ~2011. 8.).
- 포스쿨레, 안드레아스(Andreas Voßkuhle). 1963~. 독일 법조인·법학자. 연방헌법재판소 소장(2010. 3. ~), 부소장(2008. 5. ~2010. 3.).
- 프라디프 몽가(Pradeep Monga). ?~. 인도 에너지 정책학자, 행정가.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 에너지·기후변화 국장(2001~).
- 하르프비켄, 크리스티안 베르그(Kristian Berg Harpviken). 1961~. 노르웨이 사회학자. 오슬로 평화연구소(PRIO) 소장(2009. 7. ~).

3.6. 2014년 제29차 실무소위원회 심의 확정안(2014. 10. 31.)

[인명]

- 로드리게스, 리코(Rico Rodriguez). 1998~. 미국 배우. 텍사스(Texas) 주 브라이언(Bryan)의 멕시코계 집안에서 출생.
- 리에도, 다니엘(Daniel Riedo). 1960~. 스위스 경영인. 고급 시계 제조사 제제르-르쿨트르(Jaeger-LeCoultre) 최고경영자(CEO)(2013. 7. ~).
- 머혼, 오스틴(Austin Mahone). 1996~. 미국 가수·작사작곡가.

- 브리놀프슨, 에릭(Erik Brynjolfsson). ?1958~. 미국 경영경제학자·실업가. 매사추세츠 공대(MIT) 경영대학원(Sloan) 석좌교수(2001~).
- 스커틀러토이우, 그리고레(Grigore Scărlătoiu). 영어 애칭 그레그(Greg). ?~. 루마니아 인권운동가·경영인. 워싱턴시 소재 비정부 연구기관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2011. 7.~). 국제관계, 외교, 동아시아 전문가. 서울시 명예시민(1999~).
- 시리완나와리 나리랏(Siriwannawari Narirat/Sirivannavari Narira-tana). 타이 어명: สิริวัฒนภรณ์ นารีรัตน์. 1987~. 타이 왕족. 푸미폰 아둔야뎃(Phumiphon Adun-yadet) 현 국왕의 손녀, 마하 와찌랄롱꼰(Maha Wajiralongkorn) 왕세자의 막내딸. 개명 전 이름은 ‘붓남펏(Busnamphech) (บุษย์น้ำเพชร)’, ‘짜끄릿야파(Cakkrisyapha)(จักรกฤษณ์ยาภา)’, ‘시리완와리(Siriwanwari)(สิริวัฒนภรณ์)’. 패션 모델·디자이너, 배드민턴·승마 선수로 활동.
- 십카, 키어넌 (브레넌) (Kiernan (Brennan) Shipka). 애칭 키키(Kiki). 1999~. 미국 여배우. 대표 출연 텔레비전 연속극 ‘매드 맨(Mad Men)’ (2007~).
- 아켓, 퍼트리샤(Patricia Arquette). 1968~. 미국 여배우. 텔레비전 연속극 ‘미디엄(Medium)’(2005~2011)으로 제57회 프라임타임 에미상(Primetime Emmy Award) 드라마 연속극 여우주연상 수상(2005. 9.).
- 아크도안, 얄찐(Yalçın Akdoğan). 1969~. 터키 정치가. 부총리(2014. 8.~). 국회의원(2011. 6.~). 언론인 출신.
- 차우쇼울루, 메블뤼트(Mevlüt Çavuşoğlu). 1968~. 터키 정치가. 외무장관(2014. 8.~), 유럽연합 문제 장관(2013. 12.~2014. 8.). 3선 국회의원(2002. 11.~). 유럽평의회(CoE) 의회(PACE) 의장(2010. 1.~2012. 1.).
- 코파치, 에바(Ewa Kopacz). 1956~. 폴란드 여성 정치가·의사. 총리

- (2014. 9. ~). 하원의장(2011. 11. ~2014. 9.), 보건장관(2007. 11. ~ 2011. 11.),
- 투레, 아마둔(Hamadoun Touré). 1953~. 말리 전기공학자·행정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국장(2007~).
 - 퍼라이아, 머리(Murray Perahia). 1947~. 미국 피아니스트·지휘자. 뉴욕시의 유대계 집안에서 출생.
 - 헝킷, 휘버르트얀(Hubert-Jan Henket). 1940~. 네덜란드 건축가.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마침표(.)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예) 젊어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예)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예) 집으로 돌아갑시다.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붙임 1]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예) ㄱ.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ㄴ.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붙임 2]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예) ㄱ.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예) ㄱ.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 2014년 12월 5일에 고시한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 ㄱ.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ㄴ.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예 ㄱ.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ㄴ.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압록강은 흐른다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건강한 몸 만들기

(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예 1919. 3. 1.

예 10. 1. ~ 10. 12.

(3)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예 3.1 운동

예 8.15 광복

[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데점을 쓸 수 있다.

예 3·1 운동

예 8·15 광복

(4)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

예 가. 인명

예 ㄱ. 머리말

예 I. 서론

예 1. 연구 목적

[붙임] '마침표' 대신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2. 물음표(?)

(1)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

예 점심 먹었어? 예 이번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예 제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다섯 살짜리 꼬마가 이 멀고 험한 곳까지 혼자 왔다?

예 지금? 예 뭐라고?

예 네?

[붙임 1]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
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예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예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붙임 2]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예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이나.

예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역사란 무엇인가 예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2)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
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

예 우리와 의견을 같이할 사람은 최 선생(?) 정도인 것 같다.

예 30점이라, 거참 훌륭한(?) 성적이군.

예 우리 집 강아지가 가출(?)을 했어요.

(3)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최치원(857~?)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쳤던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예 조선 시대의 시인 강백(1690?~1777?)의 자는 자청이고, 호는 우곡이다.

3. 느낌표(!)

(1) 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 쓴다.

예 이거 정말 큰일이 났구나! 예 어머!

[붙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느낌표 대신 쉼표나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예 어, 벌써 끝났네. 예 날씨가 참 좋군.

(2) 특별히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에 쓴다.

예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예 이야, 정말 재밌다! 예 지금 즉시 대답해!

예 앞만 보고 달리자!

(3)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

예 이게 누구야! 예 내가 왜 나빠!

(4) 감정을 넣어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쓴다.

예 네! 예 네, 선생님!

예 흥부야! 예 언니!

4. 쉼표(,)

(1)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예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예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
이다.

예 집을 보러 가면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 살기에 편한지, 망가
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이다.

다만, (가) 쉽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

예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예 네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만 원도 안 되겠다.

(나)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쉽표를 쓰지 않는다.

예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2)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예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3)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예 5, 6세기

예 6, 7, 8개

(4)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예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예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저는 신뢰와 정직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온바, 이번 비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떡국은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걸 먹어야 비로소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6)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예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7)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예 지은아, 이리 좀 와 봐.

예 네, 지금 가겠습니다.

(8)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예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예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한 예의, 즉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 호준이 어머니, 다시 말해 나의 누님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된다.

예 나에게도 작은 소망, 이를테면 나만의 정원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9)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예 돈,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예 열정, 이것이야말로 젊은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예 지금 네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예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한번 내겠어.

예 그 사실, 넌 알고 있었지?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예 그의 애국심,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예 이리 오세요, 어머니님.

예 다시 보자, 한강수야.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예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예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예 영호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들을 맞았다.

[붙임 1] 이때는 쉽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예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아.

예 영호는 미소를 띠고 —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 그들을 맞았다.

[붙임 2]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쉽표가 들어 있을 때는 쉽표 대신 줄표를 쓴다.

예 이진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예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예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예 선생님, 부,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붙임 '쉽표' 대신 '반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5. 가운뎃점(·)

(1)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예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

예 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2)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쓴다.

예 한(韓)·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예 우리는 그 일의 참·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예 하천 수질의 조사·분석

예 빨강·초록·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다만, 이때는 가운데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

예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예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예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예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

(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

예 상·중·하위권

예 금·은·동메달

예 통권 제54·55·56호

[붙임] 이때는 가운데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

예 상, 중, 하위권

예 금, 은, 동메달

예 통권 제54, 55, 56호

6. 쌍점(:)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예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예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예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예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2)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예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예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예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예 두시언해 6:15(두시언해 제6권 제15장)

(4)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예) 65:60(65 대 60)

예)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7. 빗금(/)

(1)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그 사이에 쓴다.

예) 먹이다/먹히다

예) 남반구/북반구

예) 금메달/은메달/동메달

예) ()이/가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이다.

(2)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쓴다.

예) 100미터/초

예) 1,000원/개

(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다만, 연이 바뀔 때를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

예)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붙임]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어 쓸 수 있다.

8. 큰따옴표(“ ”)

(1) 글 가운데에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예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예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예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9. 작은따옴표(‘ ’)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2)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예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 ‘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어.’ 호연이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10. 소괄호(())

(1)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예 니체(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예 2014. 12. 19.(금)

예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2)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예 기호(嗜好), 자세(姿勢) 예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3)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부를 때는 이름 뒤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예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다.

(4) 희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

예 현우: (가쁜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빨리 뛰어?

예 “관찰한 것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상력이 생겼나 봐요.” (웃음)

(5)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우리나라의 수도는 ()이다.

예 다음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쓰시오.

민수가 할아버지() 꽃을 드렸다.

(6)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에 쓴다.

예 사람의 인격은 (1) 용모, (2) 언어, (3) 행동, (4) 덕성 등으로 표현된다.

예 (가) 동해, (나) 서해, (다) 남해

11. 중괄호({ })

(1)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예 주격 조사 { 이
 가 }

예 국가의 성립 요소 { 영토
 국민 }
 주권 }

(2)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

예)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까지} 갔어요.

12. 대괄호([])

(1)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예)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윤석중 전집(1988), 70쪽 참조]

예)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

예) 나이[年歲]

예) 낱말[單語]

예) 손발[手足]

(3)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

예) 그릇[한글]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예) 신경준의 《여암전서》에 “삼각산은 산이 모두 돌 봉우리인데, 그 으뜸 봉우리를 구름 위에 솟아 있다고 백운(白雲)이라 하며 [이하 생략]”

예)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원문에는 ‘업다’임.]

13.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예) 『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예)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예)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붙임]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예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14.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예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예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예 백남준은 2005년에 <엄마>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붙임]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예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15. 줄표(—)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

예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 —’이다.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다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

예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이다.

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붙임]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16. 붙임표(-)

(1)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

예) 멀리뛰기는 도움달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예) 김 과장은 기획-실무-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

(2)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

예) 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

예) 원-달러 환율

예)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

17. 물결표(~)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예) 9월 15일~9월 25일

예) 김정희(1786~1856)

예)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예)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붙임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예) 9월 15일-9월 25일

예) 김정희(1786-1856)

예)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예)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18. 드러냄표(·)와 밑줄(_)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예)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예)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붙임]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예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예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19. 숨김표(○, ×)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 쓴다.

예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이다.

예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예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20. 빠짐표(□)

(1)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 쓴다.

예 大師爲法主□□賴之大□薦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예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21.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예 “빨리 말해!” “…….”

(3)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예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예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눈물만…… 흘렸다.”

[붙임 1]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예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 2]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예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섰다.

예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붙임 3]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3)에서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

